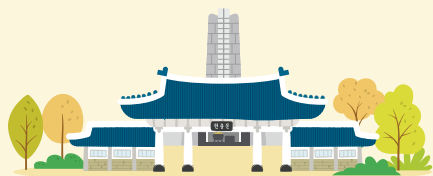


현충원에서 픽우는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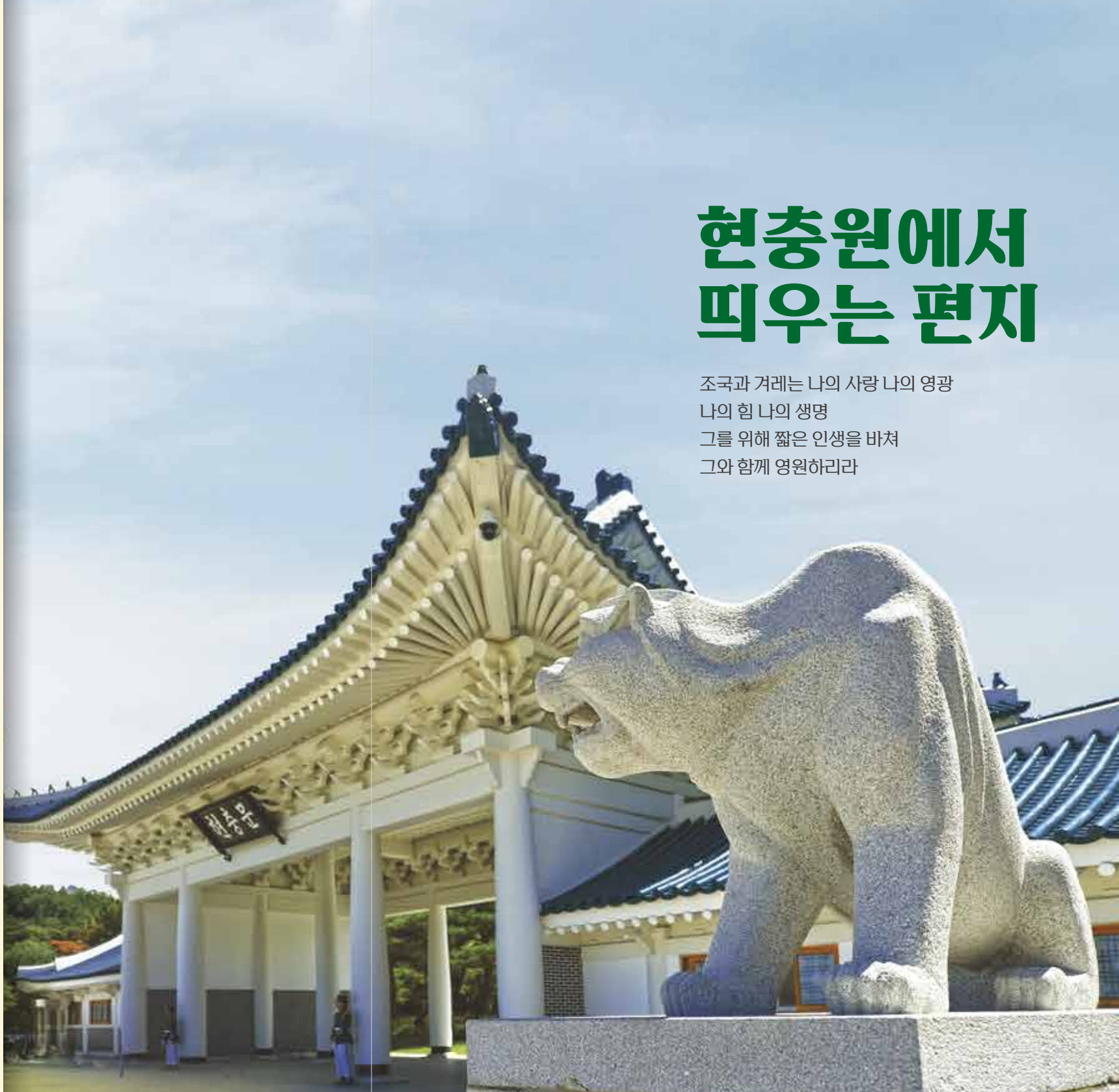
조국과 겨레는 나의 사랑 나의 영광
나의 힘 나의 생명
그를 위해 짧은 인생을 바쳐
그와 함께 영원하리라



국립서울현충원
Seoul National Cemetery



여기는 민족의 열이 서린 곳
조국과 함께 영원히 가는 이들
해와 달이 이 언덕을 보호하리라



현충원에서 픽우는 편지

조국과 겨레는 나의 사랑 나의 영광
나의 힘 나의 생명
그를 위해 짧은 인생을 바쳐
그와 함께 영원하리라



국립서울현충원

국립서울현충원은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고,
국토를 방위하다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마저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잠들어 계신 민족의 성지이며
겨레의 열이 서려있는 곳입니다.

온 국민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며
국가 수호의 결의를
새로이 다짐하는 장소입니다.





호국문예 제22집

발간사

국립서울현충원은 조국의 수호와 발전을 위하여 고귀한 생명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께서 잠들어 계신 민족의 성지입니다.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이 생생하게 깃들어 있는 역사적 현장 현충원에서, 그분들의 숨결을 느끼고 발자취를 더듬어 한편의 글과 그림으로 남길 수 있도록 매년 호국문예백일장과 그림그리기 대회를 함께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 대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하였는데, 올해는 3년만에 현장에서 진행하여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호국영령의 넋을 함께 기리고, 각자의 마음에 품고 있던 나라사랑의 정신을 원고지와 화폭에 담아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전시관을 비롯하여 독립유공자묘역, 무후선열제단, 학도의용군무명용사탑 등 원내 곳곳에는 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이 배어 있어 참가자들의 심장을 뜨겁게 하고 나라사랑의 마음을 샘솟게 하였습니다.

대회 참가를 위해 처음으로 현충원을 방문하여 수 많은 묘비를 보고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등 유명한 인물들뿐 아니라, 6·25전쟁에서 나라를 위해 싸워주신 군인분들께 존경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로 다짐했다는 초등학생,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었는데, 나라를 위해 치열하게 싸우시다 희생하신 수많은 무명용사의 묘비를 본 후 본인의 힘들어 사치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글을 써야겠다고 다짐하는 고등학생을 보면서 학생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각자의 문예적 재능을 통해 표현한 감동 어린 글과 그림을 이제 「현충원에서 띄우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책을 읽는 국민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의 고귀한 정신을 생생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분들의 정신이 여러분의 가슴 깊이 호국의 씨앗으로 심어져 힘차게 자라나기를 기대합니다.

매년 나라사랑 정신과 호국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개최한 우리 대회에 특별상을 수여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해주시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경기도교육감, 인천광역시 교육감, 한국문인협회이사장, 미술협회이사장을 비롯한 육·해·공군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인 학생들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고, 국립서울현충원을 향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학교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매년 수고를 아끼지 않고 심사를 맡아주신 한국문인협회와 한국미술협회 관계자들에게도 지면을 빌려 감사를 전하며, 귀중한 작품들이 빛을 볼 수 있게 발간에 도움을 주신 관계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10월

국립서울현충원장 김수삼





호국문예 제22집

연혁

제1집

「먼 전설이 아니예요」 | 1회~4회 수상작 수록

제1회 호국문예백일장

일시 | 1993년 10월 30일(토)
인원 | 166명(초등학교 94개교, 중학교 72개교에서 각 1명)
시상 | 6명(초등부 3명, 중학부 3명)

제2회 호국문예백일장

일시 | 1995년 5월 27일(토)
인원 | 176명(초등학교 87개교, 중학교 89개교에서 각 1명)
시상 | 1회 대회와 동일

제3회 호국문예백일장

일시 | 1996년 4월 27일(토)
인원 | 391명(초등학교 98개교, 중학교 99개교에서 각 2명)
시상 | 14명(초·중학교별 최우수상 각 1명, 우수상 각 2명, 장려상 각 4명)

제4회 호국문예백일장

일시 | 1997년 4월 26일(토)
인원 | 382명(초등학교 99개교, 중학교 96개교에서 각 2명)
시상 | 3회 대회와 동일

제2집

「그 언덕에 서면」 | 5회~8회 수상작 수록

제5회 호국문예백일장

일시 | 1998년 4월 26일(일)
인원 | 345명(초등학교 89개교, 중학교 84개교에서 각 1~2명)
시상 | 초·중학교별 최우수상(국방부장관상) 각 1명, 우수상(교육감상) 각 2명, 장려상(국립현충원장상) 각 5명

제6회 호국문예백일장

일시 | 1999년 4월 24일(토)
인원 | 416명(초등학교 110개교, 중학교 104개교에서 각 1~2명)
시상 | 초·중학교별 최우수상(국방부장관상) 각 1명, 우수상(교육감상) 각 2명, 장려상(국립현충원장상) 각 6명

제7회 호국문예백일장

일시 | 2000년 4월 22일(토)
인원 | 477명(초등학교 124개교, 중학교 110개교에서 각 2명)
시상 | 초·중학교별 최우수상(국방부장관상) 각 1명, 우수상(교육감상) 각 3명, 장려상(국립현충원장상) 각 8명

제8회 호국문예백일장

일시 | 2001년 4월 21일(토)
인원 | 477명(초등학교 124개교, 중학교 110개교에서 각 1~2명)
시상 | 초·중학교별 최우수상(국방부장관상) 각 1명, 우수상(교육감상) 각 3명, 장려상(국립현충원장상) 각 8명



제3집

「고마운 사람들」 | 9회~10회 수상작 수록

제9회 호국문예백일장

일시 | 2002년 4월 20일(토)
인원 | 478명(초등학교 158개교, 중학교 90개교)
시상 | 21명(최우수상 각 1명, 우수상 각 3명, 장려상 각 6명)

제10회 호국문예백일장

일시 | 2003년 4월 19일(토)
인원 | 429명(초등학교 123개교, 중학교 81개교)
시상 | 25명(최우수상 각 1명, 우수상 각 3명, 장려상 각 8명)

제4집

「가슴 속에 스며드는 빛나는 영혼」 | 11회 수록

제11회 호국문예백일장

일시 | 2004년 4월 17일(토)
인원 | 152개교 300명(초·중학부)
시상 | 20명(국방부장관상 2명, 교육감상 6명, 현충원장상 12명)

제5집

「가슴으로 부르는 연가」 | 12회 수상작 수록

제12회 호국문예백일장

일시 | 2005년 4월 16일(토)
인원 | 152개교 300명(초·중학부)
시상 | 20명(국방부장관상 2명, 교육감상 6명, 현충원장상 12명)

제6집

「나라를 지킨 영웅들」 | 13회 수상작 수록

제13회 호국문예백일장

일시 | 2006년 4월 15일(토)
인원 | 97개교 182명(초·중학부)
시상 | 24명(국방부장관상 2명, 교육감상 6명, 현충원장상 16명)





호국문예 제22집

연혁

제7집

「조국과 함께 영원히 가는 이들」 | 14회 수상작 수록

제14회 호국문예백일장

일시 | 2007년 5월 12일(토)
인원 | 86개교 188명 * 백일장 고등부 도입
사상 | 24명(국방부장관상 2명, 교육감상 6명, 현충원장상 16명)

제8집

「지는 꽃 피는 꽃」 | 15회 백일장 및 1회 그림대회 수상작 수록

제15회 호국문예백일장 및 제1회 그림그리기 대회

일시 | 2008년 5월 16일(금)
인원 | 393명(백일장 282명, 그림 111명) * 그림그리기 대회 신설
사상 | 백일장 18명, 그림 7명

제9집

「현충원의 봄날」 | 16회 백일장 및 2회 그림대회 수상작 수록

제16회 호국문예백일장 및 제2회 그림그리기 대회

일시 | 2009년 4월 11일
인원 | 2,386명(백일장 616명, 그림 1,770명) * 백일장 일반부 신설
사상 | 백일장 24명, 그림 57명

제10집

「내 마음속의 현충원」 | 17~18회 백일장 및 3~4회 그림대회 수상작 수록

제17회 호국문예백일장 및 제3회 그림그리기 대회

일시 | 2010년 5월 8일(토)
인원 | 2,518명(백일장 1,357명, 그림 1,161명)
사상 | 백일장 32명, 그림 76명

제18회 호국문예백일장 및 제4회 그림그리기 대회

일시 | 2010년 10월 8일(토)
인원 | 609명(백일장 454명, 그림 155명)
사상 | 백일장 24명, 그림 12명



제11집

「우리가 지켜야 할 이유」 | 19~20회 백일장 및 5~6회 그림대회 수상작 수록

제19회 호국문예백일장 및 제5회 그림그리기 대회

일시 | 2011년 5월 14일(토)
인원 | 2,167명(백일장 1,167명, 그림 1,000명)
사상 | 백일장 49명, 그림 51명

제20회 호국문예백일장 및 제6회 그림그리기 대회

일시 | 2011년 11월 12일(토)
인원 | 800명(백일장 616명, 그림 184명)
사상 | 백일장 33명, 그림 25명

제12집

「현충원에서 띄우는 편지」 | 21회 백일장 및 7회 그림대회, 외부백일장 수상작 수록

제21회 호국문예백일장 및 제7회 그림그리기 대회

일시 | 2012년 5월 12일(토)
인원 | 2,167명(백일장 1,167명, 그림 1,000명)
사상 | 백일장 59명, 그림 79명

제13집

「현충원에서 띄우는 편지」 | 22회 백일장 및 8회 그림대회 수상작 수록

제22회 호국문예백일장 및 제8회 그림그리기 대회

일시 | 2013년 5월 11일(토)
인원 | 3,082명(백일장 1,420명, 그림 1,662명)
사상 | 백일장 75명, 그림 84명
* 특별상 신설 (서울시·인천시 교육감, 한국문인협회장, 한국미술협회장, 육해공군참모총장상, 해병대사령관상)

제14집

「현충원에서 띄우는 편지」 | 23회 백일장 및 9회 그림대회 수상작 수록

제23회 호국문예백일장 및 제9회 그림그리기 대회

일시 | 2014년 5월 10일(토)
인원 | 2,430명(백일장 1,389명, 그림 1,041명)
사상 | 백일장 66명, 그림 65명





호국문예 제22집

연혁

제15집

「현충원에서 띄우는 편지」 | 24회 백일장 및 10회 그림대회 수상작 수록

제24회 호국문예백일장 및 제10회 그림그리기 대회
일시 | 2015년 5월 9일(토)
인원 | 2,211명(백일장 1,094명, 그림 1,117명)
사상 | 백일장 66명, 그림 67명

제16집

「현충원에서 띄우는 편지」 | 25회 백일장 및 11회 그림대회 수상작 수록

제25회 호국문예백일장 및 제11회 그림그리기 대회
일시 | 2016년 5월 7일(토)
인원 | 1,843명(백일장 986명, 그림 857명)
사상 | 백일장 67명, 그림 74명 * 특별상(경기도교육감상) 추가

제17집

「현충원에서 띄우는 편지」 | 26회 백일장 및 12회 그림대회 수상작 수록

제26회 호국문예백일장 및 제12회 그림그리기 대회
일시 | 2017년 5월 13일(토)
인원 | 2,096명(백일장 957명, 그림 1,139명)
사상 | 백일장 71명, 그림 61명

제18집

「현충원에서 띄우는 편지」 | 27회 백일장 및 13회 그림대회 수상작 수록

제27회 호국문예백일장 및 제13회 그림그리기 대회
일시 | 2018년 5월 13일(일) * 우천으로 하루 연기 개최
인원 | 2,042명(백일장 1,035명, 그림 1,007명)
사상 | 백일장 71명, 그림 61명

제19집

「현충원에서 띄우는 편지」 | 28회 백일장 및 14회 그림대회 수상작 수록

제28회 호국문예백일장 및 제14회 그림그리기 대회
일시 | 2019년 5월 11일(토)
인원 | 2,400명(백일장 1,250명, 그림 1,150명)
사상 | 백일장 75명, 그림 61명



제20집

「현충원에서 띄우는 편지」 | 29회 백일장 및 15회 그림대회 수상작 수록

제29회 호국문예백일장 및 제15회 그림그리기 대회 (온라인)
일시 | 2020년 8월 12일(수) ~ 9월 18일(금) * 온라인 개최
인원 | 276명(백일장 163명, 그림 113명)
사상 | 백일장 62명, 그림 30명

제21집

「현충원에서 띄우는 편지」 | 30회 백일장 및 16회 그림대회 수상작 수록

제30회 호국문예백일장 및 제16회 그림그리기 대회 (온라인)
일시 | 2021년 4월 1일(목) ~ 6월 30일(금)
인원 | 1,701명(백일장 407명, 그림 1,294명)
사상 | 백일장 75명, 그림 64명

제22집

「현충원에서 띄우는 편지」 | 31회 백일장 및 17회 그림대회 수상작 수록

제31회 호국문예백일장 및 제17회 그림그리기 대회
일시 | 2022년 5월 21일(토)
인원 | 2,004명(백일장 1,024명, 그림 980명)
사상 | 백일장 74명, 그림 63명





제17회 국립서울현충원 그림그리기 대회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

서울특별시교육감상

경기도교육감상

인천광역시교육감상

한국미술협회이사장상

육군참모총장상

해군참모총장상

공군참모총장상

해병대사령관상

장려상

가작



그림그리기 대회 심사평

심사위원 한국미술협회

이경애, 이연지, 홍지연, 김주희

초등부

제17회 현충원 그림 그리기 대회의 첫인상은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어릴지라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고, 높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초등부의 그림은 대부분 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고, 애국정신이 느껴지도록 최선을 다해 그림에 담아내고 있었다. 그만큼 한 명, 한 명의 그림은 귀하고, 소중했으며, 작품성이 높아서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웠다.

심사의 기준은 호국영령들의 인생과 스토리를 표현하려 노력했는지, 그림의 구도와 완성도가 높았는지, 그리고 표현력이 성실했는지를 생각하며 아이들의 그림을 선정하였다.

수상작으로 선정한 아이들의 그림은, 아이들의 시선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아름다운 우리 나라를, 현충원의 자연과 묘역, 조형물과 함께 어우러지도록 창의적이고 참신하게 표현했으며, 그 모습에 심사하는 내내 감탄을 자아낼 수밖에 없었다.

현충원의 그림 그리기 대회는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독립운동가들과 순국선열의 뜻을 가슴속에 되새겨 보고, 뜻을 계승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 생각이 든다.

대회에 참가한 모든 아이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애국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중학부

‘제17회 현충원 그림 그리기 대회’는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미술 분야에서도 대면 전시가 거의 실종되고 장기 불황의 어려운 상황에서 일상으로 회복과 함께 오랜만의 단비 같은 현장 대회 개최를 통해 아이들 일상의 모습을 엿볼 수 있어 좋았고 참가한 학생들은 ‘나라사랑’의 의미를 재인식하는 소중한 하루였으리라 생각된다.

대회 주제인 나라사랑 정신이 어려웠는 현충원 자연과 묘역, 조형물의 모습을 보이는 대로 상상력을 더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잘 나타내며 발상의 전환과 표현력이 뛰어나고 잠재력이 내재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으며, 그림의 주제와 완성되기까지의 고민과 진지함이 담긴 성실함이 엿보이는 작품들로 선정하였다. 현장이라는 만만하지 않은 환경에도 나라사랑 정신이란 추상적인 의미를 잘 풀고 덧입혀 따뜻한 시선으로 완성도 있게 그려낸 수작들이 많았다.

수상작 선정과정은 심사위원들의 객관적인 시각과 자유로운 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심사기준은 작품의 완성도, 주제와 맞게 얼마나 잘 표현하였는가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국립현충원 그림 그리기 대회’는 애국심과 나라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대회인 만큼 더 유지 발전되고 앞으로도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자유롭고 창의적인 표현의 장이 되길 기대하며, 수상자들에게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

제17회 현충원 그림그리기 대회 수상자

초등부

최우수상

독립의 빛

최정원 군산용문초등학교 6학년

우수상

전사분들 사랑해요
현충원을 지키는 우리

공다인 서울흑석초등학교 1학년
이승민 화성시 석우초등학교 2학년

특별상

서울시교육감상
서울시교육감상
경기도교육감상
경기도교육감상
인천시교육감상
인천시교육감상
한국미술협회이사장상
육군참모총장상
해군참모총장상
공군참모총장상
해병대사령관상

친구와 현충원에 가요
현충문 앞 나라사랑
현충원을 수호하는 호랑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날다
현충원의 조형물
아름다운 현충관
묘지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임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을 사랑해요
승천상과 영웅들

강예준 서울창림초등학교 1학년
황서빈 서울창림초등학교 5학년
최가람 화성시 방교초등학교 4학년
이서윤 경기도 광주시 한아람초등학교 2학년
강채영 인천개항초등학교 2학년
윤예준 인천효성남초등학교 2학년
박소연 서울석촌초등학교 6학년
박시울 서울성산초등학교 2학년
이민기 서울행림초등학교 5학년
김민서 서울창림초등학교 2학년
이귀현 남양주시 다산가람초등학교 4학년

장려상

나라 사랑
외국 친구와 현충원에 왔어요
나라 사랑, 나를 사랑하는 첫걸음!
충혼탑과 나라사랑
희망의 무궁화
석상에 담긴 우리나라의 역사
"용"사의 승천
충혼정신이어 영원하라

김응결 서울창림초등학교 6학년
백지은 서울창림초등학교 1학년
송세인 서울창림초등학교 6학년
한서연 서울창림초등학교 5학년
손지우 서울시 신광초등학교 5학년
박시아 안산시 선부초등학교 5학년
김소정 김포시 풍무초등학교 6학년
이세현 인천영선초등학교 6학년

가작

마음에 울려 퍼지는 애국가
우리나라를 지킨 군인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고마워요 군인 아저씨
지금도 다름없는 나라사랑
무궁화에 물든 영웅같은 군인들
엄마와 아들
현충원의 모습
현충원에서 느낀 나라사랑

김이레 용인시 대청초등학교 3학년
이준모 김포시 한가람초등학교 2학년
임서현 시흥시 월포초등학교 5학년
신은성 용인시 대청초등학교 2학년
최유진 인천한빛초등학교 6학년
김윤아 서울신상도초등학교 4학년
이선영 남양주시 부평초등학교 6학년
이재경 서울흑석초등학교 6학년
이소유 김포시 운유초등학교 1학년

아름다운 우리나라
태극기와 현충일
태극기 펴려이는 현충원
꽃과 함께 쉬세요
희생하신 분들의 의지를 이어받아
평화와 화합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사랑해요 세종대왕님
우리나라에 영웅
현충원과 나라사랑
나라 사랑
현충원을 사랑하는 유관순
내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평화로운 대한민국, 행복한 우리
조각상 속 평화

김시연 평택시 세교초등학교 3학년
이하은 파주시 가은초등학교 1학년
김민지 서울보라매초등학교 6학년
김시아 화성시 다원초등학교 1학년
김채현 화성시 새솔초등학교 6학년
노윤서 서울신상도초등학교 4학년
정해린 청주시 사천초등학교 1학년
박지우 서울서일초등학교 1학년
김승원 서울강남초등학교 5학년
김서진 서울창림초등학교 1학년
박소울 서울창림초등학교 4학년
유재은 서울녹번초등학교 3학년
김하나 서울창림초등학교 1학년
임진우 서울성산초등학교 2학년
김가인 서울서래초등학교 5학년

중등부

최우수상

얼썬! 나라 사랑 축제

박수빈 신동중학교 3학년

우수상

그들의 희생, 태극기로 남고 무궁화로 피어난다
코(리아 korea)벤저스

조규은 선화예중학교 1학년
박하람 수원시 율현중학교 1학년

특별상

서울시교육감상
경기도교육감상
한국미술협회이사장상
육군참모총장상
해군참모총장상
공군참모총장상
해병대사령관상

나라를 위해
충혼송천상
자유와 평화를 향해
그들의 충성 덕분에
덕분에
현충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김규연 성덕여자중학교 3학년
성연우 시흥시 응곡중학교 1학년
김나영 성남시 송림중학교 2학년
박진아 성남시 송림중학교 2학년
한승연 남양주시 진건중학교 3학년
황현서 서울시 연천중학교 3학년
신봄 고양시 백마중학교 1학년

장려상

태극기를 쓰고
송고한 애국정신으로 그리는 밝은 미래
화양연화

김채린 성남시 운중중학교 1학년
이서진 시흥시 배곧중학교 2학년
김보민 선화예술중학교 2학년

가작

호국의 열과 종소리, 무궁화와 함께 피어나리~
충혼송천상
아름다운 나의 나라
잊지 못하는 것

송다연 충암중학교 3학년
이성은 영등포중학교 3학년
이수아 선화예술중학교 2학년
채예림 한영중학교 3학년



최우수상

국방부장관상



독립의 빛

최정원

군산용문초등학교 6학년



우수상

국립서울현충원장상

전사분들
사랑해요

공다인

서울흑석초등학교 1학년

현충원을
지키는 우리

이승민

화성시 석우초등학교 2학년





특별상

서울특별시교육감상

친구와
현충원에 가요

강예준

서울창림초등학교 1학년

현충문 앞
나라사랑

황서빈

서울창림초등학교 5학년



특별상

경기도교육감상

현충원을
수호하는
호랑이

최가람

화성시 방교초등학교 4학년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날다

이서윤

경기도 광주시
한아람초등학교 2학년



특별상

인천광역시교육감상



현충원의 조형물

강채영

인천개항초등학교 2학년



아름다운 현충관

윤예준

인천효성남초등학교 2학년



특별상

한국미술협회이사장상
육군참모총장상

묘지

박소연

서울석촌초등학교 6학년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박시울

서울성산초등학교 2학년





특별상

해군참모총장상
공군참모총장상



임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민기

서울행림초등학교 5학년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을
사랑해요



김민서

서울창림초등학교 2학년



특별상

해병대사령관상



승천상과 영웅들



이귀현

남양주시
다산가람초등학교 4학년



장려상

국립서울현충원장상



나라 사랑

김응결

서울창림초등학교 6학년

외국 친구와
현충원에 왔어요

백지은

서울창림초등학교 1학년



장려상

국립서울현충원장상

나라 사랑,
나를 사랑하는
첫걸음!

송세인

서울창림초등학교 6학년

충혼탑과
나라사랑

한서연

서울창림초등학교 5학년





장려상

국립서울현충원장상



희망의 무궁화

손지우

서울시 신광초등학교 5학년

석상에 담긴
우리나라의 역사

박시아

안산시 선부초등학교 5학년



장려상

국립서울현충원장상



"용"사의 승천

김소정

김포시 풍무초등학교 6학년

충혼정신이여
영원하라

이세현

인천영선초등학교 6학년





가작

국립서울현충원장상



마음에
올려퍼지는
애국가



김이레

용인시 대청초등학교 3학년



우리나라를
지킨 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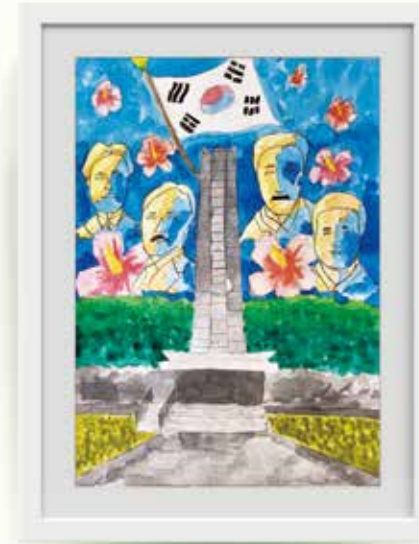


이준모

김포시
한가람초등학교 2학년

가작

국립서울현충원장상



감사합니다



임서현

시흥시 월포초등학교 5학년



사랑해요,
고마워요
군인 아저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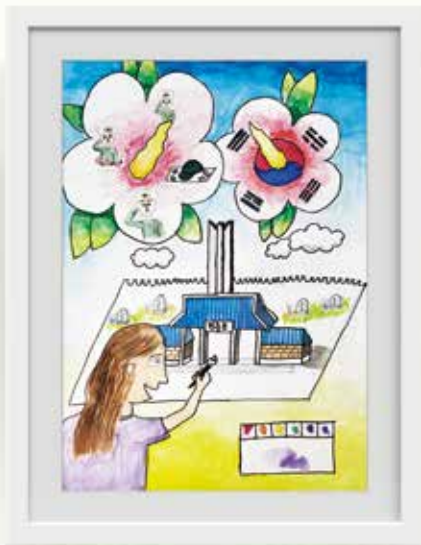
신은성

용인시 대청초등학교 2학년



가작

국립서울현충원장상

지금도 다름없는
나라사랑최유진
인천한빛초등학교 6학년무궁화에 물든
영웅같은 군인들김윤아
서울신상도초등학교 4학년

가작

국립서울현충원장상



엄마와 아들

이선영
남양주시
부평초등학교 6학년

현충원의 모습

이재경
서울흑석초등학교 6학년



가작

국립서울현충원장상



현충원에서 느낀
나라사랑

이소유

김포시 운유초등학교 1학년



아름다운
우리나라

김시연

평택시 세교초등학교 3학년



가작

국립서울현충원장상



태극기와 현충일

이하은

파주시 가온초등학교 1학년



태극기 펴력이는
현충원

김민지

서울보라매초등학교 6학년





가작

국립서울현충원장상



꽃과 함께
쉬세요



김시아

화성시 다원초등학교 1학년



희생하신 분들의
의지를 이어받아



김채현

화성시 새솔초등학교 6학년



가작

국립서울현충원장상



평화와 화합



노윤서

서울신상도초등학교 4학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정해린

청주시 사천초등학교 1학년



가작

국립서울현충원장상



사랑해요
세종대왕님



박지우

서울서일초등학교 1학년



우리나라에 영웅



김승원

서울강남초등학교 5학년



가작

국립서울현충원장상



현충원과
나라사랑



김서진

서울창림초등학교 1학년



나라 사랑



박소연

서울창림초등학교 4학년



가작

국립서울현충원장상



현충원을
사랑하는 유관순



유재은
서울녹번초등학교 3학년



내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김하나
서울창림초등학교 1학년



가작

국립서울현충원장상



평화로운
대한민국,
행복한 우리



임진우
서울성산초등학교 2학년



조각상 속 평화



김가인
서울서래초등학교 5학년



최우수상

국방부장관상



열쑤! 나라 사랑 축제



박수빈

신동중학교 3학년



우수상

국립서울현충원장상



그들의 희생,
태극기로 남고
무궁화로
피어난다



조규은

선화예중학교 1학년



코(리아 korea)
벤저스



박하랑

수원시 율현중학교 1학년



특별상

서울특별시교육감상
경기도교육감상



나라를 위해

김규연
성덕여자중학교 3학년



충훈승천상

성연우
시흥시 응곡중학교 1학년



특별상

한국미술협회이사장상
육군참모총장



자유와
평화를 향해

김나영
성남시 송림중학교 2학년



그들의
충성 덕분에

박진아
성남시 송림중학교 2학년



특별상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상



덕분에

한승연

남양주시 진건중학교 3학년



현충관

황현서

서울시 연천중학교 3학년



특별상

해병대사령관상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신봄

고양시 백마중학교 1학년





장려상

국립서울현충원장상



태극기를 쓰고

김채린



성남시 운중중학교 1학년



승고한
애국정신으로
그리는 밝은 미래

이서진



시흥시 배곧중학교 2학년



장려상

국립서울현충원장상



화양연화

김보민



선화예술중학교 2학년



가작

국립서울현충원장상



호국의 얼과
종소리,
무궁화와 함께
피어나리~

송다연

충암중학교 3학년



충혼승천상

이성은

영등포중학교 3학년



가작

국립서울현충원장상



아름다운
나의 나라

이수아

선화예술중학교 2학년



잊지 못하는 것

채예림

한영중학교 3학년





제31회 국립서울현충원 호국문예백일장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

서울특별시교육감상

경기도교육감상

인천광역시교육감상

한국문인협회이사장상

육군참모총장상

해군참모총장상

공군참모총장상

해병대사령관상

장려상

가작



호국문예백일장 심사평

심사위원 한국미술협회

김정임, 공순애, 김성달, 채종인

초등부

많은 수의 초등부 백일장 응모작이 현충원에 잠들어 계신 순국선열, 호국영령들을 향한 애뜻한 마음을 담고 있었다. 아이들의 순진무구하면서도 진솔한 글을 통해 호국문예백일장 대회가 지니는 의미를 곱씹을 수 있었다. 주제에서 벗어나거나 연령에 걸맞지 않은 글은 우선 심사 대상에서 배제했으며, 초등학생의 눈높이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비통함과 존경심을 참신하게 표현한 작품을 입상작으로 선정했다.

중학부

막연하게 설명적으로 써 내려간 응모작들이 있는가 하면 주제를 명확히 따라가며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진솔하게 써 내려간 작품들도 있었지만 주제를 그다지 벗어나지 않은 내용의 글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 희생한 호국영령들에 대한 존경과 추모하는 마음은 모두 한결 같아 대견하고 기뻐다. 그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학생들의 단단한 결의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심사위원들은 문장의 정확성과 섬세한 감정의 표현을 심사의 기준으로 삼았다. 모두 현장 체험을 통해, 열심히 공들여 쓴 흔적이 역력해서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았다.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응모자 모두에게 격려의 인사를 전한다.

고등부

청소년기의 글쓰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자기 자신이나 주변의 얘기를 진솔하게 표현하면 훌륭한 문학이 될 수 있다. 이번 호국문예백일장에 참가한 고등학생들의 작품 수준은 편차가 심했다. 왜 백일장에 나왔을까, 의문이 들 정도로 성의와 열의가 부족한 작품이 있는가 하면, 심사위원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수준 높은 작품도 여럿 있었다. 심사위원은 이런 작품을 놓치지 않기 위해 두 눈을 부릅뜨고 심사에 임했다. 수상한 분들에게는 축하를 보내고 선에 들지 못한 분들에게는 위로를 보낸다.

일반부

현충원 호국문예백일장은 비교적 일정한 수준에 이른 작품들이 많이 응모되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 및 순국선열을 향한 고마운 마음과 후손들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라를 지켜준 그분들을 기억하며 서술한 글들이 인상적이었다. 호국영령과 순국선열,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면서 그분들의 가족이나 후손들의 사연을 담은 글들도 가슴에 와닿았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은 그분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라는 주제를 일관성 있게 서술하면서 정확한 언어로 진솔한 마음을 담은 작품에 점수를 주었다.

제31회 호국문예백일장 대회 수상자

최우수상

초	등	부	그리운 마음을 담아	이근원 동수원초등학교 4학년
중	등	부	현충원에서 나라 사랑을 품다	산석주 이천시 증포중학교 3학년
고	등	부	단단한 미래	이서현 고양예술고등학교 2학년
일	반	부	그대의 눈에 어린 나 - 안경신 의사께 올리는 편지 -	이수진 서울시 영등포구

우수상

초	등	부	중조할아버지, 이제 우리가 지킬게요!	박채원 서울관악초등학교 6학년
초	등	부	현충원에서	임윤재 안양시 회성초등학교 5학년
중	등	부	몇 만의 피와 땀인가	윤기연 부천시 부일중학교 3학년
중	등	부	별보다 아름다운 혼이여	박주혁 김음중학교 2학년
고	등	부	영원의 마음	박영주 고양예술고등학교 3학년
고	등	부	영웅의 길	황예원 한가람고등학교 2학년
일	반	부	빛이 빛으로	강은옥 경기도 용인시
일	반	부	기억의 轉移(전이)	윤선업 경기도 과천시

특별상

서울시교육감상	자유를 빌며	김세은 서울신상초등학교 4학년
서울시교육감상	집에 돌아오지 못하신 아빠께	최지유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4학년
서울시교육감상	기차길 옆의 독립운동가의 집	김단우 신서중학교 2학년
경기도교육감상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황예린 화성시 화원초등학교 6학년
경기도교육감상	전환점	심새은 안산시 하나대안학교 3학년
경기도교육감상	탄내	강유미 평촌고등학교 3학년
인천시교육감상	태극기가 자랑스러운 날	박예랑 인천시 갑룡초등학교 5학년
인천시교육감상	하늘을 날았던 당신께	한수지 강화여자고등학교 2학년
한국문인협회이사장상	5월, 현충원의 봄날	천예원 성남시 위례푸른초등학교 3학년
한국문인협회이사장상	현충원에서	박예주 등원중학교 2학년
한국문인협회이사장상	당신과 저의 7월	정서희 고양예술고등학교 3학년
한국문인협회이사장상	이름 모를 누군가에게	박도현 경기도 부천시
육군참모총장상	전사 통지서와 함께 온 아버지의 편지	도하연 서울도성초등학교 4학년
육군참모총장상	모지가 아닌 "현충원"	조현우 목동중학교 3학년
육군참모총장상	임춘수 소령을 만나며	김단비 신서고등학교 3학년
해군참모총장상	그리운 외할아버지께	박소연 서울강남초등학교 5학년
해군참모총장상	당연함을 지키는 법	백서윤 용인시 대지중학교 1학년
해군참모총장상	기다림	석시은 광명여자고등학교 3학년
공군참모총장상	현충일, 잊지 않겠습니다	정연하 인천가현초등학교 4학년
공군참모총장상	걱정말아요 그대	김규리 은성중학교 2학년
공군참모총장상	묘목	고은결 안양예술고등학교 3학년
해병대사령관상	하늘에 계신 김만술 대위님께	김유안 서울시 성동초등학교 2학년

해병대사령관상 무심히 잠든 순국의 영령들이 꽃피며
해병대사령관상 함께

김상훈 용인중학교 3학년
홍세림 고양예술고등학교 3학년

장려상

초	등	부	현충원의 살아있는 역사	이예환 인천청라초등학교 5학년
초	등	부	현충원에서	김나경 서울연은초등학교 6학년
초	등	부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신소을 용인시 대청초등학교 3학년
초	등	부	나라를 지키신 분들을 생각하며	강서준 서울일원초등학교 3학년
중	등	부	두고 온 꿈	김준휘 시흥시 송운중학교 3학년
중	등	부	현충원, 그곳에 잠든 고결한 희생을 되돌아보며	김나경 목동중학교 3학년
중	등	부	도달한 미래	황서정 정신여자중학교 3학년
고	등	부	가을 속의 현충원	오민지 양주시 옥정고등학교 3학년
고	등	부	여름 현충원	이예진 고양예술고등학교 3학년
고	등	부	시들지 않을 꽃, 타오를 불꽃	정서현 평촌고등학교 3학년
고	등	부	비밀은 묻히고	김선정 고양예술고등학교 1학년
일	반	부	난 돌맹이가 좋아!	이정아 서울시 도봉구
			- 돌맹이에 깃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 -	
일	반	부	두 번째 할아버지	류지윤 대구시 수성구
일	반	부	50년 전의 독립묘지	유수진 경기도 광주시

가작

초	등	부	마음이 경건해지는 곳, 현충원	이소연 수원시 다솔초등학교 5학년
초	등	부	희생을 기리자, 현충원	김시훈 화성시 아인초등학교 5학년
초	등	부	자랑스러운 국가 유공자	강동우 김포시 유현초등학교 5학년
초	등	부	현충원, 편안하게 숨 쉬는 곳	김승하 서울시 동북초등학교 6학년
초	등	부	6·25 전쟁에서 싸워주신 분들께	함소는 고양시 오마초등학교 4학년
초	등	부	새로운 깨달음과 나의 다짐	온서는 서울연주초등학교 4학년
초	등	부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김민채 의왕초등학교 5학년
중	등	부	발자국	이유빈 경기 광주시 신현중학교 2학년
중	등	부	나는 애국자인가?	이주형 안산시 하나대안학교 3학년
중	등	부	현충원과 첫 만남	조아란 안원동중학교 2학년
고	등	부	깊은 마음 속	정준호 한일고등학교 3학년
고	등	부	등지	김민지 고양예술고등학교 3학년
고	등	부	기억 한다는 것	홍성철 대일고등학교 1학년
고	등	부	현충원의 꽃	이한결 선일여자고등학교 3학년
고	등	부	부서지는 햇살 아래, 이회영 선생님께	강지민 고양예술고등학교 3학년
고	등	부	사랑의 증거	류지윤 서울방송고등학교 3학년
고	등	부	그 꽃은 시들지 않았다	한다는 한강미디어고등학교 2학년
고	등	부	현충원의 사람들	최하은 해곡여자고등학교 3학년
고	등	부	전시관을 돌아보며	노강희 충북여자고등학교 3학년
일	반	부	피눈물을 열의로 보답하는 마음을 담아	이송현 경기도 의정부시
일	반	부	(나에게 있어) 현충원의 의미	최종희 서울시 서초구
일	반	부	현충원 비둘기	김수철 경기도 고양시
일	반	부	꿈 꾸던 6월의 현충원	정혜령 서울시 동대문구
일	반	부	서간도의 할머니, 그리움을 딛고	이현정 서울시 양천구



최우수상

국방부장관상

그리운 마음을 담아



이근원 동수원초등학교 4학년

안녕하세요. 증조외할아버지? 저 근원이입니다.

6월이 되면 제 마음이 돌을 얹은 것처럼 무거워집니다. 증조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6·25전쟁이 일어난 달이 바로 6월이기 때문입니다.

그 치열한 전투에서 목숨을 지키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증조외할아버지께서도 그것을 아셨겠지요. 그것을 아셨는데도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현충원에 오면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몰려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도 들고 아까운 목숨을 잃은 분들의 위패를 보면 슬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계속 그 참사를 슬퍼하기만 한다면 그 참사는 언제든지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것어요. 그 참사를 통해 배우고, 그 지식으로 그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의 할 일이라는 것도 저는 압니다. 역사를 통해 배우고 그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요.

안타까운 것을 꿈으라면 할아버지의 시신을 찾을 수 없다는 것, 또 할아버지의 유품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할아버지의 유품이 하나라도 있다면

할아버지를 뵙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계속 슬퍼하기만 한다면 다시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증조외할아버지의 유품을 찾을 수 없지만 증조외할아버지의 호국정신은 느낄 수 있기에, 안타까워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그림고 보고 싶은 증조외할아버지, 증조외할아버지를 뵈려면 꿈에서나 볼 수 있겠지요? 하지만 간절하게 만나고 싶다고 빌면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믿겠습니다.

증조외할아버지와 다른 분들의 희생. 그 희생이 있어 우리나라가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더이상 이 땅에 전쟁이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뵙겠습니다.

한 여름 밤의 꿈에서 뵙겠습니다.





최우수상

국방부장관상

현충원에서 나라 사랑을 품다



신석주 이천시 증포중학교 3학년

늘 뉴스에서만 보고 영화에서만 보던 국립서울현충원에 왔다. 집에서 1시간 정도 걸렸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호국영령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희생 정신이 더 존경스럽고 위대해서인지 그 1시간은 아깝지 않았다. 가히 영광스러운 순간이었다. 백일장 대회 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올 정도로 의미가 커 입구에서부터 차가 뻥뻥했다. 게다가 입구만으로도 호국영령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창립탄우가 저절로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지고 고스란히 내 마음속 한 칸에 전해졌다.

이제 현충원의 함인가보다. 더 알고 싶었다. 이대로 가기는 아쉽고 이번 기회에 살아 숨 쉬고 있는 현충원의 숨결을 탐구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호국전시관에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갔다. 들어가 보니 호국 영웅분들의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었다. 모두가 한 번 뿐인 목숨과 함께 오로지 조국을 위해 전부를 걸었다는 것. 난 왜 이 사실을 이제야 안 것일까? 그동안 그 당시에는 그게 마땅한 줄 알았다. 부끄럽게도 내가 그때 살았다면 6·25전쟁과 항일 전쟁 등 내가 살 수만 있는 것을 으름으로 여기고 몰래 피하고만 있을 것 같았다. 더 비극적으로 보면 이리

저리 치이고 벼랑 끝에 있는 느낌으로 그저 그런 역사에 남을 수도 없는 만신창이로만 여겨질 것 같았다.

그런데 이 영웅분들은 매분 매초 매 순간 적군들과 사투를 벌이시고 총과 칼로 저항을 했던 모습을 생각하니 자연스레 경건해지고 이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평화를 이루어 더없이 뭉클했다. 이름을 모르는 호국 영웅들도 있었지만, 이것만은 분명하다. 그들의 칼은 꺾인 칼이 아니고 열정과 의욕이 하나하나 만들어낸 꽃꽂하고 굳세고 울창하고 비장하고 엄장하고 씩씩하고 우렁찬 칼이란 것을. 그 이름을 잘 모르는 용사들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든 기억될 것이다.

이윽고 호국영령들이 안장되어 있는 묘역에 갔다. 묘역에 가보니 모든 호국영령들이 안장되어 있어서 그런지 숙연해지고 입이 다물어지게 되었다. 묘비에 있는 묘비명들을 보면 눈시울이 붉어지는 건 단지 애국심뿐만이 아니다. 애국심 이외에도 그들의 젊은 시절을 갖가지 전투로 불살랐던 점도 내 눈시울에 큰 역할을 했던 것 같다. 젊음을 희생하는 건 참 힘든 일이다. 젊은 나이에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그런데 이 영웅들의 젊음은 결이 다르다. 계속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영웅들은 조국을 위해 찬란한 젊음을 바쳤기 때문이다.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좀 외람된 말이지만 묘역에 안장되어 있는 호국영령들의 후손들은 풍요롭게 잘 살고 계시는지. 어디선가 독립유공자들의 후손은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그래도 다행히 현충원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안심이지만 다른 기관에서 물론 꾸준히 잘 신경 쓰고 계시겠지만 그러지 못한 기관들은 독립유공자들의 후손들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괜한 걱정과 쓸데없는 오지랖이라면 정말 정말 죄송하다.

이쯤에서 글을 마무리하고 싶다. 더 둘러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안 되어 못 본 곳이 많은 것이 아쉬웠다. 그래도 여기에 와서 호국전시관 그리고 묘역을 둘러본 것만이라도 좋은 과일을 바구니에 담은 듯한 풍성한 뿌듯함이 들었다.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럽다. 뉴스에서나 영화에서나 보던 현충원을 실제로 내 두 눈으로 보게 되어 꿈을 꾸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내가 처음으로 호국 문에 백일장에 나간 걸 보면 결코 꿈은 아닐 것이다. 호국 영령들의 기운이 느껴지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진짜 진짜 끝으로 명언 같은 말을 남기고 싶다. 그런데 난 그런 재주가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글 모두 한 땀 한 땀 진심을 담아 쓴 것이다. 그러므로 마무리 말 역시 진심을 담아 솔직하고 진솔하게 써야겠다. “여기는 여러 가지 전투를 하고 순직하신 분들을 안장하고 명예롭게 기리고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글을 쓰면서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군요. 나도 이들처럼 무엇 하나에 내 전부를 바친 적이 있는 지,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다짐했습니다. 내 손짓이 역사책의 한쪽이 되고 내 발걸음이 역사책의 한 장이 되자구요.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럼에도 전 성실하게 공부하고 익히고 배우겠습니다. 결국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나라를 위해 뛰어 어른이 되면 멋진 남성으로 성장하겠습니다. 끝끝내 역사책의 한 장을 꼭 채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중한 경험을 선뜻 제공해준 국립서울현충원 이외에 모두에게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최우수상

국방부장관상

단단한 미래



이서현 고양예술고등학교 2학년

난생처음 와본 국립서울현충원. 투명한 태양빛이 머리 위로 떨어지고 두 귀에 맴도는 작은 새들의 노랫말. 무얼 노래하는 것일까. 무얼 기억하고 있을까. 저들은 모두 보았겠지. 하늘 위에서 비행하며 호국 영령들의 넋을 묵묵히 들어주었겠지.

그 중 우리 외할아버지도 있었을까. 폭 꺼진 광대에 진 그림자가 또 다른 눈 같아 늘 깊은 눈으로 배 속의 날 바라봤다던 외할아버지. 누구보다도 먼저 엄마의 임신을 축하했다는 외할아버지. 아무런 대가 없이 날 기다려 준 최초의 인물. 정작 내가 세상의 숨결을 들이마시기도 전에 떠난 사람. 국립서울현충원을 돌아다녀도 한 번 더 떠오르는 것은 외할아버지이기에 오늘은 그분에 대해 쓰고자 한다. 부디 이 글이 이곳에서 멈추지 않고 외할아버지에게, 더 나아가 이 세상 모든 호국 영령들께 전해지도록 튼튼한 두 발이 생겼으면 좋겠다.

나의 외할아버지는 6·25 참전용사이다. 사진으로 본 외할아버지는 앙상한 겨울철 나무처럼 지나가는 바람의 날갯짓 한 번에도 휘청거릴 듯 해 보였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전쟁터에 나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돌아오겠다던 약속을 지킨 할아버지는 이가 없었다. 북한군이 쏜 총알이 입을 뚫고 지나갔기 때문이었다. 가끔 전쟁터 바닥에 흠뻑 젖었을 외할아버지의 이를 생각하곤 한다.

여기저기 썩고 누런 이들은 지금쯤 구멍이 생겨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을 것이다.

그후 외할아버지는 두부만 먹었다. 두부부침, 두부죽 잇몸은 점점 내려앉고 허물어져 가지만 꼭꼭 씹어삼켰을 두부들. 영양이 충분하지 않아 자꾸 말라가는 외할아버지는 그럼에도 결코 물렁해지지 않았다. 두부만 먹어도 내면은 점점 돌처럼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세월 보기를 돌같이 해도 세월이 돌처럼 딱딱해져 어느 순간 멈춰버리는 것은 아니다.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흐르고 세상사 예외란 건 없는 법이다.

외할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 일 년 전 돌아가셨다. 폐렴으로 매일 기침하시면서도 끈을 꼬아 나를 위한 짚신을 만들어두셨다. 아직도 그 짚신은 우리집 현관 신발장 위에 자리잡고 있다. 나는 아직도 그 짚신을 어루만진다. 이젠 너무 커버려 맞지 않지만 그 짚신을 어루만지면 끈을 타고 그 시절 외할아버지가 무슨 마음으로 꼬았을지, 그 마음에 살짝 다녀온 느낌이다. 그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날은 아마 오지 않을 것이다. 시대가 변했고 그 마음을 누가 감히 이해하리. 가끔은 상대방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만이 위로는 아니다. 이렇게 옆에서 살살 어루만지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이후 외할아버지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현충원에 묻혔다. 처음 본 외할아버지의 묘는 뭔가 이상했던 기억이 난다. 모두 다 똑같은 크기, 모양의 비석들이 줄지어 가득한 곳. 내 허리보다 낮을 듯하던 비석에 새겨진 익숙한 글자. 차가워 보이기만 하던 그 비석이 처음엔 마음에 들지 않았었다. 절을 하고 마지막으로 또 오겠다는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는데 어디선가 큰 바람이 불어왔다. 그 순간, 주변에 나 있던 풀들과 나무, 꽃들이 고개숙여 납작해졌다. 그 모습이 마치 와줘서 고맙다고, 다음에도 잊지 말고 또 보자고 내게 인사를 건네는 것 같았다. 그 뒤로부터 나는 더 이상 현충원이 차가운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

외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 희생한 모든 분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이다. 그것이 올바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아주 당연한 것이라는 점이기 때문이다. 도와준 사람을 기억하고 후에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가 나타나면 기꺼이 돕는 것, 이것이 사람된 도리이고

올바른 사회의 선순환이다.

마지막으로, 호국영령분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야 할 것이다. 미래는 아무나 바꿀 수 없지만 누구나 바꿀만한 힘을 타고난다. 그 힘을 어디에 쓸지는 본인의 선택인 것이다.

보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호국 영령의 뒤를 이어 나도 조금씩이나 나라에 도움이 되고 싶다. 그날까지 글 쓰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고 내 속엔 외할아버지를 비롯한 호국 영령분들이 단단하게 박혀있을 테니까, 미래가 두렵지 않다.





최우수상

국방부장관상

그대의 눈에 어린 나 - 안경신 의사께 올리는 편지 -



이수진 서울시 영등포구

선생님, 잘 계셨습니까.

“아이에게 독립된 나라를 선물해주고 싶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지요? 1920년 8월 3일 밤, 만 32세 임신부의 몸으로 폭탄 거사를 위해 적진에 뛰어드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독립된 나라를 선물 받은 아이는 비단 선생님의 자제뿐만이 아니라, 2022년 봄 이곳 현충원에서 숨쉬고 있는 저이기도 합니다. 당시 뱃속에 품으셨던 아이는 한 아이가 아닌 온 나라였음을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모든 생애가 아직 채 다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아는 짙막한 이야기 속에서 선생님께 배울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 첫째는 단연 용맹함이겠지요. 3·1운동 이후, 일제 침략자에 대항하여 그들을 철수시키기 위해서 더 이상 외교적, 평화적 수단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선생님께서는 무력적 응징의 중요성을 역설하시며 대한광복군 총영에 가담, 일본 경찰을 총살하신 뒤 평남도청에 폭탄을 던지셨습니다. 이후 조선

출신의 일제강점기 여성 최초로 사형선고를 받으셨음에도 아랑곳없이, 벽력과 같은 큰 소리로 재판장에게 불호령을 내리셨다는 일화는 정말이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생님의 현명함을 본받고 싶습니다. 1919년 대한애국부인회 평양본부의 교통부원으로서 약 2,400여원의 군자금을 모아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조달하셨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1억 3천만원이 훌쩍 넘는 가치인데, 철저하고 똑똑하지 않으면 이를 수 없는 성과였을 겁니다. 또한, 폭탄 거사의 일정도 일부러 1920년 7~8월 미국 의원 시찰단 방문에 맞추어, 단순히 일본을 겨냥한 저항을 넘어서 국제 여론을 향한 대한 독립의 절실함 호소를 꾀하셨다는 점도 경이롭기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 마음속에 가득했던 사랑을 배우고 싶습니다. 폭탄 투척 직전에 일제의 삼엄한 경계 앞에서, 선생님께서는 임신한 자신의 모습이 의심을 덜 살 것이라며 동료들 대신 위험에 뛰어드셨습니다. 이러한 희생의 기저에는 분명 동지들에 대한 애정이 자리잡고 있었겠지요. 동지들도 이러한 마음 씬씀이에 감동하여 선생님의 항소 과정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감형과 무죄 방면을 주장하신 것이 아닐까요?

이처럼 선생님의 살아생전의 시간은 온통 대담함과 높은 통찰력, 따뜻한 마음과 헌신으로 가득했습니다. 그토록 젊은 나이에 무자비한 고문과 오랜 옥중 생활을 견디시어 생을 마치신 오늘날에도, 저희에게 빛나는 귀감이 되고 계십니다.

선생님, 저는 올해로 25살이 됩니다. 보시기에 제가 어때 보이시나요? 한 해 한 해 갈수록 선생님의 초상화에 저를 투영해보게 됩니다. 저의 눈에 비친 저는 아직 겁이 많고 두려운 것이 많습니다. 침략자에 맞서 투탄, 사살을 논하기에는 충분히 강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꿈을 뒤로하고 불구덩이로 몸을 던지기에는 잃을 것이 너무 많다고 느껴집니다. 저의 눈에도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 선생님의 지켜보시는 눈에는 얼마나 모자랄지 마냥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한 대학에서 국제관계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저의 공부의 근간은 조국을 지키고, 어렵게 얻은 선생님의 선물인 ‘독립’의 가치를 세계로 조화롭게 전달함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겠습니다.

선생님과 뜻을 함께 하셨던 오동진 선생님의 ‘나는 세계평화를 완성하기 위하여 조선독립군 사령관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뿔속 깊이 새기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겠습니다. 3·1절마다 태극기를 달면서, 제대로 된 사진이 없어 흐릿한 초상으로만 남은 선생님의 얼굴을 보면서 말입니다. 옥고를 다 치르신 후 돌아가신 연도도 알 수 없게 종적을 감추셨던, 그 쓸쓸하고 서러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면서 말입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두 눈에 어리는 제가 더이상 어리고 미흡하지 않게, 선물 해주신 독립된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가 땀 흘려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본질이 애국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2022년 5월 21일
이수진 배상



우수상

국립서울현충원장상

증조할아버지, 이제 우리가 지킬게요!



박채원 서울관악초등학교 6학년

증조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 채원이에요.

현충원에 와서 6·25 때 돌아가신 군인들의 묘비를 보다가 국립산청호국원에 계신 증조할아버지 생각이 나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비록 한 번도 뵈지는 없지만 아빠가 증조할아버지 얘기를 많이 들려주셨어요. 증조할아버지 댁에 가면 늘 다정히 대해주셨다고요. 저는 6·25전쟁에 나가신 증조할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제가 용산 전쟁기념관에 갔을 때 6·25전쟁실에 참전용사 유골이 있었어요. 유골과 함께 지갑이 있었는데 그 지갑 속에 가족사진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서로 안전하길 바라면서 전쟁 길에 오르는 마음은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 같아요.

6·25전쟁에서 헤어져 만나지 못해 몇십 년 만에 다시 상봉하는 것을 종종 뉴스에서 보곤 해요. 우리는 전쟁의 참혹함을 잘 알아요. 증조할아버지를 비롯한 호국장병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모두를 위해, 자랑스러운 조국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신 거잖아요.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우신 증조할아버지를 포함한 호국장병들이 있었기에 우리의 평범하고, 편리한 이 일상 그리고 나 자신 까지 즉,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 있었던 거 같아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기억하라,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라는 말들이 있잖아요. 이 말들은 바로 우리가 현충일을 단순한 공휴일로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거 같아요. 증조할아버지를 포함한 호국장병님들을 위해서 진중한 묵념과 추모로 감사함을 표현해야겠어요.

또, 현충일이란 오늘의 우리가 있게 만들어 주신 호국장병님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날이라고 알릴게요. 우리는 더욱 애국심을 가지고 증조할아버지가 지키시려고 하신 자랑스러운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제 우리가 지킬게요!

-채원 올림-



우수상

국립서울현충원장상

현충원에서



임윤재 안양시 희성초등학교 5학년

오늘은 할아버지와 훌륭한 분들이 계시는 현충원에 갔다.

나는 가끔 할아버지를 뵈러 온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존경스럽다.

초록색이 가득한 풍경들이 나한테 인사하는 것 같다. 나도 인사를 한다.

초록색 나뭇잎들 사이 꽃들이 둥둥 떠 있는 연못이 있다. 나는 꽃들에게도 인사를 한다. 오늘 인사를 많이 하는 것 같다.

나라를 위해 싸우신 멋진 분들 중 할아버지께서 계시는 게 자랑스롭다. 나도 커서 할아버지 같은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

“나라를 위해 싸우신 분들 감사합니다.”

요즘은 아파트가 많아서 자연이 거의 없는데 여기는 자연을 느낄 수 있어서 좋다. 우리 할아버지께서도 같이 보면 좋았을 텐데 아쉽고 보고 싶다.

하지만 할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마음속에 계신다.

여기 있는 풍경이 아름답고 평화롭다. 여기서 글을 쓰고 있는 내가 기분이 좋아 ‘하하하’ 웃는다. 덩달아 사촌들도 ‘하하하’ 웃는다.

이 글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느낌, 그리고 생각을 나타내는 나만의 글이다.

나뭇잎들이 살랑살랑 거리며 바람을 불어준다. ‘고마워 나뭇잎들아!’ 코로나가 없어지는 그 날까지 모두 힘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기분이 좋은지 웃는다.

오늘은 웃는 날인가 보다.

“나라를 위해 싸우고 희생하신 분들과 우리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게 해 준 우리 가족 모두 감사하고 사랑해요.”



우수상

국립서울현충원장상

몇 만의 피와 땀인가



윤가연 부천시 부일중학교 3학년

학교에선 늘 어떠한 대회가 개최될 때 학생들에게 안내를 해 준다. 이번 역시 마찬가지이다. 학교에선 호국문에 대회가 개최된다는 안내를 내려줬고, 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국립서울현충원에 온 나는 머릿속에 온통 글짓기 걱정만 가득할 뿐이었다. 내가 입상자가 될 수 있을까? 글짓기는 어떻게 해야 잘 쓴 글이라는 평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 그러나 막상 현충원에 도착하여 대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현충원 내부를 둘러보고 다녀보자, 걱정은 사라지고 다른 생각들이 내 머릿속과 마음속을 깊고 가득하게 채워버렸다.

우선 국립서울현충원은 국가나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영령들께서 안장되어 있는 묘지이다. 그러한 곳인 만큼 수많은 묘지가 존재했다. 모든 비석에는 어느 지역에서 전사, 순직하셨는지 쓰여 있었다. 서울, 병원, 끝도 없이 펼쳐진 묘지들을 보자 순간 눈앞이 아찔해졌다. 이곳에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이 묻어져 있는 것일까. 나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끝은 아니었다. 수많은 유공자 분들의 성함이 적힌 비석을 보자 가슴속 깊은 곳에서 낯선 감정이 느껴졌다. 감사라는 말만으로는 다 하기 어려운 이상하리만큼 복잡한 감정이었다. 나 자신이 조금은 부끄럽기도 한 상태로 이름 한 자 한 자를 눈에 담았다.

현실감이 훅 느껴졌다. 늘 감사한 마음은 있어도 솔직히 말해 전쟁은 너무 옛날의 이야기로 느껴졌었다. 그래서 유공자님들의 숭고한 희생에 관하여 깊게 생각해보지 못했었다. 하지만 이렇게 두 눈으로 흔적을 보고 있자니, 느껴진다. 우리가 얼마나 큰 용기 덕분에 살아서, 감사를 가지고 존재해야 하는지를 말이다.

나는 평소 세 가지의 미덕을 이렇게 정의해왔다. ‘감사’는 관계를 이루고, ‘성실’은 나를 이루며, ‘양심’은 세상을 이룬다. 이 세 가지 미덕에 하나를 더하자면 ‘용기’를 더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렇게 정의하겠다. ‘용기’는 미래를 이룬다. 우리는 그 시절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에 의하여 이뤄져 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는 말처럼 우리는 그분들의 정신을 계속하여 상기시키며 이어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우리를 이룬 피와 땀은 도대체 몇 만의 피와 땀인가.

나는 오늘 하루가 그저 상을 받기 위하여 대회에 참가한 하루로 남지 않게 되었기에 기쁘다. 오늘 현충원을 둘러보며 내가 살아가며 중시할 미덕인 용기를 얻었고, 내가 어째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인지를 알게 되었으며 앞으로 내가 성장하며 가질 마음가짐까지 깨달았다. 이보다 더 얻은 것이 많은 날을 다시 접할 수 있을지 나는 잘 모르겠다.

나는 현충원에 안장되어 계신 분들과 같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날이 오게 될지 문득 궁금해진다. 그분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자 하는 것이 나의 욕심인가 하였지만, 마냥 나의 욕심 같지만은 않다.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보통 ‘꿈’이라고 부르지 않는가. 혹여 내가 그 정도의 아름다움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나라와 나 자신에게 부끄러운 이가 되지는 않아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나도 미래엔 대우받을 만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며 글을 마무리한다.



우수상

국립서울현충원장상

별보다 아름다운 혼이여



박주혁 길음중학교 2학년

넓게 펼쳐진 검은 하늘
반짝이는 별 하나
지켜보는 이 없는 별이지만
저 하늘을 빛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별이여

별빛이 사라진 도시에서
어둠이 내려앉은 하늘에서
오늘도 고개 들어 그 별을 찾아본다.

넓게 펼쳐진 푸른 잔디
자리를 지키는 비석 하나
기억하는 이 없는 냇이지만
이 땅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으로 웃음 짓는 혼이여

그대들이 희생한 이 땅에서
희생으로 이룩한 평화에서
오늘도 고개 숙여 그 이름을 기억한다.

총탄으로 뒤덮인 그곳에서
조용히 타오르던 조국의 불꽃
그대의 열기는 가치 있었고
그대들의 빛은 아름다웠습니까
불꽃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나의 열기에 누군가의 아픔이 녹았다.
나의 빛으로 누군가의 평화를 비쳤다.
그걸로 된 것이다.
그저 그거면 된 것이다.”



우수상

국립서울현충원장상

영원의 마음



박영주 고양예술고등학교 3학년

지하철 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무성한 나무들로 하여금 푸르렀다. 다리 아래로 흐르는 계곡에서 발을 담그고 노는 사람들도 보였다. 강하지 않은 햇볕 속, 평화로운 주말 오전의 풍경은 지하철 뒤로 빠르게 밀려났다.

국가를 위해 투쟁하셨던 순국선열들의 묘비가 안장되어 있는 곳, 현충원. 역사 바깥으로 나오자마자 보이는 현충원 내의 지붕들을 보며 나는 새삼 어떠한 사실을 체감했다. 다른 시대의, 다른 삶을 겪었던 그들에게로 다가서고 있다는 사실. 역사의 단어들이 쓰인 울타리를 지날수록 나는 비로소 내 발바닥에 가해지는 무게를 느꼈다. 이 중력은 순국선열들과 국가유공자, 그들로부터 비롯된 힘이라는 것을.

유품전시관에는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의 역사 속에서 나라를 지켰던 인물들이 차례로 소개되어 있었다. 마음이 이상했다. 글로만 읽었던 그들의 업적이 내 눈앞에 증거로 놓여있었기 때문이다. 독립유공자분들의 이름을 곱씹어 발음하고, 그 이름 아래 적힌 글들을 천천히 읽다 보니 어느새 같이 이곳에 들어왔던 친구들은 저 멀리 다른 전시실로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쉬이 발걸음을 뗄 수 없었다. 그림 속에, 흑백 사진 속에 담긴 결의의 표정들을 어찌 지나칠 수 있겠는가.

중학생 때, '신흥무관학교'라는 이름의 뮤지컬을 본 적이 있었다. 등장인물 중에는 이회영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무대의 2층 계단참에서, 훈련을 하는 병사들의 모습을 아내와 함께 바라보고 있었다. 그를 다시 만난 것은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시험공부를 할 때였다. 그는 한국사 책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나는 자필로 쓰인 그의 어록을 마주했고, 수묵으로 그려진 그의 전신을 마주했다. 그의 유해가 이곳에 안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뮤지컬이나 역사책에서나 보았던 그의 용기와 의지가 와닿았다. 그, 이회영이 내게 실로 가까이 다가온 순간이었다.

나는 유관순 열사의 공간에도 조심스레 들어섰다. 유관순이라는 이름 석 자와 고문으로 부어오른 그녀의 얼굴은 이곳에서 처음으로 마주하는 것이 아니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치며 그녀의 업적을 고루 들어왔었다. 하지만 지금, 이곳 현충원에서 그녀를 마주하는 것은 분명 다른 의의가 있었다. 바로 지금의 내 나이가 그녀가 생을 마감했을 때의 나이와 같다는 것이었다. 서로 다른 시대에서, 그녀와 나는 열아홉이라는 선상에 함께 있었다. 청소년과 성년의 경계에서 그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나는 오래도록 그녀의 사진 앞에 서서 그것을 생각했다. 흑백 사진 속에서도 윤기를 내던 그녀의 눈동자를 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그녀에게 열아홉은 크게 상관 없을 요소였다는 것을. 그녀의 의지는 그녀가 열다섯이었을지라도, 열 살이었을지라도 똑같이 발휘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녀에게 열아홉은 단지, 마음을 주체적인 실행으로 옮겨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을까.

나는 그들의 얼굴과 업적, 유품을 하나하나 훑고선 어느 유리창 앞에 섰다. 그 유리창 안에는 6·25전쟁에 참전하였던 국가유공자분들의 이야기가 있었다. 전쟁통 속에서 그들이 손수 적은 편지와 일기를 나는 오래 들여다보았다. 세로로 쓰여있는 글자들을 읽어내리며 나는 편지를 쓰는 그들의 손을 상상했다.

시선이 가장 오래 머무른 곳은 구원조 일병의 편지들이었다. 그의 편지지들 중 몇은 미국 적십자사에서 빌린 메모지처럼 보였다. 그에게는 광립이라는 아들이, 숙이라는 딸이, 훈이라는 조카가 있는 듯했다. 편지 속에서 그는 적들이 자신의 중화기 소리만 들으면 멀리 달아나, 적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니 걸어본 적이 없다고 말하며 어머니를 안심시켰다. 조금도

걱정 마음소서, 집안단속이나 잘하옵소서, 말하는 그는 오히려 감기에 들지 않게 훈이에게 이불을 꼭 덮어주라고 말했다. 딸 숙이에게는 공부를 열심히 하라며 자신도 이곳에서 영어 공부에 힘을 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편지의 끝에 불초자 원조라 적었다. 따뜻한 말을 건넨 가족이 있던 그는 전쟁이 발발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1950년에 생을 마감했다. 아버지이고 삼촌이었던, 그리고 누군가의 아들이었던 그의 마음을 유품으로 마주하니, 마음 깊은 구석이 아렸다. 국가유공자로 불리는 분들도 ‘국가유공자’라는 이름을 얻기 전엔 개개인의 이름이 있고, 이야기가 있던 분들이라는 사실을 문득 깨달았다.

묘역까지 둘러보고, 말아두었던 자리로 돌아오는 길에 보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잔디밭을 메우고 있었다.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평화로운 주말의 모습에 어울렸다. 조금 전 마주했던 얼굴들이 이러한 주말을, 이리도 평화로운 그들을 만들어준 것이라고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들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우리가 있었다. 그리고 우리의 곁에는 그들이 있었다.



우수상

국립서울현충원장상

영웅의 길



황예원 한가람고등학교 2학년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가 그들의 넋을 달래주고 있었다. 무성한 나무들 사이로 보이는 묘역들과 추모비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함을 떠오르게 했다.

독립유공자묘역 충열대 뒤편에 자리한 무후선열제단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무후는 후손이 없다는 뜻으로, 구한말 때 의병활동 및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순국한 분들 가운데 유해를 찾지 못하고 후손이 없는 선열 134위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는 곳이었다. 중앙에는 제단과 향로가 있었고, 향로 양 옆으로는 순국선열들의 고귀함을 담아낸 듯 활짝 핀 꽃들이 놓여있었다. 후면 벽에 보이는 피리를 불며 승천하는 선녀상이 그려진 입체 벽화가 선열들을 지켜주고 있었다. 좌우에 마련된 3층 계단에는 손바닥 크기의 위패가 가지런히 모셔져 있었다. 하얀색 계단 기둥 안쪽으로는 햇빛이 들지 않아 검정색의 위패가 더욱 검게 보였다. 선열들의 외로움이 드러나는 것 같아 진작 찾아뵙지 않았다는 죄송함에 괜시리 가슴 한 켠이 저릿하게 조여왔다.

위패 앞에 서서 두 손을 모은 채 눈을 감았다. 사랑하는 이가 있었을 것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 있었을 것이고, 받은 만큼 돌려드려야 할 부모님이 있었을 것이고, 곁에 두고 싶은 소중한 누군가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나라를 위해 그 모든 걸 내려놓았을 그들의 심정은 감히 상상하기 어려웠다. 내가 함부로 헤아려도 관촬을지 의심이 들 정도로 가늠할 수 없는 깊이와 고통이 자 용기이자 희망이었다.

그분들의 존함이 새겨진 위패는 목숨과 맞바꾼 자유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되새기게 했다. 헬조선, 자살각, 탈한국 친구들과 일상생활에서 별생각 없이 사용하던 말들이, 선열들의 희생을 더럽히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안일했던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영웅들 앞에서 고개를 들 면목이 없었다.

‘돌보아 드린 이 하나 없고 기억마저 사라져 가므로 존함이나마 정성껏 새겨 따로 이곳에 모시옵나니…….’

헌시비에 적혀 있는 내용 중 일부를 따라 읽었다. 외롭게 온 힘을 다해 싸우고 버텼을 선열들의 울부짖음이 들려오는 듯했다. 집에 돌아가기 전 마지막 인사를 전하기 위해 말문을 열었다. “제가 와서 적적함이 잠시나마 줄어드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금 늦게 왔어요.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계신가요? 선열 분들 덕분에 아이들이, 학생들이, 청년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유롭고 희망 차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어요. 저 또한 자랑스러운 그대들의 후손임을 잊지 않을게요. 부디 그대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혼자가 아님을 평생 잊지 말아 주세요.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선열분들은 저에게 최고의 영웅이에요. 금방 찾아올게요.”

차를 타러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내내 입가에 얇은 미소가 떠올랐다.

현충원 앞 신호등에서 신호가 걸려 차가 멈춰섰다. 평소였다면 기다림에 투덜거렸을 나였지만 왠지 오늘만큼은 신호가 느리게 지나가길 바랐다. 창문 너머 보이는 현충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멈춰있는 이곳이 영웅의 길처럼 느껴졌다. 선열들이 외롭지 않게, 감사하고 반성하는 내 진심이 천천히 닿아 퍼질 때까지 영웅의 길에 남아 있고 싶었다.



우수상

국립서울현충원장상

빛이 빛으로



강은옥 경기도 용인시

“국기에 대한 경례!”

따사로운 봄별이 좋아 빨래를 널어두는 동안 베란다 사이를 틈타고 들리는 마이크 소리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올해 중학에 입학한 딸이 가장 기다려온 체육대회의 날이었다. 한참을 듣다가 나는 화장기없는 얼굴로 아이의 학교로 달려갔다. 이미 많은 엄마들이 아이들과 함께 상기되고 흥분된 목소리로 호흡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다음 순서는 “애국가 제창입니다.” 아이들과 엄마들이 함께 부르는 애국가를 나도 함께 부르며 가슴에 뜨거운 목메임이 마른침을 삼키게 했다. 코로나로 체육대회가 처음이라는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의 씩씩한 애국가 제창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어느새 중학생이 된 딸아이의 성장이 감격스러웠기 때문일까. 나는 주책없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따사로운 봄별에 함께 부르는 애국가, 그리고 멈추지 않는 나의 눈물은 나를 유년시절로의 시간으로 데려가 주었다.

아주 큰 운동장에 모여 조화를 서던 시절 땀별 아래 미간을 찌푸리고 지루한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 속에서 시간이 흐르기만을 바랐던 그 시간들, 그 지루함 속에서도 나는 애국가가 나오면 찡그린 미간이 펴지고 목에서 뜨끈한 것들이 밀려 올라와 그 순간만큼은 온전히 집중하곤 했다. 모범생도 아닌, 애국가도

아닌 내가 애국가의 감성에 취하는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 그런 질문을 나이 마흔이 넘은 지금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 즈음에 아이들의 응원 함성이 들려왔다. 딸아이와 눈 맞춤의 인사와 응원을 전하고 집으로 돌아와 내일 소풍을 위한 김밥 재료를 손질하기 시작했다.

소풍은 엄마를 모시고 두 딸아이를 데리고 현충원으로 떠나는 여정이다. 우리 가족은 6월을 기념하며 가족 모두가 백일장에 참여하기로 한 이벤트를 기획했기 때문이다. 이번 이벤트의 가장 큰 수확은 큰딸아이가 학교에서 들은 소식이라며 “엄마 현충원 가봤어?”라는 질문으로 시작된 그날의 기쁨이다. 나는 대답했다. “한 번도 못 가봤어. 근데 못 가 본게 네 앞에서 부끄럽네. 왜, 가보고 싶어?” 우리의 대화를 듣던 나의 엄마는 “할머니는 할아버지랑 데이트하던 곳인데...” 나는 나의 부끄러움을 숨기고자 농을 친다. “민족과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신 분들의 위대한 숨결 속에서 엄마 아빠는 데이트를 하다니, 너무해.” 엄마가 웃으며 “거기 산책로가 참 좋아. 걷다 보면 좋은 기운이 가득 차오르는 기분이거든.” 우리는 갑자기 현충원이 주제가 되어 한참을 이야기하였고 큰딸이 좋은 소식이라던 주제로 다시 돌아와 사생대회의 참여를 결정하였다.

나는 처음으로 가볼 그곳의 풍경을 상상하는 동안 학교에서 돌아온 둘째 딸아이가 “나는 그림을 그릴래.”로 호응을 더해주어 우리 가족 회의가 좋은 결말을 이루게 해주었다. 돌아가신 아빠와의 데이트를 회상하던 엄마도 부끄러움을 감추시듯 아이들에게 현충원의 의미와 역사 속 영웅들의 영혼과 숨결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며 우리는 할머니의 ‘역사사회수업’을 경청하였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 가족의 소풍 프로젝트가 바로 오늘이다. 멀지 않은 이곳을 그간 아이들을 데리고 한 번도 오지 못했던 미안함과 나의 청춘의 수많은 여행과 나들이 속에서 한 번도 못 가 본 장소였다는 부끄러움을 안고 봄별이 파사로운 오늘 초록의 이곳에 도착하니 멋진 충훈승천상이 우리를 반겨주었다. 영원한 안식처, 삶과 죽음을 초월한 호국영령들의 파스한 집.

나는 엄마와 아이들과 연못 주변의 길을 걸으며 각자가 아는 영웅들을 한 분 한 분 끝말잇기처럼 이어가며 이야기해 보았다. 중학생이 되더니 제법 풍성해진 지식을 동생에게 알려주는 고마움 덕에, 가장 많은 애국자를 알고 계시는 엄마의 설명 덕에 나는 그들 사이로 고개만 끄덕여도 충분한 아침이었다.

다시, 애국가가 나온다. 1절만 부르기로 한 것은 참 다행인 일이다. 나의 주책 없는 울컥거림과 또 터지고 말 눈물을 설명해줄 내 언어의 빈약함을 나는 잘 알기에...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누군가에게는 어머니였을, 누군가의 자식이었고, 누이였으며 동생이었을지 모르는, 모두에게 가족이었을 그분들 덕분에 나는 나의 가족들과 도란도란 모여 앉아 글을 쓸 수 있다.

붓을 든 아이에게 파이팅을 외치며, 신중하게 연습장을 찾는 큰아이에게 응원을 전하며, 한 바퀴 더 돌아보고 글을 쓰시겠다는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 동안 흐르던 그 눈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내놓으신 그분들에게 전하는 나의 감사함이었다는 것을. 아주 작은, 한없이 부족하지만 깊은 고마움이었다는 것을... 나의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다. 묵념을 하는 동안,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으며 내가 얻은 답에 대한 보답은 6월에는 이곳을 찾겠다는 다짐이었다. 가족의 손을 잡고 걷는 동안 나라를 위해 가족을 잃은 다른 가족들의 슬픔을 기억하며 잠시 묵념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은 마음의 빛이 봄별의 찬란한 빛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될 것이다. 오늘 하루의 하늘이 유난히 푸르고 높은 찬란함처럼...





우수상

국립서울현충원장상

기억의 轉移(전이)



윤선엽 경기도 과천시

등나무 사이로 들어오는 별에 이내 부끄럽다. 자애롭게 불어오는 오월의 바람은 오래전 잊혀진 이름 모를 누군가의 기억을 싣고 온다. 지나온 기억은 과거가 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잊혀질 수 밖에 없었던 조각된 시간일 뿐이다. 그렇기에 생(生)을 누리는 모두에게 허락된 지금은 오래전 그날, 스스로의 생의 가치를 조국의 위태에 헌신하고 떠난 고귀한 영혼들의 마지막 숨결로 말미암아 가능했음을 짐작조차 하기 힘들다.

공간은 기억을 지배하고 기억은 시간을 채운다. 셀 수 없이 많은 문헌과 영상 기록물을 통해 조합된 기억의 단편들은 어떤 이의 눈물이 나의 것이 아님에 안도하기도 했던 철없는 시절의 나를 소환하였다. 잊혀지지 않는 목소리였을 것이다. 멈추지 않는 눈물이었을 것이다. 써내려가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였을 것이다.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는 변할 수도, 바뀔 수도, 대체될 수도 없는 유일함이었을 것이다. 그 유일함은 지금의 평범한 다수를 위한 자양분이 되었고 우리는 어느덧 그 시간들을 잊고 살게 되었다.

그때의 그들은 무엇에 응답한 것일까. 세월의 흐름에 함께 나이 들어간 소나무가 내어주는 한 폭 너비의 그림자로 흡족할 삶을 꿈꾸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루 내 인사하는 새들과 쉬지 않고 그들의 자랑스러움을 알리는 동남풍의 태극기만을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영(靈)의 소환(召喚)이 가능하다면, 누군가 물어와 주길 바라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라도 기억해주는 이가 있음에 다행스러움을 안고 잠들지도 모르겠다. 차가운 새벽의 이슬도 함께 자리한 이들과 나눌 수 있어 때로는 행복하지는 않을까 생각하다 절로 머리가 숙여진다.

눈을 감고 가늠조차 되지 않는, 70년도 더 지난 시간들을 힘겹게 떠올리다, 종군기자의 소임을 다하며 기록으로 역사를 되살리셨던 외조부의 암실에서 오래전 마주한 사진 몇 장이 떠올랐다. 앙상하게 남은 가지만을 품은 나무에 기대선 더벅머리의 소년을 담은 흑백의 사진 한 장은 고요하고 참혹했다. 구직의 팻말을 목에 건 고개숙인 청년은 포화의 역사가 남겨준 교훈이 삶의 필연적 흔적일 이유가 전무함을 알려주고 있었다. 가능한 만큼 웅크린 채로 무언가를 집어먹는 전쟁고아는 잠시 나를 멈춰 세웠다. 모든 것이 재가 되어버린 그곳에서 그가 찾은 것은 삶의 희망이었음을. 그래도 그의 삶은 계속됨을 받아들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기억은 기록을 통해 전이된다. 그간의 지난 기억은 조금은 다른 의미로 재해석된다. 산자의 기쁨이 되는 이곳의 무대는 떠난 이가 조국을 위해 반납한 이 생애에서의 삶의 댓가였다. 우리가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을 단 한 가지를 그들이 아낌없이 내어 준 덕이다.

우리의 어깨 위를 스쳐가는 바람과 다리를 비추는 햇빛은 결코 사소함이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가 차지하는 이 공간은 당연함이 되어서는 안된다.

얼을 기리는 것이 생소하다면 구체적 대상이 불특정 다수가 되는 감사함이라도 품고 살아내야 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에게 주어진 보편타당한 소명일 것이다.

그리고 기록해야 한다. 쉽 없이 계속해서 써내려가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전이된 기억을 기록하고 되새기며, 다시 그 기록들을 역사적 유산들을 후세에 전이하는 것이다. 왜곡되지 않은 감정의 진실은 우리가 지나온 역사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고 그렇게 또 오랜 세월 우리와 함께 숨 쉬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땀과 눈물에 고통스러워하지 않기를.

이곳에 흐르는 공기와 바람과 물과 온기는 모두 그들의 꺼진 생(生)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잊지 않기를.



특별상

서울특별시교육감상

자유를 빌며



김세은 서울신상도초등학교 4학년

오늘 이곳에 와서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묘를 보니 설레어 흥분되었던 마음이 조금 차분해졌다. 물론 6·25전쟁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군대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신다는 걸 알았다. 조상님들의 묘 앞에 꽃들이 심어져 있었다. 한 묘에는 ‘아버이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쓰여있는 카네이션이 놓여있었다. 그 카네이션을 보니 조금 슬픈 마음이 들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꽃들이 심어져 있지 않은 묘들도 있었다. 단 한 송이도 없었다. 가족이 없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내가 그분들의 가족이 되어서 꽃을 놔드리고 편안히 주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다. 바닥에 떨어진 꽃을 찾아보다가 한 송이 발견했다. 가까운 묘에 꽃을 뒀는데 그곳에만 두자니 죄송했다. 꽃 없는 묘들이 그렇게 많은데 말이다. 꽃을 꺾을 수도 없고 바닥에 떨어진 꽃이 없어 다른 분들에게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현충원에 오며 라디오에서 ‘천 개의 바람이 되어’라는 노래를 들었는데 엄마께서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났다고 하셨다. 그래서 작게 틀어주셨다. 라디오에서 들었을 때는 슬픈 노래인지 어떤 내용인지 몰랐는데 이번에 자세히 들어보니 정말 슬퍼서 눈물이 날 뻔했다. ‘나는 천 개의 바람 천 개의 바람이 되었죠!’이 가사가 인상 깊다. 이 시원한 수많은 바람들이 조상님들일까? 눈을 감고 감사하며 예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자유를 이제라도 누리시라고 말씀 드려본다.



특별상

서울특별시교육감상

집에 돌아오지 못하신 아빠께



최지유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4학년

아빠, 곧 돌아오신다고 약속하고 떠나신 날부터 엄마와 함께 기다렸어요. 내일은 오실까? 일주일 뒤에는 오실까? 그렇게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전쟁이 모두 끝나고 친구 아빠들은 돌아오셨는데 아빠는 끝내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아빠가 보고 싶을 때마다 꺼내보던 흑백 사진은 내 마음처럼 닳고 닳았어요. 엄마는 울다 지쳐 눈물이 마르고 말을 잃었어요. 수십 년이 흐르고 저 멀리 평창에서 아빠를 찾고 만나는 순간, 말랐던 눈물이 터졌어요. 이제는 차가운 비석을 만지고 파릇한 잔디를 밟으며 아빠를 만나요. 봄이면 꽃을 좋아하시던 아빠가 현충원 가득 핀 꽃들을 보고 좋아하시겠지요. 수양벚꽃이 흐드러지면 따뜻한 눈이 내리는 것 같아 나는 좋아요. 아빠가 좋아하시던 아카시아꽃이 필 때면, 과수원길 노래를 흥얼거리며 아빠를 만나러 옵니다. 아빠의 희생과 나라를 사랑하신 마음을 현충원에 올 때마다 다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아빠, 아빠가 지켜주신 소중한 우리나라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좋은 나라가 되게 노력할게요.

그럼, 다시 만날 때까지 편히 쉬세요. 사랑해요.

아빠의 사랑하는 딸 올림





특별상

서울특별시교육감상

기차길 옆의 독립운동가의 집



김단우 신서중학교 2학년

안동 외갓집 앞에는 기차길이 있다. 이것은 일제 사람들이 만들었고, 우리가 광복한 이후에도 오랜 시간 기차를 운행했다. 기차는 작년부터 더이상 운행하지 않게 되었다. 지금은 복원을 위해 공사를 하고 있다. 기차길이 없어지고, 사랑채에서 보이는 낙동강의 아름다운 물줄기가 엄마의 조상님들의 나라를 잃은 슬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해줬을 것 같다. 초등학교 때 외갓집에 가서 잠을 자다 보면 사나운 기차 소리에 잠을 설치고 무서웠던 기억이 있다. 마치 일제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에게 무섭게 대하던 시절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꼈던 감정이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외가는 엄마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포함하여 11분이 국립묘지에 계신 독립유공자 집안 이시다. 특히, 고조할아버지는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시고 상해 임시정부의 국무령을 하신 석주 이상룡 선생님이시다. 종종 텔레비전에 나와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오래된 사진 속 석주 할아버지는 조금 무섭게 보일 때가 있다. 하지만 그 옛날 험한 곳에서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생활을 하셨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무거워진다. 엄마가 종종 얘기해 주시던 할머니의 서간도 독립운동 이야기는 조금 쓸쓸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다. 엄마의 조상님들처럼 가진 것 모두를 바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다. 엄마는 나에게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창피하지 않은 사람이 되도록 착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다. 국립묘지는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희생하신 분들의 영혼이 쉬는 곳이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잊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다시 위기에 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엄마의 말씀대로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창피하지 않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특별상

경기도교육감상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황예린 화성시 화원초등학교 6학년

현충원을 인터넷에 검색하면 제일 먼저 뜨는 연관 검색어가 맛집이다. 순간 당황스러웠다. 현충원에 안장되어 계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 누구의 이름도 아닌 맛집이라니! 안타까웠다.

현충원에 도착하고 제일 먼저 둘러본 곳이 유품 전시관이었다. 나의 발걸음이 웬지 모르게 경건해졌다. 1층 영상실에서 본 두 분의 순국선열의 남겨진 가족들의 인터뷰 영상은 나의 마음을 슬프게 했다.

6·25 참전 용사인 구원조 님의 아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로부터 받은 편지라며 읽는데 우리 할아버지 연세보다도 많아 보이셨다.

편지를 소중히 간직하며 읽고 또 읽어 종이가 찢어져서 테이프로 붙이고 작성 당시 연필로 쓰셔서 시간이 흘러 글씨가 흐려져 펜으로 덧쓰기를 했다고 한다. 어머니께서 썼다는 편지에는 ‘부디 아무 걱정 하지 마시옵소서 울겨울에는 그 쌀밥을 집에 가서 먹겠지요.’ 자녀들에게는 ‘아버지는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 너희들을 미국에 가서 공부시켜야지. 감기 안 들게 이불 꼭 덮고 자. 이담에 쉬는 곳에서 쓰지.’ 그 험한 전쟁터라는 곳에서도 집에 남겨둔 가족의 걱정과 정성 들여 눌러 쓴 마음이 담긴 글이 나에게까지 전해졌다.

그리고 분명 다시 돌아온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한 약속이 되었고 남겨진 가족들은 계속해서 6·25와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유해 조차 찾지 못했다고 하니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컸다. 나도 현충원에 방문하기 전에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여러 묘비들을 보는 순간 더이상 가벼운 마음일 수 없었다. 인터넷에 현충원을 검색하면 앞으론 맛집이 먼지가 아닌 이곳의 의미,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대해야 하는지가 먼저 검색되길 바란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남겨진 가족들이 더이상 아프지 않게 유해를 빨리 찾길 바란다.

이제 곧 현충일인 6월 6일이 다가오는데 나도 그날만큼은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보낼 것이다.





특별상

경기도교육감상

전환점



심새은 안산시 하나대안학교 3학년

나는 평소에 나라를 위해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사실 그분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 현충일에만 그분들의 희생에 감사했다. 그러나 현충원에 직접 와서 나라를 위해 돌아가신 분들의 묘비가 빼곡히 세워져 있는 것을 보니 과거의 나를 반성하게 되었다.

그 수많은 묘비들을 본 후,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다. 나는 현재 매우 편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나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일상이 사라져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말 감동적인 것은 그분들께서 미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인생과 생명을 바치셨다는 것이다. 그분들도 정말 두려우셨겠지만 애국심 하나만으로 목숨을 바치신 것을 생각하면 눈물이 날 것 같다. 내가 그분들이었다면 너무 무섭고 살고 싶어서 도망쳤을 것이다. 그리고 죽어나가는 동료들을 보며 슬퍼하면서 세상만 탓할 것이다.

또한, 만약 내가 그분들의 가족이었으면 너무 슬퍼서 울고 또 울 것이다. 동시에 그가 자랑스럽고 그의 희생에 고마워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슬프지만 그분들의 희생이 빛을 발하고 있으니 희생하신 분들이 하늘에서 뿌듯해 하시며 미소를 짓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나는 그분들이 희생하신 만큼 열심히 살아야 한다. 그냥 그분들께 감사하기만 할 수는 없다. 내가 이렇게 행복

하고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을 항상 감사하며 그분들의 일상과 행복을 대신 누린다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살 것이다. 역사 영화를 볼 때도 나라를 위해 힘쓰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며 하늘에 계신 그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내용의 진심 어린 기도를 드릴 것이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기 싫을 때에도 그분들의 고통에 비하면 공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힘내서 공부할 것이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신 분들에게 감사하고 덕분에 잘 살고 있다고 전해드리고 싶다. 지금도 그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펐는지는 가늠할 수 없다. 그래서 그만큼 감사하고 더 열심히 살 것이다.





특별상

경기도교육감상

탄내



강유미 평촌고등학교 3학년

흐릿한 재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아버지, 아버지. 처절할 울음이었다. 내가 이토록 시린 비명을 들은 적이 있었던가. 나는 눈을 깜빡였다. 뜨거운 열기가 불을 감쌌다. 손은 차가웠으나, 작열하듯 내리쬐는 햇볕은 여린 흙을 달구고 있었다.

나무가 흔들릴 때마다, 묘역 앞에 얼룩 같은 그림자가 이리저리 일렁였다. 나는 흙굿 고개를 들어 쳐다보았다. 울부짖던 노부인도 함께였다. 더운 공기가 기도를 타고 폐 속 가득히 메우고 있었다. 나는 가까스로 숨을 들이마셨다. 노인은 여전히 흐느꼈다. 지독하게도 차가운 울음이었다. 시린 입김 같은 탄식이 허공에서 울렸다. 선선한 바람이 우리의 사이를 가르며 지나가고 있었다.

나는 지금 깊은 도랑 앞에 서 있다. 끝도 없이 깊어 보이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도랑의 끝을 멍하니 쳐다보면서. 도랑을 둘러싼 낡은 콘크리트에는 금이 가 있었다. 아마 많은 사람이 이곳을 건넌 것이다. 실수로 발이 빠진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가 이곳을 건널 수 있을까. 바람이 불었다. 흔들리는 머리 카락이 내 시야를 가렸다가, 이내 사라졌다. 마치 빛이 투과해 나타나는 프리즘처럼, 햇볕이 순간 번쩍었다. 나는 도랑을, 그 너머를 바라보았다. 규칙적으로 놓인 묘들은 흔들림 없이 있었다. 알갭게도 도랑은 나를 놀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마치 나는 그들이 있는 곳에 가지 못할 것이라 말하듯이.

나는 발을 옮겼다. 발목에 스치는 풀의 따가움과 잔디 밟는 소리. 마치 거칠게 숨을 불어넣듯, 피어올랐다가 금세 진 시든 꽃들. 일렬로 새겨진 누군가의 이름들.

그곳에 낡은 사진이 존재했다. 너무 오래되어 형태만 간신히 남아, 얼굴도 알아볼 수 없는 상태로. 어느 청년이었을 이가 그곳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보냈다. 기억 속에서 잊히듯이, 사진도 흐려진 채로. 낡은 안경이, 반지가, 총탄이. 찢긴 군복의 잔해가 유일하게 누군가였을 흔적이 되어서. 천천히 삭아서 흙 속에 스며들어 가고, 또 드러나고를 반복하는 시간 속에서, 어느 청년들은 얼굴도 잊힌 채 살아가고 있었다.

꽃내나는 들꽃이 흔들렸다. 나는 그것이 어찌면 다시 태어나 하늘을, 삶을, 미래를 누리는 과거의 청년들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차마 꽃을 꺾어 바치지 못한 채 그저 묘역을 바라보았다. 생명이 죽어갔던, 피 섞인 땅에서 그들은 다시 태어나는 것일까. 미래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서도, 그들은 걱정도 잠들지도 못한 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묘에 붙어있던 리본들은 떨어져 바람에 휘날렸다. 땅 바닥에 쓸리며, 서러운 듯이 흔적을 만들어갔다. 여름의 홀로그램 같은 빛 사이로, 나비가 날아가듯. 나는 회고하며 리본을 주웠다. 어린 날의 나는 그들처럼 목숨 바쳐 싸울 수 있었을까. 청년들이 뜨거운 피를 흘리며 차갑게 식어가던 그 나이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흙 속에 묻힌 님은 흰 뼈가 드러나듯, 리본 사이로 드러난 녹슨 철사를 꿰뚫추며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들과 만날 수 있다면 무슨 말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늘의 구름이 움직였다. 그늘진 하늘 아래에서, 마치 전율과 같은 오한이 등을 타고 올라왔다. 날이 시렸다. 아까까지 내리쬐던 해가 마치 거짓말인 것처럼, 날도 마음도 천천히 식어가고 있었다.

다시 탄내가 코를 스쳤다. 노부인은 울면서 향을 피우고 있었다. 시린 공기가 살갗 가까이 닿아 나를 간지럽혔다. 손끝이 간질거리고, 저릿한 감각을 받아들이며 나는 천천히 묘에 리본을 붙들었다. 마치 원래 자리를 알아보듯이, 리본은 그대로 가만히 바람을 따라 흔들렸다. 나는 묘 앞에 서서 막연히 상상했다. 그들이 겪었어야 했던 뜨거운 안녕을. 가족들과 슬픈 이별을, 미래를. 죽어버리고 마는 연약한 사람들이,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아버지, 아버지. 나는 귀에 울리는 울음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다. 싸라기눈 같은 흰 재가 흩날리고 있었다.



특별상

인천광역시교육감상

태극기가 자랑스러운 날



박예랑 인천시 감룡초등학교 5학년

현충원의 묘역을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위인 분들이 계신 묘역을 보니 숙연해졌습니다.

묘역을 처음 봤을 때,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지되기까지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보다 넓은 묘역과 묘지가 제 예상이 틀렸다는 걸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독립운동가분들의 묘를 보니 가수 안예은의 8호 감방의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3·1운동 직후, 서대문 형무소 8호 감방에 수감 된 독립운동가분들이 옥고를 치르는 두려움을 이겨내고자 자주 부르셨다고 들었습니다. 가사에서 독립의 염원이 묻어나 안타까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 많은 분들중 몇 명밖에 알지 못한다는 사실에 죄책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역사 속 어느 날, 여기 계신 분들은 대단한 영웅이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제자로서, 스승으로서, 부모로서 단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길고 어려워도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위인분들을 본받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가 발전하기까지 힘써주셨던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기억해야 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지키려는 그들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유독 태극기가 자랑스러운 날입니다.



특별상

인천광역시교육감상

하늘을 날았던 당신께



한수지 강화여자고등학교 2학년

권기옥 열사께

나는 오늘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국립서울현충원 독립유공자묘역 197번에 안장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비행기 옆에 서 있던 당신 사진이 생각납니다. 사진 속 당신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날아오르던 당신은 이제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당신께 편지를 쓰는 건, 당신 덕분에 내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1918년 4월에 승의여학교를 다녔고 1919년 3·1운동에 참여했지만, 당신은 형사에게 잡혀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당신은 유치장에서 나온 뒤, 독립운동 자금을 모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3·1 만세운동 이후 더 이상 독립운동을 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아무 죄 없는 열아홉 소녀가 유치장에 갇혀있었던 것은 그 사실 자체로 끔찍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나는 당신이 집에 질려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더욱 독립을 갈망했고, 그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당신은 일제의 감시를 피해 상하이로 향했습니다. 당신은 비행사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번번이 항공학교 입학이 거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당신은 항공학교에

입학했고 한국 최초의 여자비행사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고 독립에 앞장섰습니다. 나는 생각해봤습니다. 만약 내가 당신이었다면, 나는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대개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만약 그 시절에 살았다면, 자신도 목숨 바쳐 독립을 갈망하고 자유를 찾기 위했을 거라고. 제 생각엔 글썄요. 과연 그들이 위험함을 감수할 수 있었을까요?

나는 당신의 어록 중 이 말을 기억합니다.

“꿈을 가져야 한다. 꿈이 없으면 죽은 자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며, 당신 묘비에 적힌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비행술을 배워 조선 총독부를 폭파하라.” 나는 조선의 독립을 위해 하늘을 날았던 당신이 자랑스롭습니다. 조국의 해방을 위해 싸워서 고맙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과 같은 꿈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글을 쓸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문학과 작품에 녹여 세상에 알릴 것입니다.

나는 당신께 감사함을 표합니다. 나는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킨 당신과 독립 운동가를 위해 이 나라에서 살아나갈 겁니다. 당신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우리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추모해야 합니다. 독립을 위해 하늘을 날았던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특별상

한국문인협회이사장상

5월, 현충원의 봄날



천예원 성남시 위례푸른초등학교 3학년

5월의 화창한 봄날, 엄마와 함께 현충원에 갔다. 이곳에 묘비가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셀 수 없을 만큼 엄청 많이 있었다. 그런데 묘비들을 보니까 순간 마음이 울컥했다. 나라를 위해 싸우신 분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현충원에 올 때 엄마께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나의 외증조할머니가 원래 북한에 사셨었는데 6.25전쟁 때문에 남한으로 내려와서 외할아버지를 낳았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북한에 있는 자신의 가족과 떨어져서 지냈다. 난 그 슬픈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찢어진 종이처럼 아팠다.

나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 살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또 외증조할머니는 가족과 떨어져 살며 하루하루를 외롭게 사는 것이 참으로 힘들 거라고 생각했다. 한편으로는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나라면 참지 못하고 가족을 보러 당장 떠났을 텐데 말이다. 하지만 외증조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북한과 남한이 서로 통일이 되었다면 그런 일도 없었을 텐데. 아마 대부분 사람들도 통일이 못 되어서 가족과 떨어져 살았을 것 같다.

그리고 나는 현충원에서 잠깐 엄마와 전시관에 들렀는데 그곳에서 김형철의 이야기를 보았다. 김형철은 그냥 평범한 청년이었는데 옛날에는 군인들을 모두 전쟁터로 보내서 김형철은 강제로 전쟁터에 끌려갔다. 그 와중에 전쟁을 하다가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 그래서 김형철은 부산에 있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치료를 받다가 자신의 동료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김형철은 그때 너무나도 슬퍼하고 괴로워했다. 나도 그런 김형철의 마음에 공감했다. 얼마나 자신이 살아있다는게 동료들에게 미안하고 마음이 아팠을까. 하지만 김형철도 다친 다리 한쪽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60년 동안이나 제대로 걷지 못했다. 그렇게 다리가 회복되지 않고 돌아가셨다.

난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서 눈물이 났다. 이렇게나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니 심지어 불편하게 살다가, 그러니까 더욱 슬펐다. 내가 겪은 일도 아니지만 펜스레 내 일인 것처럼 걱정이 되고 마음이 아팠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슬픔, 나의 슬픔을 행복으로 만들려고 노력해야겠다. 그리고 솔직히 현충원에 가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이곳에 와보니 풍경도 정말 멋졌고 묘비 안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워주신 분들에게 죄송하기도 했다.

앞으로는 누군가가 현충원에 가자고 하면 다시 한번 오늘의 마음을 느끼며 이곳에 와보고 싶다는 생각도 든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 싸워주신 분들은 자신의 행복만 생각하지 않고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던 것 같다. 나도 나라의 평화까진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고 싶다. 5월의 어느 날 빈둥대며 놀고 싶기만 했던 나를 현충원에 데려다주신 엄마께도 감사한 생각이 잠시 들었다.

더불어 이곳에서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이 내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아서 먼 훗날 내가 어른이 되어서까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되고 싶다. 또한 나라를 위해 싸워주신 분들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현충원을 나선다.



특별상

한국문인협회이사장상

현충원에서



박예주 등원중학교 2학년

푸르른 하늘 아래
초록의 잎사귀가 사랑인다.

검회색 기와 위로
올려다본 구름은 천천히 흘러간다.

하얀 기둥 사이사이로
고요한 평화가 깃들여 있다.

선선히 불어오는 바람에
태극기가 장엄하게 펄럭인다.

잠든 영혼들의 숨결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방문자의 마음에
애국심이 샘솟는
추모의 자리여!





특별상

한국문인협회이사장상

당신과 저의 7월

- 존경하는 김재현 기관사님께 -



정서희 고양예술고등학교 3학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제 66회 호국문예 백일장 참가를 위해 현충원에 방문한 학생입니다. 기관사님께서 계신 곳이자, 기관사님께서 지켜주신 곳에 제가 지금 이렇게 발을 디디고 있어요. 어떤 말로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당연한 것들을 얻기 위해 기관사님을 비롯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눈물을 흘렸을까요. 감히 측정조차 할 수 없는 숭고한 마음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김재현 기관사님께서 북한군이 대전까지 내려오자 수송지원을 위해 철도원들과 함께 전투에 참전하신 7월 16일, 그로부터 54년이 흐른 후에 대한민국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기관사님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 너무 죄송할 따름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은 날, 누군가는 나라를 위해 총칼 따위는 겁내지 않고 나갔는데, 정작 누군가가 지켜준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은 7월 16일을 자신의 생일로만 알고 있으니까요.

올해도 찾아올 7월에는 기관사님의 숭고한 희생과 업적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기관사님과 독립운동가분들이 지켜주신 대한민국은 정말 아름다워요! 이팝나무 꽃과 장미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고, 현충원에 있는 모두가 가족, 친구와 함께 행복해하고 있어요. 아직 어린 아이들은 비눗방울을 불고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즐거워하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도 글을 쓰는 사람들도 정말 행복해 보여요. 쓰는 글과 그리는 그림은 모두 다르지만 독립운동가 분들을 떠올리는 마음만은 같을 거예요.

하늘에서도 잘 보이시나요? 오늘은 날씨가 정말 청명합니다. 그래서 더욱 그리운 것 같아요. 모든 게 그대로인데 남겨진 사람만 변했으니까요. 아까 친구들과 유품전시관을 방문하여 기관사님이 남기고 가신 유품들을 보았어요. 미합중국 국방부장관님께 받은, 미국방부와 미합중국,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기관사님께 영원히 감사를 표한다는 감사장. 그리고 기관사님의 노력이 절대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특별공로훈장과 기관사 휘장. 그리고 기관사님이 남기신 가장 큰 유품인 대한민국. 유품전시관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현충원을 내려다보았어요. 너무나도 죄송하고 또 감사한 마음 뿐입니다.

만약 저였다면 내가 누리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나라만을 위해 전쟁에 나갈 수 있었을까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 미리 '대한민국'이라는 길을 닦아 놓고 꽃을 심어 뒀기에 제가 꽃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인데, 길을 닦아둔 사람들을 당연한 세상에 사는 우리가 잊고 산다는 것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흑백 사진 속, 누구보다 선명하게 웃고 계시던 기관사님의 모습을, 아직 잊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기억하고 싶어요. 누군가가 우리나라를 공격했을 때, 누구보다 먼저 나라를 위해 나서신 분들을 죽을 때까지 평생 마음에 새기고 살겠습니다.

기관사님이 지켜주신 대한민국의 당당한 국민으로서, 하늘을 우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게 살겠습니다. 기관사님, 우리가 우리의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증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느 고등학생들처럼 학교를 다니고 친구들을 사귀고 꿈을 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나중에 어른이 되면 작가가 되고 싶어요. 제 눈으로 본 세상과 제가 머릿속으로 그린 상상들을 소설로 적어내는 것이 제 오랜 꿈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김재현 기관사님의 이야기를 저만의 언어로 적어내고 엮은 책을 당당하게 출판하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응원해 주세요. 멋진 어른이 되어 대한민국을 빛내 보이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저 멀리서 스물스물 여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올해 7월에 다시 한번 현충원을 방문해 김재현 기관사님을 뵙고 싶어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기관사님이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제가 기관사님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기관사님과 저의 올해 7월은 시원하고 기분 좋은 여름이길 기도할게요. 언제나 행복하시고, 몸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특별상

한국문인협회이사장상

이름 모를 누군가에게



박도현 경기도 부천시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습니다.’라는 말이 있다. 이러한 말은 현충원에 안장 되어 있는 호국영령들을 위해 쓰이는 말이 아닐까 싶다. 현충원 입구를 들어 오면 자연스레 잠시 멈춰 묵념을 하게 된다. 정문을 들어오면 충성분수대와 그 뒤에 있는 대형 꽃시계가 우리를 반겨준다. 계속 걸어 현충원을 지나 현충탑에 이르렀다. 현충탑 앞의 참배대에는 서는 위치가 표시된 신발 무늬까지 볼 수 있다. 현충원에서 행사를 할 때는 이 무늬를 기준으로 도열하는데 귀빈이 방문해 헌화를 하거나 묵념을 하는 장소가 바로 이곳이다. 현충원에 가서 이곳만 보고 간다면 현충원의 10% 정도만 관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충원을 더 자세히 보고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내부를 들어가야 한다. 현충원 내부에는 가운데 영헌승천상을 중심으로 10만 4천여 위패가 모여져 있고 이 영헌승천상 지하 무명용사 봉안실에는 아직까지도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무명용사 약 6,400분의 유해가 모여져 있다. 끝도 없이 펼쳐지는 위패의 행렬에 나는 시선이 압도당했다.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하면 한국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장병들이 희생되었는지 실감할 수 있다.

위패 사이를 보다 보면 중간중간에 태극마크로 지워진 흔적을 볼 수 있다. 알고

보면 모두 유해발굴이나 신원이 확인되어 묘지에 안장되어서 태극마크로 지워진 것이다. 이전에는 신원이 확인되지 못한 분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전부 유해발굴 사업 덕분에 신원이 확인된 사람들의 이름이 지워지고 있다. 이곳에 남아 있는 모든 분들의 이름이 지워지는 그 날까지 힘쓰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소중한 목숨을 희생하는 자랑스러운 장병들에게 해줄 수 있는 우리의 마지막 선물이다.

현충탑 양편으로는 끝도 없이 펼쳐지는 묘비를 볼 수 있다. 묘석은 사병과 준사관 장교에 따라 그 모양이 다르다. 하지만 유일하게 예외 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채명신 장군의 묘이다. 이 묘는 2번 묘역의 월남 전사자 묘역 제일 앞에 묻어져 있다. 살아생전의 채명신 장군께서는 전우들과 옆에 같이 묻히고 싶다고 유언을 남겼는데, 장군을 사병묘역에 안장하는 일은 지금까지 역사상 없었던 일이기엔 많은 논란들이 있었다. 결국 병사를 사랑했던 채명신 장군의 뜻에 따라 사병의 묘석 형태로 조성하고 앞에 장군님의 어록 중 하나를 음각으로 새겨두었다. 이 시대에 진정한 군인이었던 채명신 장군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새겨질 인물 중 한 명이라 생각한다.

묘지를 둘러보면 수많은 장병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나는 이름 모를 그 누군가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가족이었을 것임을 알고 있기에 절로 숙연해진다. 어릴 적 나는 사람들도 없는 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모시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던 철없는 시절이 있었다. 부모님이 이곳에 나를 데려와 비석을 만지며 눈물을 멈추지 못하셨는데 이제야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이제서야 나는 진정한 어른이 되어 이러한 분들을 위해 많은 활동들을 해 나가고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많이 있다. 현충원에 계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분명 우리는 그들을 돕는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순국선열, 호국영령분들 저희에게 아름답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선물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존재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잊지 않고 계승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잊지 않겠습니다.



특별상

육군참모총장상

전사 통지서와 함께 온 아버지의 편지



도하연 서울도성초등학교 4학년

내가 무척 사랑하던 아버지가 전쟁터에 가신답니다. 식구들 모두 울며 아버지께 어두운 작별 인사를 합니다. 아버지는 조금 어둡고 겁먹은 표정으로 나를 봅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조그맣게 속삭이십니다. “아빠는 꼭 다시 집으로 돌아올 거야. 어머니하고 동생, 잘 부탁한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이고 흐느낍니다. 제 심장과 같은 아버지가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마지막으로 당당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우는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도 참을 수 없었나 봅니다. 아버지의 볼 아래로 햇빛처럼 따스하지만 이별의 아픔으로 가득 찬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와 동생을 바라보며 살짝 미소를 보입니다. 그리고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칠십 년이 지난 지금,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거름이 되어 준 아버지 덕분에 저와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나라가 애벌레에서 번데기라는 힘든 과정을 거치고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임춘수 육군 소령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국군 7사단 5연대 임춘수 소령님은 6·25전쟁 때 메모와 편지를 가족에게 보내 나라사랑과 가족

사랑을 열렬히 표현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딸 임옥자 할머니는 임춘수 소령님의 메모와 편지를 세상에 발표했고, 지금도 그 편지와 메모는 현충원 유품 전시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의 씨앗을 심어 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임춘수 소령님은 1951년 7월 2일 적의 포탄에 맞아 전사 하였습니다. 같은 해 7월, 임춘수 소령님은 전사 통지서라는 슬픔과 함께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현충원에 묻히셨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소령님의 묘비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하늘에 계실 임춘수 소령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임춘수 소령님 말고도 많은 호국영령들이 현충원에 잠들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희생을 잊지 않도록 그분들의 희생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특별상

육군참모총장상

묘지가 아닌 "현충원"



조현우 목동중학교 3학년

학교 점심시간에 복도에서 산책을 하다가 지상이를 만났고, 지상이가 같이 현충원에 놀러 가자고 했다. 현충원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이 없고 마침 주말에 할 게 없었던 나는 흔쾌히 간다고 했다. 하지만 그 장소에 도착한 나는 후회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겨우 일어나 지하철에 치이고 땀병에 치여서 도착한 곳이 묘지였기 때문이다.

내가 도착하자마자 묘지의 중앙인 현충관에선 다 같이 묵념을 하고 있었다. 나와 내 친구들도 분위기를 따라 눈을 감았다. 묵념이 끝나고 나는 비석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 들판으로 갔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들판들의 비석들이 마치 대열을 이룬 듯 차례로 줄 서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앙에 큰 비석이 세워져 있었고 비석엔 27이라는 숫자와 함께 '여기는 민족의 얼이 서린 곳. 조국과 함께 영원히 가는 이들, 해와 달이 이 언덕을 보호하리라.'라는 구절이 쓰여 있었다.

현충원이 국가유공자 분들을 위한 묘지이고, 내가 그걸 함부로 대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내가 밟고 있는 땅에 단 한 분이라도 안 계셨다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게 내가 묘지라고 험하게 불렀던 그 땅을 다시 보니 더이상 내 눈엔 꺼림칙한 묘지로 보이지 않았다. 내 눈앞엔, 나라를 위해 온몸이 썩어들어가는 고통을 견디신 수호자 분들의 쉼터로 보였다.

나는 가만히 서서 맘을 홀리며 멍 때리는 나를 발견하곤 누가 볼세라 얼른 걸음을 옮겼다. 걸음을 옮기는 도중에 스쳐 지나가는 묘역들 위의 꽃과 유품들이 보였다. 분명히 묘역 안에서 쉬고 계신 수호자분들의 가족분께서 두고 가신 것일 것이다.

이 먼 곳까지 오셔서 어찌 보면 더이상은 숨이 붙어계시지 않은 분들을 꾸며 준다는 건 수호자분들께서 살아계셨더라면 더 챙김 받으실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으론 내가 그분들 덕분에 살았으니 그분의 행복을 대신해서 산다는 느낌이 든다. 그동안 나태하게 인생을 낭비해왔던 내 자신이 뻔뻔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 이외에도 많은 걸 보았지만 내 머릿속엔 추모하는 마음 말고는 들지 않았다. 나의 무식함이 누군가의 가족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의 은인까지 고통을 준 건지 상처를 준 건지 나의 어휘력으로는 나타낼 수 없는 죄송함 때문일 거다. 나는 단지 사망한 사람을 추모하는 것이 아닌 나의 삶의 터를 지켜준 수호자를 뵈고 온 거다. 묘지가 아닌 '현충원'이다.





특별상

육군참모총장상

임춘수 소령을 만나며



김단비 신서고등학교 3학년

할아버지가 수류탄의 핀을 뽑고 적을 향해 내던졌다. 수류탄의 폭음이 순식간에 할아버지의 고막을 찢어놓았다. 굉음과 함께 폭발하자 적들이 불길과 함께 공중에 떠올랐다.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다. 목에 쌍안경을 낀 채 장렬히 전사한 전우가 보였지만, 그럼에도 할아버지는 차오르는 눈물을 머금고 끝까지 전진했다. 흙바닥에 나뒹구는 수통과 수저들이 주인을 잃고 애처롭게 울었다.

유품전시관을 둘러보니 전쟁의 한 장면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졌다. 할아버지의 자서전에서 읽었던 내용들이 동영상처럼 재생되는 것 같았다. 유품전시관에 들어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넘치는 흥을 주체하지 못했지만, 막상 그곳에 들어가 보니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 기분이 이상해졌다. 유품은 마치 별레가 갇혀있는 것 같았다. 한 단어로 정의를 내리기에 너무나도 복잡한 감정이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는 듯했고, 뜨거운 바람이 회오리쳐 오면서 가슴을 뜨겁게 달궜다는 것 같았다.

나는 마음을 굳게 먹고 전시관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곳에는 통신부대장으로 최전선을 지킨 임춘수 소령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었다. 임춘수 소령의 편지와 메모에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있었다. 특히 내 마음을 울렸던 건 마지막 대목이었다. 전쟁만 끝나면 운전면허를 따서 가족들에게 자동차를 태워주리라는 큰 기대를 품고 전장에 나갔지만, 결국 편지를 부치지 못한 채 적의 포탄에 맞아 전사했다고 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 딸들을 생각하던 임춘수 소령은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우리 할아버지 생각이 났다.

친할아버지는 학도병이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던 날인 1950년 6월 25일, 여동생의 자지리지는 울음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다. 폭탄이 터지기 30분 전 할아버지는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았는지 그날따라 일찍 학교 갈 준비를 하기 위해 마당에 있는 화장실로 달려갔다. 씻던 중 굉음과 함께 마을 사람들의 외침이 들렸다. 그 길로 할아버지는 학도병이 되었고 첫 번째 대열에 합류해 총알받이로 목숨을 내던졌다. 역시 할아버지는 전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등에 총을 맞았다. 아빠는 어릴 때 할아버지 등에 연고를 발라주던 일을 기억한다고 했다. 할아버지는 아빠에게 등을 맡긴 채 그날의 일을 회상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했다. 같이 수업을 듣던 할아버지의 둘도 없던 친구는 함께 싸웠던 전투지에서 명예롭게 돌아가셨다고 했다. 할아버지의 눈물은 혼자 살아남았다는 미안함과 그리움의 눈물이었다고 아빠는 얘기했다.

나는 임춘수 소령과 할아버지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어떻게 보면 두 분 다 전쟁이 터지기 전에는 가족과 함께 소박한 행복을 나누던 아버지와 학생이 아니었던가. 하지만 전쟁의 아픔이 가족들로부터 멀어지게 했고, 전투지에 나가 총 한 자루를 쥐어주며 싸우게 했다. 그럼에도 나라를 위해, 가족을 위해 치열하게 싸운 참전용사 분들에게 지대한 감사를 느꼈다. 사실 더 자세하게는 감사보다는 존경이었던 것 같다. 나라면 과연 목숨을 잃을 각오로 피가 흘날리는 곳에 걸어 들어갈 수 있었을까. 아마 두려움에 사시나무떨듯이 두 다리를 벌벌 떨다가 정신 못 차리고 도망갔을 것 같다. 그분들의 희생으로 인해 나는 당연하게 학교에 가고 친구들과 웃고 떠들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작가라는 꿈을 꿀 수 있었던 것 같다.

오빠는 얼마전 병역명문가로 선정이 됐다. 우리집 식구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할아버지를 추모했다. 아마도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무척 뿌듯해할 거라고 생각하니 미소가 지어졌다. 할아버지의 희생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할아버지와 한 공간에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임춘수 소령을 보면서 안아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쉽지 않은 삶이었지만, 부디 천국에 가서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아마도 두 분은 천국에서 만나지 않았을까.

나는 꼭 작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요즘은 백일장을 준비하느라 밤새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삶이 너무 힘들어서 이 모든 것을 그만두고 그냥 내던지고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다. 하지만 오늘 이곳 현충원에 와서 생각을 고쳐먹었다. 살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던 참전용사분들에게 상당히 실례가 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내 힘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겠지만, 오히려 더 열심히 해서 수많은 참전용사들의 꿈을 이뤄주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다.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추억할 수 있는 글을 써서 보답하고 싶다.

들어 올 때와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밖에 나왔다. 잔디 위로 호국영령들의 묘역이 보였다. 하나하나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나는 유품전시관을 나오면서 고개를 숙였다. 오늘은 할아버지가 안장되어 있는 파주로 가 봐야겠다. 오늘따라 할아버지가 보고 싶다.



특별상

해군참모총장상

그리운 외할아버지께



박소연 서울강남초등학교 5학년

안녕하세요. 저는 할아버지의 손녀 소연이에요. 할아버지, 저는 올해 12살이 되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8년이 지났어요. 코로나 때문에 할아버지를 한참이나 뵈지 못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가 제가 너무 어렸을 때라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매년 충혼당 326실의 268호에 계시는 할아버지를 보러 가요. 정문에서 국화꽃을 사서 묵념을 하고, 할아버지가 계시는 곳에 가요. 할아버지께서 맨 위에 계시서 사다리차를 이용해야 해요.

충혼당에 가는 길에는 수많은 비석과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어요. 엄마가 나라를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것들이라고 알려주셨어요.

텔레비전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왔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할아버지는 안 무서우셨어요?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나라를 지켜주셨다고 생각하니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나라를 위해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 6일 현충일에 다시 보러 올게요.

2022년 5월 21일

박소연 올림



특별상

해군참모총장상

당연함을 지키는 법



백서윤 용인시 대지중학교 1학년

어제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했다. 역시나 행사의 시작은 애국가였다. 우리는 개미 같은 목소리로 1절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1절이 끝나고 2절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무도 2절의 가사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애국가는 항상 모든 행사의 시작이었고 당연히 불러야 하는 것이었기에 별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 대충 따라부르기만 하면 되는 그런 것. 때로는 왜 불러야 하는지 모르겠는 그런 것. 나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게 오늘이 찾아왔다. 백일장에 대한 기대와 떨림을 안은 채 현충원에 도착했다. 항상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해 보이는 묘비들이 세워져 있었다. 나는 살아 숨 쉬며 두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다.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묘비들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 나는 어떻게 이 자랑스러운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되었을까? 살면서 처음 해 본 생각이었다.

학교에서 했던 순국선열에 대한 교육시간에는 친구와 쪽지를 주고받았고, 노트에 낙서를 했다. 역사박물관에 갈 때면 지루하니까 얼른 나가자며 엄마 아빠를 조르기도 했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 감사해야 한다고 하지만 나의

삶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랬던 내가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이다.

그분들 덕분이었다. 긴 전쟁을 이겨낸 것도, 긴 전염병을 이겨내고 있는 것도,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이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것도, 그리고 나의 삶의 작은 시련들을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았던 시간들을 끝까지 이겨내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던 것까지 말이다. 그분들이 계셨기에, 끝까지 이겨내셨기에 나는, 우리는 또 견뎌내게 될 거라는 것. 오늘 이곳에 와서 내가 한 삶에서의 첫 번째 생각이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당연하기도 하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현대의 우리 사회는 그 당연함을 지키고 있을까. 당연하니까 감사 해야 하고 본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정말 그러고 있을까?

당연함을 지키는 것은 당당함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애국가를 당당하게 부르는 것.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업적을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 하지만 그 무엇보다 당당하게 나라를 사랑하는 것. 그분들에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의무가 아닐까?





특별상

해군참모총장상

기다림



석시은 광영여자고등학교 3학년

할머니는 늘 당신을 기다리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당신을 기다릴 것입니다. 당신이 돌아올 것이라는 걸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할머니는 늘 무뚝뚝한 분이셨습니다. 어릴 적 나는 그녀가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보다 더 어린 동생에게 자꾸 그렇게 울면 할머니가 와 혼낸다고 면박을 줄 정도였으니까요. 일찍 남편을 떠나보낸 할머니가 혹시 외로우실까 봐 아버지는 나와 동생을 데리고 자주 그분의 댁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무뚝뚝했지만, 그래도 할머니 댁에 가면 아이스크림을 싹쓸 먹을 수 있었으니 나는 그곳을 꽤 좋아했습니다.

조금씩 철이 들며 그녀에 대한 내 시선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할머니가 자주 낡은 종이쪽지 하나를 하릴없이 바라보다 집어넣는단 것도 알게 되었죠. 그게 무엇이나고 묻자 할머니는 처음 보는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듣게 된 것입니다. 당신에 대해서요.

할머니는 당신이 밋다고 하셨습니다. 조국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나와 별 차이가 없던 나이에 자원해서 입대한 사람이라고요. 미운 놈이지, 가족을 두고 그렇게 가 버렸으니……. 그녀의 목소리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덤덤하고 일정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보았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손끝을요. 당신의 이야기를 하던 그 때에 그녀는 할머니가 아닌 자상한 오라

버니를 둔 소녀였습니다. 부끄럽지만, 어린 마음에 저는 할머니가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꼭 돌아오겠다고 쓰인 쪽지를 두고 떠나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않은 오라비를 향해서요. 세월으로 낡고 바래 제대로 알아볼 수도 없는 쪽지를 할머니는 늘 소중하게 간직했습니다.

예전 내 생각이 잘못되었던 걸 깨달았던 건 처음 현충원에 와 보면서였습니다. 신원 미상의 묘 수십 개 앞을 서성이며 할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전에 했던 유전자 검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이름 없는 묘비 앞에서 그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던 걸까요. 미운 사람이라는 말 밖에 할 수 없던 할머니의 깊은 상실을, 그리움을, 사랑을 나는 감히 그려보았습니다. 아득함을 곱씹었습니다.

할머니는 재작년 돌아가셨습니다. 현충원에서 흐느끼던 뒷모습을 보던 그 날이 바로 얼마 전 같은데,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게 믿기지 않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에서, 나는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두고 떠나갔다는 괴로움, 전쟁터에서의 두려움, 조국을 위해 포기한 것들을 향한 그리움과……. 아아, 지금을 살아가는 제가 상상을 할 수나 있을까요. 저는 분노했습니다. 도대체 그 무엇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게 만든 것입니까. 분명 그것은 신조차 하지 못 할 것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를 화장할 때, 저는 당신의 쪽지를 함께 넣었습니다. 마지막 기억에서 너무 많이 변했을 할머니를 당신이 알아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러니 부디, 그 쪽지를 든 노인을 저승에서 만난다면 반갑게 맞아주십시오. 그 노인은, 일평생 당신만을 기다린, 당신의 누이입니다.

나는 지금 현충원의 이름 없는 묘비 앞에서 있습니다. 오월의 현충원은 푸르고 아름답습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풀내음이 향긋합니다. 평화로운 날씨와 정반대로 내 마음에는 그늘이 드리워 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의 먹먹함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혼은, 누이를 만났습니까? 할머니의 기나긴 기다림은 끝이 났습니까? 나는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아직 국토 어딘가에 남아 있을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이곳을 지키겠습니다. 이내 모든 나날이 이렇게도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당신의 나날 덕분이라는 것을 항상 가슴속에 새기고 잊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당신을 만나 뵈 그 날을 고대하겠습니다.



특별상

공군참모총장상

현충일, 잊지 않겠습니다



정연하 인천가현초등학교 4학년

〈 2022년 5월 16일 〉

오늘도 나는 학원이 끝나고 집에 왔다. “다녀왔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러자 엄마가 말했다. “왔어? 아, 그리고 현충일 기념해서 백일장 한다던데 참여해 볼래?” 난 백일장을 나가 본 적이 없어서 조금 고민되었지만 재미있을 것 같아 참여한다고 말했다. 아직 백일장을 가려면 멀었지만 기대가 된다.

〈 2022년 5월 20일 〉

백일장이 내일이다. 나는 언니와 현충일을 알아보기로 했다. 나는 현충일과 관련된 영상을 보았다. 영상에 나온 열사와 의사들이 너무 멋졌다. 뭔가 가슴이 웅장해졌다. 현충일에는 관심이 없었고 공휴일도 아니라 작년에는 6월 6일이 현충일인지도 몰랐다. 그렇지만 오늘 현충일에 호기심이 생겼다. 내일이 아주 기대된다.

〈 2022년 5월 21일 〉

드디어 오늘이다. 일찍 가야 해서 7시에 일어나 준비를 했다.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긴장되었다. 차를 타고 한숨 자니 현충원에 도착해 있었다. 현충원에 가니 사람이 수없이 많았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의 묘가

있었다. 나도 모르게 공손해졌다. 그런데 희생한 사람들의 묘가 생각한 것보다 많았다.

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잘살 수 있는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전시관에 가보았다. 여기에는 독립을 위해 힘쓰신 분들의 기록이 있었다.

위인전에 있는 사람 외에도 수없이 많았다. 또, 그때의 역사가 생생히 남아 있었다. 내가 이 사람들의 후손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오늘 현충원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리고 현충일이 공휴일이 아니라고 관심을 가지지 못한 내가 너무 부끄럽다. 이제부터라도 현충일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한 분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우리나라에 힘쓰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특별상

공군참모총장상

걱정말아요 그대



김규리 은성중학교 2학년

가족들과 헤어질까 봐
조국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움의 그림자를 걷기 위해
당신은 짐을 꾸렸죠.

정성스런 어머니의 손길에 뺏뺏하게
다려진 셔츠
이른 아침 따끈한 밥에 노릇한 고등어구이가 놓인 밥상
대학 입학할 때 큰맘 먹고 샀던 가죽 가방을 뒤로한 채,
뒤로한 채
당신은 그 그림자 위로 걸어갔죠.

전쟁터에서 바라본 세상은 또 다른 세상이었죠
쏟아지는 총알,
무한히 연속되는 두려움과 그리움의 연속.
잔인하고 험악한 전쟁터는 젊은 그대가 보기엔 절망 그 자체였죠.

그 절망들은
몸에 상처를 내고
사람을 죽였지만
그대의 신념은 꺾을 수 없었죠.

때로는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따뜻한 밥이 그리웠겠지만,
때로는 학교에 가서 보는 친구들,
선생님의 웃음이 그리웠겠지만,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같은 의지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신념 하나로 버텨온 그대
이 세상 어느 영웅보다 존경합니다.

하지만 그대여,

이제는 걱정 말아요.
그대가 힘들게 지켜온 우리나라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는 우리가 지킬게요.
아름답고 평화롭도록
그리고 기억할게요.
그대가 했던 노력들.





특별상

공군참모총장상

묘목



고은결 안양예술고등학교 3학년

나의 뿌리는 할아버지
내가 틈을 꽃봉오리가 늘어간다

유월이면 찾아오던 현충원
할아버지 손 잡고 묘역 옆을 걸으며 듣던
지나온 봄의 이야기

모두가 태극기를 품고 눈을 감아서
국기를 볼 때마다
가슴이 펴려이는 거라고
독립부터 수호까지
어려운 마음을 배웠다

속으로 찰랑이는 감회
어떤 묵념은 눈물보다 무겁다

언젠가 나이트가 끝까지 그려졌을 때
할아버지도 이곳의 속편이 될 것이다

나는 나무가 되어
할아버지 이름 곁에 서고 싶다

내 목에 걸어주시던 참전용사 훈장처럼
남아도 닳지 않는 기억을 쥐고

서울에서 대전까지
내가 피워 낼 무궁화
곧게 자라날 것이다

그리움을 던고

바람이 만개하듯 불어온다

아직도 봄이다
현충원의 꽃들로



특별상

해병대사령관상

하늘에 계신 김만술 대위님께



김유안 서울시 성동초등학교 2학년

6·25전쟁에서 힘써서 싸워주신 김만술 대위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 살고 있는 서울성동초등학교 2학년 김유안입니다. 저는 김만술 대위님을 존경하고 있어요. 대위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이곳 현충원에 오니까 김만술 대위님이 생각나요. 저희 엄마가 이야기해주셨어요. 저의 외증조할아버지는 6·25전쟁 때 북에서 혼자 남으로 건너오셨어요. 학생 때였는데 말이에요. 항상 돌아가시기 전까지 북에 있는 가족을 그리워하셨대요. 이산가족 찾기도 나가 보았지만 가족을 찾지 못하셨대요. 저희 외증조할아버지가 달려 뒷장에 북에 있는 고향 마을을 그려서 저희 엄마가 어렸을 때 보여주셨대요. 통일이 되면 가족들을 찾으러 가자고요. 이 이야기를 엄마에게 전해 들으면서 울었어요.

김만술 대위님도 가족들이 보고 싶지 않으셨나요? 옆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무섭진 않으셨어요? 불도 안 들어오는 캄캄한 밤에 엄청 무서웠을 것 같아요. 저였으면 가족들이 보고 싶고 무서워서 울었을 것 같아요.

저희 학교를 세우신 김기인 할아버지도 6·25전쟁 때 허리에 총을 맞아서 다리 신경이 마비되어 휠체어를 타고 다니셨어요. 전쟁은 마음의 상처와 몸의 상처를 가져오는 것 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직접 6·25전쟁을 보진 못했지만, 우크라이나 상황을 텔레비전으로 보니까 그때 상황을 상상할 수 있어요. 6·25전쟁이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보다요. 6·25전쟁에서 얼마나 배고프시고 힘들셨을까요? 전쟁 때문에 곡식도 다 떨어지고 지금처럼 인터넷이 없어서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려워서 엄청 배고팠을 거예요.

제가 그때 태어나지 않아서 정말 정말 다행이에요. 대신에 역사 공부를 많이 해서 역사를 잊지 않을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나라를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역사를 많이 공부해서 두 번 다시는 일제 강점기나 6·25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할게요. 그리고 혹시 하늘나라에서 저희 외증조할아버지를 만나셨나요? 다시 만나시면 안부 꼭 전해주세요. 북에 계신 가족들을 하늘나라에서 만나셨는지 궁금해요. 그럼 하늘나라에서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2022년 5월 21일 토요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김유안 올림



특별상

해병대사령관상

무심히 잠든 순국의 영령들이 꽃피며



김상훈 용인중학교 3학년

깃뻗혀 아니 아픈 꽃이 있을까
쓰러져 호소하는 비명조차 듣기 아픈데
한데 얹힌 꽃줄기도 쓰러질 땐 일품 없어
누가 이들 고통을 알아주겠냐 만은
동료가 우는 피눈물 앞에 더한 고통이 있을까

슬피 울다 홀연 눈 녹듯 사라질까 봐
겉이 나 제 발자국도 못 움직이는 나는
생각하기도 아픈 고통인데
어찌해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신 고통을 안아갔을까

이름이 잊혀지고 하늘과 이별하더라도
우리들 삶을 향기롭게 해주려는
참히 이기적인 이들 만큼은
더 높은 은혜가 없구나



무자비하게 쏟아내리던 비가 그칠 때까지
 붉은 터 속에 타들어간 꽃들
 같이 이들 슬픔을 울어주어야지
 같이 이들 이름을 울어주어야지

열 번 백 번을 꺾여도 꽃은 아름답고
 그 땅속에 뻗은 순국의 뿌리는 굳세어
 이 향기는 바람을 타고 날아
 우리 삶에 넓게 스며드니
 이렇게나 향기로운 세상이 지어졌네



특별상

해병대사령관상

함께



홍세림 고양예술고등학교 3학년

이곳은 너무 넓고 외롭다
 산속에서 내려온 작은 새들이
 잔디 속에 누워 있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으면
 흐릿하게 보이다 선명해지는 얼굴

마주보는 순간만으로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다

어제의 내 마음을 꺼내보면
 부끄러워 얼굴이 빨갛게 변한다

손 안에 가득한 편지뭉치
 한쪽 어깨에 매어진 무거운 총을
 함께 들 수 있다면
 밝은 빛을 따라 흔들리는 얼굴



운동화 위에
날아온 꽃잎
가만히 서서
바라본다

멀리서 총성이 들리고
네가 뛰어간다

따라갈 수 없는 곳으로
사라진다

네가 지킨 우리의 모습을 봐
이제 내가 너를 지키기로 한다

가장 깊은 기도의 방식으로

믿음과 용기가 이곳을 가득 채운다
운동화 위 꽃잎이 천천히 날아가고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어
앞을 향해 걸어간다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마음이짐으로
어디든 갈 수 있다



장려상

국립서울현충원장상

현충원의 살아있는 역사



이예환 인천청라초등학교 5학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잠들어 계신 이 현충원을 둘러보니 묘역뿐만 아니라 각종 전시실에서 우리 역사에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전시물을 직접 볼 수 있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유품 전시실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6·25전쟁에서 전사하신 호국영령들의 유품을 직접 보니 제가 진짜 전쟁터에 있는듯 한 느낌을 받아 더욱 새롭고, 실감나는 유익한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나라를 빼앗긴 슬픔 속에서도 독립을 위해 목숨 바쳐 싸워주신 순국선열들의 유품을 보니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셨던 독립투사들의 굳은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조상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순국선열들과 호국영령들의 묘역입니다. 우리 독립투사들과 호국영령을 보니 직접 순국선열들과 호국영령들을 마주하는 것 같아 가슴이 웅장해졌습니다. 저도 순국선열들과 호국영령들에게는 못 미치더라도 나라를 위한 애국심과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앞서 유품 전시관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묘역이 가슴으로 느끼는 곳이 라면 호국전시실은 머리로 느끼고, 머리로 되새길 수 있는 곳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고난 뒤 전시실에 전시된 인물들의 삶을 되새기며 아는 내용을 다시 정리할 수 있어 유익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유품 전시실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묘역처럼 가슴으로 느낄 수는 없지만 호국전시관 나뭇의 유익함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주한 순국선열들과 호국영령들에게도 우리처럼 가족이 있었을 테지만, 가족들과의 만남을 뒤로하고, 나라와 국민,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점에서 우리 민족 특유의 정의감과 자유분방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발에 물집이 잡힐 정도로 뛰어다니며 독립 만세를 외친 유관순 열사에게서 배울 수 있는 끈기, 목숨이 위험한 걸 알면서도 폭탄 의거 활동을 한 윤봉길 의사, 가족과의 만남을 뒤로하고 전쟁터에 나간 수없이 많은 학도병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용기, 마지막으로 모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게서 배울 수 있는 애국심과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알아보다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애국심이 길러진다는 사실을 이 대회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호국영령이나 순국선열만큼 목숨 바쳐 싸우지는 못하더라도 독립투사들에게서 배운 애국심을 바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려상

국립서울현충원장상

현충원에서



김나경 서울연은초등학교 6학년

현충원을 보며 새로운 것들을 알 수 있었다.

처음으로, 가장 먼저 본 것은 묘비이다. 묘비는 한눈에 봐도 엄청 많았다. 이 많은 묘비들을 보며 걸으니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 웬지 뿌듯했다. 더 걷다 보니 더 많은 묘비들이 보였다. 묘비들은 내 예상보다는 훨씬 더 많아 엄청 놀랐다. 또한 묘비가 줄별로 간격에 맞춰져 있어 보기가 편했다. 묘비가 너무 많아서 다 보지는 못해서 아쉽지만 그만큼 좋은 것을 본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나중에 또 와서 다른 묘비들도 더 구경하고 싶었다.

그다음으로는 유품전시관과 호국전시관을 보았다. 먼저 유품전시관에 갔다. 유품전시관에서 묘비가 아닌 이름만 있는 곳에 갔다. 거기엔 시신이 없거나 후손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다 본 후 그 주변을 걸으며 독립운동가 몇몇과 그 독립운동가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그리고 다른 곳도 구경하며 여러 유품들을 보았다. 유품전시관을 둘러보며 유품마다 우리나라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깃들어진 것 같았다.

유품전시관을 다 보고, 호국전시관으로 갔다. 계속 둘러 보았는데 유품전시관에 나와 있던 사람들도 나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 독립운동가에 대한 설명은 달랐다. 설명들을 보다가 유관순 열사가 한 말이 떠올랐다. 손톱이 다 나가고, 귀와 코가 잘리고, 팔과 다리도 아픈데 그 고통들은 이길 수 있지만 나라 잃은 고통은 이길 수 없고, 목숨이 하나인 게 슬프다는 말을 보고 그 말이 정말 멋지다고 느꼈고, 나의 가슴에 닿은 것 같아 좋았다. 그래서인지 자꾸 생각났다. 그리고 더 안쪽으로 가니 6·25전쟁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다. 많이 알던 내용들이 많아 다 보지는 않았다. 마지막에 나갈 때 즈음 QR코드를 찍어 뭔가 하는 게 나와 있었지만 못해서 아쉽다. 다음에는 꼭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유품 전시관과 호국전시관을 보며 독립운동가들을 많이 알았다. 이외에도 다른 독립운동가들이나 6·25전쟁 등을 인터넷이나 책 등으로도 찾아 보고 싶었다.

현충원을 돌아보며 현충원에 대해 많이는 아니지만 잘 알 수 있었고 현충원에 와서 좋은 것들도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라서 좋았다. 또한 아직 안 가본 곳도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다시 한번 와서 한 번 더 돌아보고 탄 곳도 구경하고 다른 묘비도 다시 와서 꼭 봐야겠다. 마지막으로 현충원을 둘러보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장려상

국립서울현충원장상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신소울 용인시 대청초등학교 3학년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 사는 신소울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충원에 올 거라는 마음에 아주 기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역사에 관심이 많았고, 위인전을 읽으면서 만난 분들을 좀 더 가까이에서 만나 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관순 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자기를 희생하며 다른 사람을 더 먼저 생각하고……. 저라면 그렇게 못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님도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기억에 남은 부분은 하얼빈 역에서 이토히로 부미를 저격한 게 아주 기억에 납니다. 그 밖에 김구, 윤봉길, 이봉창 등의 사람들이 저, 그리고 우리의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셨다는 마음은 하나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인데 아이들이 부모를 잃거나 다친 것을 보았어요. 제가 만약 그 상황에 있더라면 무섭고, 끔찍할 것 같아요. 갈 곳도 없고, 가족들과 떨어져서 살아야 하니 저는 생각하기도 싫어요. 전쟁이 나지 않으면 정말 좋겠어요.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생각해 볼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과 나라 사랑을 다짐할 것이에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대한 독립 만세!!

2022년 5월 21일

신소울 올림



장려상

국립서울현충원장상

나라를 지키신 분들을 생각하며



강서준 서울일원초등학교 3학년

나는 오늘 국립현충원에 왔다. 나는 여기에 와서 처음엔 그냥 공동묘지 같은 묘들만 있는 곳인 줄 알았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연못도 있고 풀밭도 있어서 많이 놀랐다. 그리고 나는 많은 군인 아저씨들을 봤다.

나는 아저씨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궁금했다.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다.

그런데 엄마가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온다고 했다. 엄청 깜짝 놀랐다. 나는 현충원이 어둡고 조금 조용한 곳인줄 알았다. 그런데 내 예상이 틀렸다. 현충원은 시끌벅적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평화로운 곳이었다. 조금 이상했다. 왜냐하면 나는 무서운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친구가 찾고 싶어졌다. 하지만 친구 찾기는 사막에서 바늘 찾기였다. 내가 아는 친구들은 아무도 없었다. 조금 쓸쓸하던 생각이 문득 들었다.

나는 이 글을 쓰는 것이 광장에 모여서 나란히 앉아서 쓰는 것인 줄 알았다. 근데 위치를 자유롭게 고르고 쓰는 것이었다. 요것이 훨씬 편할 것 같다.

나는 유관순 열사님이 문득 생각이 났다. 생각만 해도 18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억울할까 라고 말이다. 그리고 유관순 열사님은 후손도 없다. 왜냐하면 결혼도 못하고 18세에 돌아가셨으니까 말이다.

여긴 생각보다 좋은 곳이다. 나는 여기에 묻히신 분들에게 고맙다. 왜냐하면 여기에 묻히신 분들은 다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해 주셨기 때문이다. 나는 이분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기에 묻히신 외국인 분들을 생각하면 우주처럼 고맙다. 왜냐하면 우주는 끝이 없고 끝이 없을 만큼 고맙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 사람이신데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으니까다. 나는 이 현충원에 있는 모든 분들을 존경하고 고맙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여기에 묻히신 모든 분들이 이 나라를 위해 일을 하셨기 때문이다. 만약에 여기에 묻힌 모든 분들이 나라를 위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 묻히신 모든 분들이 나라를 위해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분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끝까지 이분들의 노력과 정성을 생각해줘야 한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노력과 정성으로 우리나라를 살리셨으니까다. 그분들의 노력과 정성과 나라를 살리고 지키고 싶은 마음을 생각하니 나는 감동을 받았다. 그분들은 후손들이 잘되기를 바라면서 싸워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생각해 주셨다. 나는 사람들이 고마워하는지 궁금해졌다.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미스터리다. 우리들은 이분들을 하늘 높이로 존경하고 끝까지 기억해야 한다.





장려상

국립서울현충원장상

두고 온 꿈



김준휘 시흥시 송운중학교 3학년

날리는 휴먼지에 눈을 가리고
이제는 손에 익은 충을 들자니
어련히 찾아오는 것은 죽음의 두려움이나

발을 땀은 두고 온
평화 안고 돌아갈 꿈 때문이라

먼저 떠나가는 전우들의
군번줄을 움켜쥐고 “잘 가시게”

날 기다릴 가족에게도
편지를 고이 접어 “잘 지내게”

사랑하는 모두에게 전할
껴안고픈 마음 뿐이거니와

이 한 몸 떠나간대도
고된 몸은 꽃이 피는 하나의 거름일 테야

이 한 맘 이어간다면
누군가 기쁘게 나빌레라



장려상

국립서울현충원장상

현충원, 그곳에 잠든 고결한 희생을 되돌아보며



김나경 목동중학교 3학년

현충원. 이 세 마디에 불과한 단어는 내겐 너무 먼 이야기같이 느껴졌다. 내 가족들 중에는 국가유공자도 없었고, 현충원과 관련된 사람은 더더욱 없었기 때문이다. 내게 현충원은 존재는 알지만 단지 그뿐인 장소였다. 그랬기 때문에 이번 백일장이 현충원에서 열린다는 것은 그다지 인상 깊은 일이 아니었다. 장소가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백일장에 참가하기 위해 현충원에 오니, 나의 생각은 달라지지 않을 수 없었다.

백일장 접수를 하고 주위를 둘러보니, 수많은 비석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있었다. 국립묘지였다.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었다. 조국을 위해 순직하신 분들이 계시다는 생각에, 나는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었다. 묘지에는 가족분들께서 꽃고 가신 꽃들과 유물들이 놓여 있었다. 그중 한 묘지에는 시든 꽃들이 꽃혀 있었는데, 나는 문득 그 꽃들을 보며, 묘의 주인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이 국립묘지에 묻히기 전, 나처럼 살아계셨고 숨 쉬셨을 그분의 모습을. 잘 상상이 가지 않았다. 분명 그분께는 그런 삶이 있으셨을 텐데도, 나는 이를 생각해내기 어려워 했다. 다른 묘지를 보고도 마찬가지였다. 한 동생이 형에게 적은 편지를 읽으면서 나는 형의 모습을 상상해 보고자 노력하였으나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었다. 비석에 적힌 이름들이 한때 나같이 살아 숨 쉬었으리라고 생각하는 게 어려웠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종종 조국을 위해 희생정신을 발휘하는 분들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도 그분들의 인생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태도를 보이고는 한다. 분명 한때

그분들은 살아 숨 쉬는 인간이었음에도, 그분들의 업적과 희생 정신에 대해 이야기 하느라 이를 간과해 버리는 것이다. 그분들은 조국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시켰다. 분명 괴롭고 고통스러우셨을 텐데도, 후대들을 위해 스스로를 바치신 것이다.

무언가를 위해 희생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나는 책들을 사랑하지만, 나를 희생해서까지 읽을 정도로 사랑하지는 않는다. 진리는 옳지만, 목숨을 희생할 정도로 옳지는 않다. 갈릴레오는 살기 위해 진리를 그릇된 것으로 만들었다. ‘나를 희생시킬 정도로 중요한 것’은 애초에 거의 없다. 내가 아무리 옳은 것을 주장하더라도 내가 죽은 뒤에 그것이 인정된다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분들은 달랐다. 자신의 삶보다 조국의 발전이 더 큰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하신 것이다.

나는 과연 내게 무언갈 위해 희생할 기회가 왔을 때 내가 기꺼이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었다. 아마 그러지 못할 것이다.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러지 못할 것이다. 우리 모두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기에. 그 끝없는 공허를 두려워하는 인간들인 우리는 결코 쉽게 목숨을 버린다는 생각을 하기 힘들어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곳에 묻히신 분들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던지셨다.

나는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존경한다. 나 스스로도 꺼리고 걷기 힘들다고 여기는 길을 기꺼이 걸으며 자신이 보지 못할 미래를 위해 목숨을 내던지는 것이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또 경이롭다.

나라라는 대의를 위해 희생한 수많은 분들을 보며 나는 문득 내가 이 나라를 위해 할 수 있을 일들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중학생인 내가 이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소한, 나는 이곳에 잠드신 수많은 분들을 기억하며 평온을 빌어드릴 수 있고, 나중에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나 우리나라를 빛내는 인재가 될 수도 있다. 아직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자면 가능성이 무궁무진함을 뜻하기에 나는 내가 평화롭게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내 앞에 계셨던 수많은 분들의 희생 덕분임을 알고 있고, 이에 대해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비록 순국열사분들은 이곳에 잠드셨을지 언정 그분들의 희생정신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장려상

국립서울현충원장상

도달한 미래



황서정 정신여자중학교 3학년

쨍한 푸른빛의 하늘, 싱그러운 잔디, 머리를 잔잔하게 스쳐 지나가는 바람, 그리고 찬란한 빛을 내며 묵묵히 서 있는 비석들. 우리나라를 위해 자신의 젊음과 꿈을 포기한 채 눈을 감은 호국장병님들을 마주한 순간, 모순적이게도 내가 느낀 것은 맹렬한 생명력이었다.

어렸을 적부터 나는 유난히 역사에 관심이 많은 아이였다. 특히 근현대사 부분을 배울 때에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올라오는 감정을 느끼곤 했다. 나라를 지키다 순국하신 군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 한편이 시큰해졌다. 하지만 그때는 그들이 포기한 청춘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 내가 누리고 있는 평화가 얼마나 많은 분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알기에는 너무 어렸다.

유년 시절의 기억이다. 나쁜 햇살이 창 안으로 살금살금 기어들어 오던 어느 날이었다. 아버지께서는 거실 소파에 앉아 영화 ‘연평해전’을 보고 계셨다. 천진한 얼굴로 아버지께 다가갔다가 한창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던 장면을 목격해버린 나는, 무작정 겁에 질려 방으로 도망가기 바빴다. 커다란 총성 소리와 피를 흘리던 군인들의 모습. 너무나 생생하게 떠오르는 기억에 나는 한동안 잠 못 이루기 까지 했다.

그리고 최근 백일장을 준비하며 나는 그 영화를 다시 보게 되었다. 어렸을 적에는 마냥 무섭기만 했던 전투 장면이, 이제 내게 다른 감정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리고 그때 난 알게 되었다. 역사 공부를 할 때마다 울컥 올라오던 그 뜨거운 감정은 다름 아닌 ‘애국심’이었다고.

그들은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기 이전에 누군가에게는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가족이자 친구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오로지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바쳤다. 그들을 끝까지 싸웠고, 그렇게 그들은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해 주었다. 그들을 이토록 강하게 만든 것은 비단 애국심뿐만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직업적 신념과 책임감을 끝까지 지켜냈다. 이러한 신념과 책임감이야말로 그들이 온몸으로 지켜낸 오늘날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배워야 할 마음가짐일 것이다.

1950년, 지금으로부터 72년 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 흐른 현재의 세상에서 ‘전쟁’의 흔적은 대부분 사라진지 오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때 그 군인분들의 흔적조차 사라진 것은 아니다. 우리의 삶, 꿈, 그리고 지금의 평화로운 세상이 바로 그분들이 남기신 흔적일 것이다.

기억은 쉽게 잊혀지기 마련이다. 우리가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어릴 적 곁을 지켜주던 인형의 존재를 잊어버리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꿈이자 청춘이었던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그들의 숭고하고 벅찬 희생을 기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친구들과 뛰어노는 순간들은, 그 시절의 학도병들에게는 간절히 바라던 소망이었을 것이다. 또 우리가 미래의 꿈을 그리기 위해 한 발, 두 발 나아가는 순간 역시 수많은 청년병들에게는 끝내 이룰 수 없는 염원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매일을 그분들과 함께하고 있다.

부디, 우리가 먼 훗날 그분들을 만났을 때, 그 무엇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당당하게 고개 숙여 존경과 감사를 표할 수 있도록,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를 뜨겁게 살아가 보자. 우리의 평범한 오늘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했던 내일이었던 것을 늘 상기하며.



장려상

국립서울현충원장상

가을 속의 현충원



오민지 양주시 옥정고등학교 3학년

할머니의 손을 맞잡고 온 현충원에는 어느새 알록달록한 가을이 드리워져 있었다. 현충원을 뺨곡히 채우고 있는 나무의 바싹 마른 잎사귀는 끝자락부터 잘 익은 홍시 같은 주홍빛 물이 들기 시작했다. 나는 난생처음 온 현충원을 둘러보며 천천히 발걸음을 움직였다.

내 손을 꼭 잡고 있던 할머니는 쓸쓸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너희 엄마 어렸을 때 오고 처음이네... 작게 중얼거리는 할머니를 보니 어쩐지 가슴이 먹먹해졌다. 엄마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일 때문에 오지 못한 엄마의 얼굴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갔다. 나는 드넓게 펼쳐진 넓은 들판을 걸으며 붉은빛으로 물든 현충원 속으로 들어갔다. 지금 이 순간이 멈춘 것만 같은, 고요한 애국의 숨소리만이 남은 곳으로.

할머니는 어릴 적에 잘 따랐던 사촌오빠의 묘역을 찾기 위해 현충문 옆에 있는 사무소로 들어갔다. 나는 현충문 뒤에 있는 현충탑을 우러러보며 주변을 돌아다녔다. 현충문을 지키고 있는 두 명의 늙은 군인들을 지나고, 사람들이 걷는 산책길을 지나 복잡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걸었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 나는 이제야 생각이 난 할머니 때문에 문득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미 현충문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다. 나는 아차, 하는 마음에 왔던 길을 되돌아가며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현충문 위치를 물었다. 여기에 오는 사람들도 편안한 마음인 것인지 모두들 웃는 얼굴로 길을 안내해주었다. 다시 내가 있던 곳으로, 할머니가 있는 그곳으로.

할머니는 손에 호국영령의 이름 석자가 쓰인 종이를 들고 있었다. 김광연이라는 낯선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우리는 종이에 적힌 숫자를 따라 계속해서 걸었다. 예전 같았으면 진작에 힘들다며 투정을 부렸을 텐데 발에 차이는 낙엽의 사각거리는 웃음소리를 듣다 보니 전혀 힘들지 않았다.

나는 묘석들이 드넓게 펼쳐져 있는 어느 구역으로 향했다. “다 늙어서 찾아보네, 오빠.” 할머니의 물기로 젖은 목소리가 우리밖에 없는 빈 구역에 울려 퍼졌다. 나는 차마 겉으로 내뱉을 수 없는 말을 속으로 삼키며 인사를 보냈다. 나는 할머니에게 받아 손에 들고 있던 꽃다발을 묘석 앞에 조심스레 놓았다. 붉은빛들 사이에서 돋보이는 선명한 색이 묘역을 꾸며주었다. 오빠, 이제 종종 찾아올게. 우리는 짧은 묵념을 마치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 다시 정문을 향해 걸었다. 아까는 스쳐 지나갔던 충성 분수대가 노을에 젖어 태극기의 붉은 양기를 가득 머금고 있었다. “할머니, 나 지난번에 할아버지한테 경례 배웠다?” 나는 할머니의 의아한 표정을 바라보며 싱긋 웃고는 분수대를 향해 오른팔에 힘을 주고 이마께에 손바닥을 가져다 대 느림하게 충성을 했다. 가을빛에 젖어든 현충원을 바라보니, 나까지 양의 기운을 잔뜩 머금은 것 같았다. 아, 텔레비전에서 본 봄의 현충원도 좋지만 가을은 더 좋구나. 매 순간이 아름다운 현충원을, 이제는 더 자주 올 것 같다.



장려상

국립서울현충원장상

여름 현충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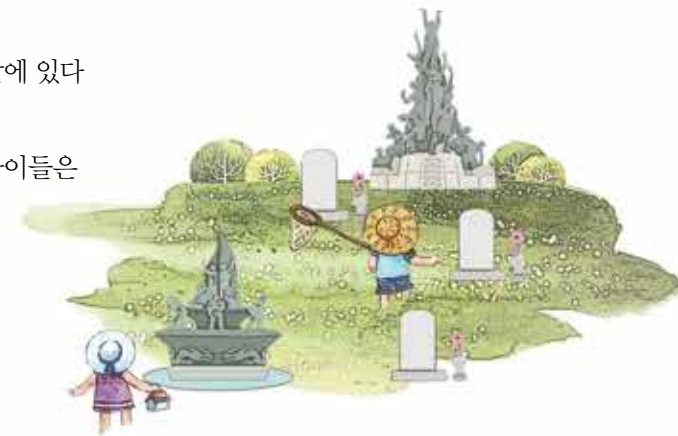


이예진 고양예술고등학교 3학년

하얀 손수건으로 비석 닦는 상상을 한다
손수건에는 아무것도 묻어나오지 않고
나는 땀을 흘리면서
뜨거워지는 돌의 마음에 대해,
끝나지 않는 비석들에 대해
집에 돌아가서도 생각하겠지

오래 걸으면 걸을수록 사람들은 사라진다
떨어진 목련잎처럼
이미 지나간 시간이 내 앞에 있다

거대한 목련 나무 아래 아이들은
계속 해맑게 뛰어다닌다
그걸 웃으며 바라보다가
등을 돌리면
순식간에 조용해진다
나는 이런 적막이 낯설다



그늘 밑에 서 있는 것처럼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나란히 줄 맞춰 지나가는 검은 옷의 사람들

발소리를 따라 향 냄새가 난다
모두가 약속된 것처럼 입을 다문다

현충원에 올 때마다 날씨가 좋다
비 내린 적 없는 곳 같다
아름다운 장면이 자꾸 생긴다
눈이 부서 눈을 감는다

기도해본 적 없지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은 걸까?
손을 모으고 비석처럼
가만히 멈춰 서서

영혼이 곁에 있는 것 같아, 내가 말하면
누군가 고개를 끄덕인다



장려상

국립서울현충원장상

시들지 않을 꽃, 타오를 불꽃



정서현 평촌고등학교 3학년

그날은 햇빛이 뜨겁고, 바람이 시원한 봄날이었다.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여의도가 아닌 현충원으로 향한 것은 좋은 선택이었다. 특히 어두운 지하철역을 나와 마주한, 햇빛에 반사되어 빛이 나는 새하얀 건물과 코를 감싸는 풀 내음이 좋은 선택이라는 확신이 들게 만들어주었다. 친구들을 따라 걸을 때마다 꽃이 흩날렸다. 떨어지는 꽃만 봐도 옷을 나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듯, 우리는 고민과 걱정을 잠시 잊은 채 그 시간에 젖었다.

우리는 온 김에 갈 수 있는 곳은 다 가보자는 목표를 가지고 묘역으로 향했다. 묘역은 넓었다. 그 넓음에 대한 첫 감정은 야속함과 슬픔이었다. 이곳은 품고 있는 우아함만큼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담겨있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무 말도 없이 자연스럽게 각자 원하는 곳을 걷기 시작했다. 혼자 천천히 또, 조심히 걸으며 그곳의 모든 것을 눈에 담는 시간을 가졌다. 바람에 의해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와, 발에 의해 으스스해지는 잔디의 비명과도 같은 소리만 존재하는 곳이었다. 나는 천천히 묘를 둘러보았다. 같은 모양, 같은 글씨체의 묘는 각자 다른 색을 가지고 있었다. 누렇게 빛이 바랜 사진이 놓인 묘, 빨간 꽃이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거리는 묘 그리고 시든 꽃이 있는 묘. 나는 시들어 갈색이 되어버린, 본래의 색을 잃어버린 꽃이 놓여있는 묘 앞에 멈춰 섰다.

뜨거운 태양 빛으로 인해 온몸에 열기와 땀이 달라붙고, 시원한 바람에 의해 떨어지기를 반복했다. 이 묘 때문인지 아니면 그저 더위와 마스크 때문인지

숨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뜨거운 숨이 마스크 위로 올라와 눈을 찔렀다. 눈이 시큰거렸지만 나는 그저 가만히 묘를 바라보았다. 시든 꽃은 바람에 힘없이 흔들렸지만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는 않았다. 굳건하고 단단하게 자리를 지켰다. 멀지 않은 곳에는 활짝 핀 꽃들이 화려하고 활기차게 춤을 추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나를 멈춰 세운 것은 묘 앞의 꽃이었다. 내 앞에서 이미 죽었음에도 자신의 모습을 잃지 않고 존재감을 뽐내고 있었다. 시들지 않는 죽은 꽃이라 표현하고 싶은 모습이었다. 친구가 묘역으로 오기 전 언젠가는 죽게 될 생화보다는, 죽지 않는 조화꽃을 묘 앞에 놓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이곳의 묘들은 죽은 꽃이든 살아있는 꽃이든, 흑여 꽃이 놓여있지 않는다 한들 중요하지 않았다. 무엇이 놓여있든 그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묘, 그곳의 주인이었다.

묘에는 이름과 간단한 이력만이 쓰여 있었다. 나는 이 순간과 감정을 기억하기 위해 그 글자를 읽고 또 읽었다. 문득 한 사람의 인생을 저 몇 줄로 파악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오기가 생겨 핸드폰을 들었다. 혹시 인터넷에 이름을 검색하면 정보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잠시 멈춰,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 놓았다. 이 묘는 충분히 찬란했다. 애써 찾아 기억하려 하지 않아도, 이곳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찬란했다. 나는 묘의 주인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인생을 살았든 간에 이 묘와 그 앞에서 있는 나, 그리고 꽃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묘는 반짝였다. 햇빛이 아닌 묘의 빛이었다. 파인 글자의 굴곡과 쌓인 먼지, 마른 잔디의 모든 것이 빛나고 있었다. 점점 더, 계속해서 찬란해지고 있었다. 나에게 묘역은 더이상 슬프기만 한 곳이 아니었다. 그들의 고귀한 희생과 나라를 지키기 위한 열망. 그 모든 것을 직접,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벅차올랐다. 평생 시들지 않을 죽은 꽃, 평생 타오를 뜨거운 불꽃이었다. 자신의 일생을 장작으로 사용하고 타오르게 한 투지와 호국정신의 불꽃은 영원할 것이라는 걸 그날 처음으로 느낄 수 있었다.

묘를 보기 전 안내판에서 보았던 문장이 입에 맴돌았다. ‘여기는 민족의 얼이 서린 곳’ 시든 꽃에서 향기가 나기 시작했다. 여전히, 영원히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 그 탄내가 정열적으로 묘를 감싼다.



장려상

국립서울현충원장상

비밀은 묻히고



김선정 고양예술고등학교 1학년

가난한 게 뭐가 자랑이라고. 독립유공자의 후손인 건 자랑이 맞지만 가난까지는 아니었다. 우리 반 조영우는 자신의 증조부가 독립유공자라며 아이들에게 자랑했다. 처음 그 사실을 알았을 땐 많이 놀랐다. 영우의 증조부는 나의 증조부의 이름을 알고 있을지도 몰랐다. 나 이영민의 증조부는 친일파였기 때문이다. 우리집은 꽤 잘 살았다. 대대로 내려오는 땅과 재산이 있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부족함 모르고 11년을 살았다.

반면에 영우는 우리집 보다 형편이 어려운 것이 한눈에 보였다. 며칠 내내 하나의 티를 입고 준비물의 완성도가 시원찮았다. 다 부러진 크레파스나 12색 중에 7색 밖에 남지 않은 색연필이 그랬다. 가족 발표시간 전까지는 그 애에 대해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다만 자신의 증조부에 대한 자랑을 일주일 내내 떠들고 다니기 시작할 때, 그리 좋지 않은 감정을 품었다. 내 증조부와 비교되었기 때문이다.

땀땀하지 못한 일을 한 증조부와는 다르게 그 애의 조상은 누군가의 우상이 될 수 있었다. 조금은 부럽다고도 생각했었다. 나도 그러한 조상이 있었더라면 삼 일 내내 자랑하고 다녔을 것이다. 그렇지만 축구를 하다 영우의 옷에 묻은 벌건 김치국물에 모든 생각이 달아났다. 흠 묻은 운동화도 그랬다. 3일 갈 자랑 보단 3년 입을 옷가지가 좋았다. 우리집의 부가 언제부터 축적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에 일조하셨을 증조부께 감사했다. 나는 명예보단 당장의 고급 간식들이 좋았다.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으로 현충원을 데려갔다. 우리 학년 아이들 모두 가는 일이었다. 내심 끌려왔다. 가서 감탄하는 게 조심스러울까였다. 멋진 일을

행한 이들을 보며 입을 헤 벌리고 감상하는 것이 증조부를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반면에 영우는 무척이나 신나 있었다. 버스 안에서 노래를 부르며 안전벨트를 풀었다 땀다가를 반복했다. 찰칵거리는 소리가 시끄러웠다. 같이 버스에 탄 아이들은 그새 칭찬하고 있었다. 3일짜리 자량은 점점 기한을 모르고 빠져갔다. 내심 졌다는 생각을 할 즈음에 버스가 멈췄다. 현충원에 도착한 것이었다. 더는 시끄러운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재빨리 내렸다. 잠시 후 선생님이 인원을 파악하자 본격적인 현장체험학습이 시작되었다.

일부러 영우를 피해 현충원 내부를 돌아다녔다. 곳곳에 무덤들이 펼쳐져 있었다. 비석 위에 새겨진 이름들과 수북히 쌓인 꽃들을 보자니 기가 죽었다. 날 질타하는 듯한 햇빛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몸을 쉬인 건물은 유품전시관이었다. 많은 아이들이 이곳에 있었다. 영우도 있었다. 영우는 헬멧을 보고 있었다. 학교나 버스에서 보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양 허리에 딱 붙인 팔과 조심히 벌어진 입술은 내가 알던 영우를 연상시키기 어려웠다. 침묵에 잠긴 모습에서도 두 눈만은 빛나고 있었다. 영우의 입꼬리는 스멀스멀 올라가고 있었다. 숨길 수 없는 뿌듯함과 자랑스러움이 천장등보다도 빛났다. 영우는 고개를 돌려 옆 전시 물품을 보려다 나를 발견하고는 반갑게 다가왔다. 그러더니 내 왼팔을 덥석 붙잡고선 전시 물품 앞에 섰다. 영우는 말했다. “이 헬멧 말이야. 정말 멋지지 않아? 우리 증조할아버지도 멋진 분이셨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 너희 증조할아버지도 대단하신 분이었겠지?”

그 말에 난 대답할 수 없었다. 증조부는 부를 물려주셨어도 명예는 물려주시지 못했다. 영우네 증조부가 밤낮으로 명예롭게 사셨을 때 나의 증조부는 밤낮으로 독립운동가들을 팔러 가셨을 것이다. 영우는 이곳에 거리낌 없이 묻힐수 있겠지만 나는 절대 그러지 못할 것이다.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한 마디가 새 운동화보다, 새 옷가지들보다, 새 크레파스보다 오래가는 것이었다.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씹었다. 현충원은 영영 불편한 곳으로 남을 것이다. 죽은 이와 과거는 돌아오지 않는다. 절대 비밀로 할 것이다. 내가 죽으면 이 비밀도 현충원에 묻히길 바랬다. 물질이 가난한 것보다 마음이 가난한 것이 훨씬 부끄러운 일이었다. 영우를 평생 부러워하고 질투하며 살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나의 후손에게 떳떳한 조상이 되고자 노력하며 살 것이다.



장려상

국립서울현충원장상

난 돌멩이가 좋아! -돌멩이에 깃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



이정아 서울시 도봉구

현충원 수양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어느 봄날, 당시 다섯 살 딸 아이를 데리고 벚꽃 축제를 보러 온 적이 있다. “승하야, 현충원에 꽃이 진짜 많다. 승하는 어떤 꽃이 제일 마음에 들어?” 각양각색의 꽃들을 냄새 맡는다며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놀고 있는 딸아이에게 물었다. 꽃들을 한참 바라보며 고민하다 갑자기 땅에 있던 표면이 매끈하고 동글동글한 작은 돌멩이를 하나 줍더니 아이가 말했다. “승하는 돌멩이가 제일 좋아!” 아이의 뜬금없는 대답에 우리 부부는 의아해하며 남편이 물었다. “왜? 승하는 꽃이 싫어?” “아니, 꽃은 약하니까 내가 보호해줘야잖아. 나랑 놀 수 있는 돌멩이가 더 좋아! 승하 집에 데려갈래.”

딸아이가 현충원에서 데려온 돌멩이는 지금도 아이 책상 한 칸에 친구처럼 놓여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지금, 우리 가족에게 현충원은 8년 전과는 조금 다른 슬픔으로 다가온다. 올해 3월, 국가유공자셨던 아버지가 향년 여든 한 살로 현충원 제2충혼당에 안장되셨기 때문이다. 베트남 참전용사인 아버지는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해 병상에서 생을 마감하셨다. 코로나로 병원 보호자 출입이 극히

제한되었을 때, 감사하게도 담당 교수님의 권한으로 주말 동안 가족과 집에서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아버지 방 의료용 침대 산소 호흡기에 의존한 채 가끔 의식이 오락가락하며 말쑥도 어눌하셨지만, 처음으로 베트남전 참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게 아버지와 마지막 대화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지만, 그래서 그런지 그날의 대화가 더 소중하게만 느껴진다.

“베트남에서 먹던 콜라가 얼마나 맛있었던지... 그 맛을 잊을 수 없어.”라며 운을 댄 아버지는 군 복무 시절 베트남에 직접 지원하셨다. 당시 참전용사의 월급이 대략 54달러. 50달러는 한국에 보내고 나머지로 생활하셨다고 한다. 공무원 월급의 두세 배에 달하는 큰 돈이었기에 형제들과 가족을 책임져야만 했던 젊은 시절 아버지께겐 필연적 선택이었을 것이다.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 하면서 박스에 고이 간직한 누이들과 주고받았던 편지들 속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본인을 희생해 온 아버지의 삶의 무게가 그대로 전해져 가슴이 먹먹해졌다.

부끄럽지만 그동안 나는 ‘순국선열’, ‘호국영령’, ‘호국보훈’이란 단어를 잘 몰랐다. 나라를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애국심 많은 먼 영웅들의 이야기 정도로만 체감하고 있었다. 그들이 진정 지키고 싶었던 건 무엇이였을까? 무엇을 위해 죽음을 걸 수 있는 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아버지의 삶에 들어가 아버지가 되어보니 답은 의외로 쉽게 얻을 수 있었다. 독립운동을 위해 항거 하다 순국한 ‘순국열사’나 전쟁터에 나가 나라를 지키고 돌아가신 ‘호국영령’의 아름다운 희생의 근간은 아마도 ‘사랑하는 우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나라를 빼앗긴 끔찍한 고통에서, 참혹한 전쟁의 불안 속에서 ‘사랑하는 내 부모, 형제, 자식’을 지켜내고,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애달프고 값진 희생’이란 것을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 본인의 욕망을 누르고 정신을 단련해 온 피나는 노력이 있었을 것이다. 때론 세월의 모진 풍파에 꺾이고, 또 패이고, 크고 작은 생채기가 남았겠지만, 사랑하는 이들을 생각하며 고통을 감수해냈을 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은 수세기를 거치며 더욱 단단해지고 견고해졌을 것이다. 마치 8년 전 딸아이가 이곳 현충원에서 가져온 작은 돌멩이처럼...



장려상

국립서울현충원장상

두 번째 할아버지



류지윤 대구시 수성구

나에게 6월은 꼭 의미를 담아 보내야 하는 달이다. 내 생일이 있는 1월만큼, 어찌면 그보다 더 6월을 손꼽아 기다린다. 지난해에는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분들을 기리는 뜻을 담아 수중촬영 사진을 남겼다. 올해는 네일아트로 내 열 손톱에 6월의 의미를 그리려 한다. 이렇게까지 6월을 내 여기저기에 흔적으로 새기는 것은 6·25전쟁에 참전하셨던 할아버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다.

할아버지는 살아계셨을 때 전쟁 이야기를 종종 해주셨다. 이야기를 하실 때, 할아버지는 시종일관 무뎌뎌한 표정이었다. 전우들과 나눴던 농담을 들려주실 때는 가끔 웃음도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전쟁과 거리가 먼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야기가 끝날 때 즈음에는 떨떠름한 걸 먹은 입 모양을 하고서 한참을 창밖만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방금 들은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라는 것이 다시금 와 닿고는 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훈장도 보여주세요!” 하면 할아버지는 서랍장 깊은 곳에서 상자를 꺼내어 나를 향해 무심히 내밀어 주셨다. 상자 안에 놓인 것은 나라에 바친 할아버지의 젊은 날이었다. 내가 당신의 과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동안, 할아버지는 내 머리에 손을 얹고 토닥여주셨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나의 가장 큰 자부심이고 자랑인 할아버지. 그런 나에게 두 번째 할아버지가 생겼다.

두 번째 할아버지를 처음 만났던 건 3년 전이었던 2019년 6월 25일. 할아버지

와의 인연을 이어준 건 국립서울현충원이었다. 국방부 대학생 서포터즈로 활동할 때라 국방·보훈 관련 행사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었고, 그해 여름 6·25전쟁 69주년을 맞아 펼쳐진 ‘임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기념행사를 취재하기 위해 국립서울현충원에 방문했다.

당시에 거의 모든 행사 프로그램에 참가했는데, 두 번째 할아버지를 만나게 된 건 1인 1묘소 돌봄 프로그램인 ‘온새미로 서약’이었다. ‘온새미로 서약’은 무연고자 묘역에서 한 분을 맡아, 해당 묘역을 청소하고 돌보기로 약속하는 봉사활동이다. 서약을 하면 봉사카드를 주시는데, 카드 뒷면에 묘역과 내가 맡은 분의 존함이 적혀 있었다. 설레는 마음 반, 괜스레 긴장되는 마음 반으로 현충원을 걸었다.

한 군데, 한 군데 돌면서 할아버지의 묘역을 찾아갔다.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추억 속의 사람을 찾으러 가던 장면이 떠올랐다. 할아버지의 작은 묘역 앞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다. 나는 할아버지가 궁금해졌다.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을까. 어떻게 생기셨을까. 일병 계급이시면 내 포래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할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어떻게 전사하시게 된 걸까. 마지막에 남기신 것은 뭘까. 사실은 이제껏 전혀 모르는 사이였으면서 잃어버린 가족을 뒤늦게 찾아온 사람이 된 것 같았다.

할아버지에게는 어떤 가족이 있었을까.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노심초사 하던 어머니가 계셨을까. 결혼을 일찍 하셨다면 사랑하는 아내도 있지 않았을까. 무연고자이신 것을 떠올리며 그것을 곱씹으니 가슴이 저릿해 왔다. 답을 알 수 없는 질문에 마음이 먹먹해지기도 했다. 내가 손녀가 되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두 번째 할아버지가 생기게 되었다.

그날, 해가 짙었던 오전 10시부터 여름밤의 풀냄새가 서늘하게 온몸을 훑던 늦은 10시까지, 나는 약 12시간을 현충원에서 보냈다. 앞으로 언제 또 현충원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 거기에 두 번째 할아버지까지 생기다니. 더없이 의미 있는 6월이었다. 그 후에 서울에 올 때면 종종 두 번째 할아버지를 뵈러 국립서울현충원에 들르곤 한다. 친할아버지는 국립영천호국원에, 두 번째 할아버지는 이곳. 국립서울현충원에 계시니 멋진 두 영웅에 나는 언제나 든든하고 뿌듯하다.



장려상

국립서울현충원장상

50년 전의 독립묘지



유수진 경기도 광주시

50여 년 만에 찾아온 독립묘지.

그렇다. 우리 세대에서는 이곳이 독립묘지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해져 있다. 흑석동에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이곳에서 해마다 열리는 현충일 기념식에 우리 학교가 초대되어 현충일 노래를 불렀었다. 단발머리에 단정한 춘추복을 입은 여학생 시절. 유가족에 둘러싸여 행사 정면에 앉아 모든 식순을 함께 할 때, 식순에 따라 대포 소리가 나면 여기저기에서 유가족들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고 우리는 목이 메이면서 노래를 불렀었다. ‘겨레와 나라 위해 목숨을 바치신 그 정성 영원히 조국을 지키네.’

70이 가까운 이 나이가 되도록 나는 이 노래를 기억하고 있다. 행사가 끝나면 가까운 친구들과 묘역을 둘러보기도 했다. 가끔은 또, 행사처럼 이곳에 풀이 무성해지는 여름이 되면 잡초를 뽑으러도 왔었다. 풀 뽑기는 안중에도 없는 듯 단축 수업하고 오는 길이 소풍 길처럼 재잘재잘 즐겁기만 했었다. 산책하듯 풀 몇 포기 손에 들고 깔깔대던 시절.

소녀였던 그 시절에서 50여 년의 강을 건너와서 나는 노인이 되어있다.

오자마자 앉을 자리를 찾아 주변을 살펴보니 작은 연못에 곱게 핀 연꽃이, 5월의 따가운 햇살이지만 간간이 불어주는 산들바람이 나를 환영하는 듯하다.

그때는 현충문 왼쪽에 강재구 소령의 동상이 서있던걸로 기억이 된다. 수류탄을 들고 달려가는 훈련 중 부하가 잘못 던진 수류탄을 달려가 엎어지며 끌어안고 돌아가신, 자신의 희생으로 많은 부하들의 생명을 구했던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그 당시의 미담으로 기억되고 있다. 지금은 어디로 옮기셨는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개회식 묵념을 하며 이곳에 계신 호국영령들에 대한 또 다른 느낌은 나이 들의 감성 때문만은 아니리라!

오랜 세월 여기 서서 영령들의 율타리가 되어준 저 나무들은 그 예전의 나무일 수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50여 년 전의 여학생을 할머니가 된 지금의 나인지 알아볼 수 있을까 하는 우스운 생각까지 해 본다.

이런저런 추억이 고여있는 현충원.

언젠가 한 번은 꼭 다시 와보고 싶던 버킷 리스트 중 한 곳이었는데 이렇게 오늘, 딸과 손녀딸 둘과 함께 이곳에 오게 되어 감회가 밀려오고 이런 시간을 갖게 되니 참 감사한 마음이 든다.

호국영령들의 영원한 안식을 기도하며, 좋고, 행복한 나들이로 오늘을 기억하게 될 것 같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작

국립서울현충원장상

마음이 경건해지는 곳, 현충원



이소연 수원시 다솔초등학교 5학년

‘호국문에 백일장’에 참가하기 위해 현충원에 가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다. 내가 차에서 깊게 자는 동안, 금세 현충원에 도착했다. 우리 자리에 앉아 주제 발표를 기다리는데, 심장박동 수가 분당 200번은 될 정도로 정말 떨렸다. 곧 주제가 발표되었지만, 쓸 내용이 잘 떠오르지 않아 현충원을 잠시 둘러보기로 했다. 나는 독립운동가분들의 묘를 보고 싶어 그쪽으로 향했다.

독립운동가분들의 묘소로 향하던 길, 전쟁 중 전사하신 분들의 묘지들을 보았다. 수많은 비석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를 지키시려다가 목숨 잃은 분들이 매우 많은 것 같았다. 발견된 시신만 해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데, 발견되지 못한 시신들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 어느 것보다 소중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려 나선 분들이 정말 존경스러웠다. 만약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면 나는 내 목숨을 부지하려 피난 가는데 급급했을 것이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니 전쟁으로 인해 전사하신 분들이 더욱 대단하게 느껴졌다.

전사자분들의 묘들을 한참 바라보고 있자니, 나도 모르게 마음이 경건해지는 것을 느꼈다. 궁금증도 생겼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참전하신 분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전쟁에 임하셨을까? 내가 생각하기엔, 아마 ‘이 전쟁에서 내가 죽는 것은 나라가 지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다짐하지 않았으셨을까?

현충원에 오니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생각됐다. 어느 나라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애국심이 많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번에 호국문에 백일장에 참가한 것은 경험만 쌓을 뿐만 아니라 교훈도 얻는 계기가 되었다. 교훈은 ‘매일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최선을 다해 생활하기!’ 앞으로 현충원에 자주 방문하여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겨야겠다.



가작

국립서울현충원장상

희생을 기리자, 현충원



김시훈 화성시 아인초등학교 5학년

‘현충! 충열을 높이 드러냄’이라고 사전에 쓰여 있다. 즉, 충성스러운 열사를 기리는 곳이 바로 여기 현충원이다.

나는 지금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의 정신이 가득한 곳에 앉아 있는 것이다.

토요일인데도 눈이 일찍 떠졌다. 어머니께서 어제 설명해 주신 백일장 대회 때문이다. 난생처음 방문해 보는 현충원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이 가득했다. 하지만 현충원이 어떤 곳인지 미리 알아본 나는 보다 차분한 마음가짐으로 단정한 옷을 골라 입고 집을 나섰다.

8시도 되지 않아 도착한 이곳 현충원에서 처음 마주한 것은 파란색 지붕이었다. 나도 모르게 “청와대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많은 비석을 보는 순간 현충원임을 알게 되었다. 사실, 비석들이 내 생각보다 볼품이 없어 아쉬웠다. 그런데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니 장군, 전직 대통령분들의 묘는 훨씬 크고 화려했다. 그래서 조금은 씁쓸했다. 분명 나라를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의 크기는 비교할 수 없을 텐데 말이다. 하지만 실망하기에는 일렀다. 셀 수 없이 많은 비석들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분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던질 만큼 사랑하고

아꼈다는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 마음을 생각하니 내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호국전시관과 유품전시관에서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다 희생하신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있었다.

어머니는 몇 분이나 알고 있냐고 물었고 난 손가락에 꼽을 만큼만 알고 있었다. 그래서 몹시도 부끄러웠다.

어머니는 영어 단어는 매일 외우지만 이분들에 대해서는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다며 한 분 한 분 성함을 읊어 보게 하였다.

초라한 옷차림, 낡은 무기를 든 그들이었지만 표정에서 보여지는 의지와 기개는 세상 최고로 단단해 보여서 나도 모르게 숙연해졌다. 한편으로는 나의 조상님이란 생각에 뿌듯하기도 했다. 전쟁이란 무엇이며 왜 일어날까? 남의 것에 욕심내지 않고 나의 것을 발전시키고 아끼면 전쟁도 안 일어나지 않을까?

이미 일어난 전쟁을 통해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 전쟁으로 인한 참혹함, 고통, 불행을 말이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종종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고.

이미 우리는 전쟁도 겪었고 나라를 빼앗기는 치욕도 겪었다. 때문에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늘 배우고 느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기에 이곳 현충원은 충분한 곳이다.

어머니는 사람도 국가도 지난 일로 평가를 받는다고 말씀하셨다. 현충지를 바라보며 미래의 나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궁금해진다.

역사에 남을 멋진 나로 기록되기 위해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기로 다짐해 본다.



가작

국립서울현충원장상

자랑스러운 국가 유공자



강동우 김포시 유현초등학교 5학년

외할머니댁 안방 한쪽에는 외할아버지의 영정 사진이 자리 잡고 있다. 그 사진 밑에는 외할아버지가 받으셨던 훈장과 국가유공자 증서와 함께 6.25 참전용사 모자가 놓여 있다.

어느 날 나는 외할머니께 여쭙어보았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참이 지났는데 왜 저 모자는 아직도 간직하세요?” 외할머니께서는 나의 물음에 묵묵히 가족 앨범을 꺼내시며 말씀하셨다.

외할머니께서 꺼내신 가족 앨범엔 외삼촌과 이모들의 결혼식 사진과 대학교 입·졸업 사진 등 우리 외갓집 식구들의 온갖 행사 사진이 있었는데 그 사진 속의 우리 할아버지는 어김없이 그 모자를 쓰고 계셨다.

그동안 가족 앨범을 무심코 봤었던 나는 순간 깨닫지 못했던 공통점을 알게 되었다.

집으로 돌아와서 우리 집에 보관된 나와 사촌들의 돌 사진과 백일 사진, 할아버지와 함께한 여행 갔던 사진을 본 나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 사진 속의 우리 할아버지는 어김없이 그 모자를 쓰고 계셨다.

‘왜? 우리 할아버지는 모든 사진에 그 모자를 쓰고 찍히셨을까?’

오늘날 내가 할아버지께서 왜 그러셨는지 그 마음을 전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할아버지께서 6·25 참전용사 이시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국가 유공자이심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누군가가 할아버지를 알아봐 주시길 바라시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

엄마와 이모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각종 행사에 할아버지가 그 모자를 쓰시는게 창피하기도 하셨다고 한다.

5학년이 된 나에게 요즘 역사 공부를 할 기회가 생겼다. 역사 공부를 하면서 나는 우리 할아버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얼마 전 삼일절을 맞아 TV 프로그램에서 방영하는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다. 6·25전쟁에 참전한 두 형제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전쟁에 참전하여 자신이 해야 할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되고 동생의 생존을 위해 충을 들며 영웅이 되기를 자처하게 되는 내용이었다.

그 영화를 보는 내내 긴장감과 두려움을 크게 느꼈다.

솔직히 나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순국선열’에 대한 의미를 잘 몰랐는데 지금의 난 조금이나마 알 것 같다. 우리 할아버지만 아니라 현충원에 묻히신 모든 분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롭게 누리며 권리를 찾고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 감사한 마음이 절로 들었다.

외할머니 말씀으로는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는 악몽과 같은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으셨다고 한다.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만 아니라 모든 전쟁 참전용사의 아픔이고 트라우마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

점점 갈수록 우리는 그분들의 감사함을 잊고 지금의 민주주의와 편안함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사는데, 그분들의 희생과 노력을 잊지 않고 진정한 나라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우리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편지를 쓰네요. 할아버지, 저는 이제 5학년이 되었고 엄마 배 속에 있었던 하영이는 벌써 어엿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되었어요. 지금의 나는 우리 할아버지가 너무나 자랑스럽고 왜 할아버지께서 사진마다 6.25 참전용사의 모자를 쓰고 찍으셨는지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아요. 그런 모자를 쓰고 남기신 할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감사함과 자랑스러움이 일어나네요. 할아버지께서 전쟁으로 겪으신 분단국가의 아픔과 평화 통일에 관한 공부를 하기 위해 저는 ‘통일부 어린이 기자’를 지원했어요. 1년 동안 공부 하면서 할아버지의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항상 우리 마음 속에 함께해 주세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 국립서울현충원은 우리 가족의 나들이이자 소풍지이다. 현충원에 올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정숙한 마음이 든다고 하지만 나는 할아버지의 품처럼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이 든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 까지 내 손을 잡아 주시던 할아버지의 손길과 미소가 생각난다. 이제 나는 지나가다 국가유공자 모자를 쓰신 할아버지를 뵈게 되면 우리 할아버지가 생각날 것 같다.





가작

국립서울현충원장상

현충원, 편안하게 숨 쉬는 곳



김승하 서울시 동북초등학교 6학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2개월. 할아버지를 보러 현충원에 오는 일도 많아졌다. 새파란 하늘, 맑은 공기, 각양각색의 꽃들과 나무까지. 늘 와도 질리지 않고, 늘 봐도 예쁘고, 갔다 와도 또 가고 싶은 곳이 바로 현충원인 것 같다. 현충원 경치를 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니, 머릿속 걱정거리와 고민거리는 저 멀리 날아가 버린다.

현충원의 풍경은 머릿속을 텅 비워 준다. 그 순간만큼은 불행한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고, 걱정이 많은 사람도 잠시나마 걱정을 잊게 해 준다. 고민거리가 많을 때 현충원의 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영감이 떠오른다. 이 아름다운 풍경과 경치는 피, 땀, 눈물 흘려 나라를 지켜주신 아름다운 호국영령분들께 어울리는 것 같다.

현충원의 묘지란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충원당까지 올라가면서 여러 묘비를 구경해 보았다. 이분들은 한때 누군가의 형제 또는 자매였으며, 어머니 또는 아버지였다.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였을 것이다. 아름답고 위대한 분들이지만 전쟁에서 가족을 잃었을 때, 가족들의 슬픔과 절망이 짐작이 안 갔다. 호국영령

분들은 살아생전에 나라를 지키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돌아가시고 나서라도 편히 쉬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현충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충원을 계속 둘러보니 현충원에는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것 같았다.

아름다운 나무, 꽃, 글도 예술적이고 아름다웠지만 이 감상도 호국영령들과 함께하는 것 같아 더욱 뜻깊었다. 호국영령들의 피는 강이 되어 흐르고 있고, 그들의 얼은 지금 우리의 정신이 되었다. 그들의 혼은 우리의 미소와 행복이 되었다. 그들의 행동과 정신 덕분에 대한민국의 내일이 탄생할 수 있었다.

우리는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그들의 도전 정신과 애국심은 지금까지 한마음, 한곳에 자리 잡아,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더 오래 달리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 호국영령분들은 이 땅의 젊음이자 희망, 수호자였다. 이런 영웅들을 기리기 위해 현충원이 탄생했고, 우리는 이 현충원을 잘 보존하고, 기억하며 감사를 전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작

국립서울현충원장상

6·25전쟁에서 싸워주신 분들에게



함소은 고양시 오마초등학교 4학년

안녕하세요. 열심히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워주신 군인 여러분들! 먼저 나라를 위해 싸워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6·25전쟁에서 전사하신 분들의 묘를 보고 원래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묘를 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싸워주시고 지켜주신 분들이 있어 제가 이 나라에 살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묘를 둘러보며 어떤 24살에 돌아가신 분이 기억에 남는데 정말 어린 나이에 전쟁으로 돌아가신 게 너무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정말 몇십 년을 더 사실 수 있는 나이인데 꽃다운 인생을 오직 나라를 위해 바쳐주셔서 감사하고 그 외에도 젊은 나이에 전쟁으로 돌아가신 분들께 정말 존경하고, 나라를 위한 정신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6·25전쟁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묘를 보며 최근에나 그렇게 멀지 않은 과거에 돌아가신 분들은 꽃다발, 상장, 편지 같은 물건들이 있지만 6·25전쟁으로 사망하신 분들은 그런 것이 없어서 점점 잊혀가는 것 같아서 속상했습니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많은 분들보다 우리는 평소에 위인을 생각한다면 세종대왕,

이순신, 유관순, 안중근, 김구 같은 유명히 알려진 분들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물론 다른 위인들께서도 대단하지만 6·25전쟁에서 전사하시고 싸워주신 분들도 생각하고 더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만약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면 나라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은 있지만 무섭고 두려워서 그렇게 싸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6·25전쟁에서 싸워주신 군인분들은 진짜 위대하고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정말 묘지가 너무 많아서 놀랐고 말로만 듣던 몇백만 명이 돌아가셨다는 걸 눈으로 보니 정말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사실상 우리나라는 북한과 언제 전쟁을 할지 모르는 시한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하루 빨리 전쟁을 하지 않고 북한과 화해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전쟁을 하면 마치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생길 것만 같이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6·25전쟁에서 싸워주시고 나라를 지켜주신 군인 여러분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있기에 제가 살아있고 이 나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저도 위대한 사람이 될 것 입니다!





가작

국립서울현충원장상

새로운 깨달음과 나의 다짐



온서은 서울언주초등학교 4학년

아빠와 동생과 함께 현충원에 왔다. 나는 현충원에 처음와 봐 많이 낯설고 어색했다.

처음으로 나는 묘지에 갔다. 묘지에는 수 많은 비석들이 있었다. 다 둘러 보지는 못 했지만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걸 알 수 있었다. 6·25전쟁 때 돌아가신 분, 베트남 전쟁 때 돌아가신 분 등 수많은 호국영령들이 잠들어 계신다. 다음으로 나는 유품 전시관에 갔다. 나는 화살머리고지에서 출토된 시계, 안경, 만년필과 반지가 기억에 남는다. 그 중에서도 반지가 더 기억에 남는다. 이 반지를 잃어버린 사람도 아내가 있을 텐데. 그의 배우자는 얼마나 슬플까?

마지막으로 나는 호국전시관에 갔다. 그곳에서 나는 유관순의 행동이 가장 인상 깊었다. 나는 나를 우선으로 생각했지만 유관순은 나라를 우선으로 생각했다. 유관순은 독립을 위해 애쓰고,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다. 아무리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도 그렇게는 못할 것이다. 19살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죽음을 택한 유관순이 안쓰러운 동시에 존경스럽다.

나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없겠지만, 사소한 일부터 시작할 것이다. 예를 들어 쓰레기 줍는 일, 쓰레기 무단투기하지 않기 등이 있다. 이런 사소한 것으로도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



가작

국립서울현충원장상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김민채 의왕초등학교 5학년

나는 이번 호국문에 백일장 대회를 계기로 국립서울현충원에 처음 왔다.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호국영령분들께서 안장되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와보니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6월 6일 현충일은 내게는 조금 생소한 날이었다. 얼굴도 이름도 알지 못하는 분들께 묵념을 하라고 하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던 기억이 난다. 나는 매년 6월 6일 10시에 안내방송이 울리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령분들께 잠시나마 감사 인사를 드렸다. 현충원에 도착해 주변을 둘러보던 중 묘역을 찾아갔다.

오늘이 6월 6일 현충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호국영령분들께 묵념을 드렸다. 집에서 하던 것과는 달리 직접 호국영령분들께 묵념을 올리는 일은 감회가 새로웠다. 호국영령분들께서 내 감사 인사를 고마워 해주시는 것 같았다.

내 주변에는 국가유공자분들이 안 계신다. 하지만 외증조할아버지께서는 6.25전쟁에 참전하셨다. 다행히도 외증조할아버지께서는 건강하게 돌아오셨다. 나는 할머니께 이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난다. 내가 어렸을 때는 전쟁이라는 단어도 조금 무서웠고, 전쟁에 참전하면 모든 사람이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아

서 돌아오는 사람도 있다고 해서 충격을 받았었다. 나는 아쉽게도 외증조할아버지를 뵈는 적이 없다. 외증조할아버지께서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다. 만약 외증조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실감나는 6·25전쟁 이야기도 들어보고,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여러 호국영령분들의 이야기를 알 수 있었을 것 같다.

외증조할아버지께서는 외증조할머니를 남기고 전쟁에 참전하셨다. 외증조할머니께서는 12명이라는 많은 자식들이 있는데 혼자서 외증조할아버지를 기다리며 자식을 돌보아 했을 외증조할머니는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흐를 것만 같은 기분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증조할머니는 외증조할아버지를 다시 만나셨고, 100세가 넘으신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살아계신다. 외증조할머니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다. 매일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우울한 생각만 했었다면 외증조할머니는 이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셨을 것이다.

현충원을 둘러보고 든 생각은, 다른 호국영령분들도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다. 외증조할머니, 외증조할아버지와는 다른 더 가슴 아프고 절절하고 읽기만 해도 눈물이 차오르는 이야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니 흥분이 된다.

내 꿈은 작가다. 만약 내가 작가가 된다면 호국영령분들의 유가족을 찾아가 여러 가슴 아픈 사연들을 듣고 위로해 드리고 싶다. 여러 가지 사연들을 담은 책을 쓰고 싶다. 그리고 하나 더, 내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직까지 호국영령분들을 위한 복지가 많이 없는 것 같다. 내가 작가가 되어서 쓴 책을 사람들이 읽고 책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호국영령분들의 후손을 위해 기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외증조할머니처럼 앞으로 시련이 와도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지내야겠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6·25전쟁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한분 한분께 마음을 다해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라고 크게 외쳐본다.



가작

국립서울현충원장상

발자국



이유빈 경기 광주시 신현중학교 2학년

처음 왔을 땐 전형적인 산문의 주제, 즉 키워드 같은 형식을 기대하고 갔는데, 주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도 달라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이미 원고지를 받고 이 자리에 앉은 만큼 열심히 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곤 돛자리에서 몸을 일으켜 걸어 나갔다.

의도치 않게 밟아버린 태극기에 내 발자국이 찍혔다. 뭐지? 누구 거지? 재빠르게 발자국이 찍힌 태극기를 잡고 일어나자, 하늘이 붉어졌다. 이곳이 소설이었다면 분명 신이 노하셨다는 문장이 나열됐을 것만 같아.

수많은 묘지가 보였다. 각각의 묘엔 예쁘고 시들지 않은 꽃들이 최소 한 다발씩 놓여 있었다.

참으로 참담하게 느껴졌다.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말을 내뱉는다면, 분명 ‘재미없는 놈.’이라는 혹평을 받을 것이 뻔했다. 나는, 우리는 알아야 했다. 묘지는 눈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지만 내가 아는 인물들은 채 10명도 되지 않을 것이다.

저 수많은 오늘날 우리들을 자유롭게 살게 해준 인물들을 우린 모른다.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희생했을 것이다. 세상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 하지만

나는 말로만 들었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는 건 몰랐다. 나는 어리숙했지만, 우리에게 진실된 역사를 전달해줘야 할 역사 교과서엔 특정한 사람들만 나왔고, 우리는 그 사람들만 기억하기 시작했다. 그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 더 많이 외쳤다? 목소리가 작아도 나선 모든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거리를 나갔다. 이 기준은 아니다.

더욱 심한 고문을 받았다? 고문을 받고도 입을 열지 않았다? 아니, 잡힌 사람들은 수백이었을 것이고 고문을 받고도 입을 열지 않은 사람들 또한 수십이었을 텐데. 어째서 우리들은 일부만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일까.

그 사람들의 기록만 남아있어서 도통 답을 내지 못했다. 대신 묘지 근처 꽃혀 있는 꽃병을 바라보았다. ‘시체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을 텐데.’ 같은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나는 가만히 멈춰 묘지들을 천천히 보고 있건만, 사람들은 날 두고 훌훌 지나갔다. 가끔 이럴 때마다 더 오래 있고 싶지만 눈치가 보여 나도 돌아가곤 했었다. 오늘도 돌아가려 했건만 쉽게 몸이 돌아가지 않았다. 다 보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테지만 이미 시작한 이상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고 싶었다. 몸이 기울여진 자세를 취하며, 바닥에 연한 발자국이 남았다.

나는 그제야 몸을 돌렸고 가는 길마다 몸의 무게를 실어 발자국을 남겼다. 내 나름대로의 방식이었다. 하나하나 살피는 것을 관두고, 묘지 하나하나의 앞에 발자국을 남기기 시작한 것이다. 묘지 하나 빠짐없이.

누가 보면 웬 발자국이야? 같이 생각을 하겠지만 나는 달랐다. 내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의 묘 앞에도 발자국을 남겼다. ‘나는 당신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 발자국이 남았던 잔디가, 이 자리가, 이 당신들이 지킨 대한민국이라는 자랑스러운 나라가. 지도상에서, 우주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은. 당신들과 같이 당신의 앞에 남겨진 이 진한 발자국처럼 나는 항상 진하게 걸음걸이를 내딛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했던 것처럼.’

내가 남겨둔 이 현충원 안에 남겨진 얼마 지나지 않아 지워질 발자국처럼. 하지만 발자국을 남겼다는 그 사라지지 않을 한 사실처럼.

이미 잊혀진 당신들과 시간이 흐를수록 잊혀갈 당신과 너무도 유명해 쉽게 잊히지 않을 당신까지도 모두 외우진 못 하겠지만 최소한 있었다. 많았다. 라는

적은 3글자일지라도.

바닥과 신발이 있는 한 영원토록 탄생할 수많은 사람들의 발자국이 그날의 당신들에게 힘이 되고, 지켜주고, 또는 든든한 방패가, 망설이는 이들을 대신해 첫 발을 내딛어 바닥에 처음으로 부딪힐 첫발이 돼줄지이니.

“...다 찍었다.”

벌써 처음으로 찍은 발자국은 사라진 지 오래지만 내 입꼬리는 위로 슬며시 올라갔다.

끝에 도달하자 보이는 태극기에 목례를 올렸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목례를 했는지는 잊어버렸다. 그래도 기분은 좋았다.

“헉 벌써 시간이...”

묘지가 많아서 그런지 시간도 꽤나 걸렸다.

진짜 돌아가기 위해 발을 내딛었다. 종이였다. 또 종이를 밟은 것이다. 이번엔 태극기를 밟지 않아 다행이다 생각할 무렵 종이를 뒤집으니 내 발자국이 찍힌 태극기가 보였다.

이번에도, 였다. 마치 내게 어서 와. 잘 가. 라고 두 번 인사해 준 것 같았다. 수많은 묘지들이 있는 곳을 벗어나고 고개를 돌려 인사했다.

내게 인사해 준 태극기와 같이. 그 태극기에 찍힌 내 발자국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걸어갔다. 바람이 시원했다.





가작

국립서울현충원장상

나는 애국자인가?



이주형 안산시 하나대안학교 3학년

헐레벌떡 뛰어와서 신청자 접수를 한 나는 에코백을 받았다. 에코백을 열어 보니 그 안에는 슈크림 빵과 오렌지 주스가 들어 있었다. 자리를 잡고 앉아서 빵을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우리나라를 위해 싸우신 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내가 이렇게 맛있는 간식을 먹을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들었다. 이 의문에 대해 그렇다는 확신이 서고 나서야 빵을 먹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내 웃음이 터졌다. 왜냐하면,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솔직히 수많은 분들의 나라를 위한 희생이 뻗속까지 느껴지지 않는다는. 이런 내가 그저 부끄러울 따름이다. 일상을 살다 보면 순국자 분들의 희생보다는 지금 해야 하는 나의 공부, 휴식이 내 마음을 더 울릴 때가 부지기수이다.

그래서 나는 죄송한 마음밖에 들지 않았다. 감사함과 죄송함을 마음에 품고 묘지를 둘러보던 나는 애국심에 대해 생각했다. 애국심의 사전적 정의는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 사랑의 마음을 투쟁과 싸움으로 보여 주신 분들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니 괜스레 긴장되기도 했다. 또한 먼 과거부터 필사적으로 우리나라를 지켜오신 분들의 피가 내 안에도 흐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자랑스럽다는 생각도 들었다. 많은 책과 영상 속에서 보았던 여러 위인

들과 무명의 투사들이 내 눈앞에, 내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에 잠들어 계신다는 사실이 큰 축복임을 깨닫게 된 시간이었다. 아까와는 확연히 달라진 생각을 가지고 돌아온 뒤 글을 쓰기 시작한 나는 오로지 내가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었다. 솔직히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죽을 용기는 들지 않았다. 그저 내 자리, 학생이라는 내 본분으로 어떻게 애국을 실천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어른이 되어 나라를 위해 일하라고 이야기 하지만 나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선대께서 물려주신 아름다운 이 나라를 아끼는 것이 애국이 아닐까 싶다. 학생이자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학습에 최선을 다하며 나라를 위한 희생들을 기억할 것이다.

또한, 호국영령들께서 웃으실 수 있도록 자유로운 이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자유롭게 누리고 일 년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순국자들을 기억하며 기리는 행사에 참여해서 감사한 마음을 다시 곱씹을 것이다. 나도 이 순간부터 애국자가 될 것이다.

“호국영령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가작

국립서울현충원장상

현충원과의 첫 만남



조아란 천안동중학교 2학년

3년이다. 전염병으로 지쳐간 지 3년이나 되었다. 3년의 기다림으로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는 중이다. 짧지만 긴 시간 동안 가고 싶은 곳을 가지 못했고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했다. 나에게는 서울 현충원이 그런 곳이었다.

내 고향은 대구이다. 태어나서 고향을 벗어난 적이 없었다. 서울 현충원은 너무나도 먼 곳이라 생각했었다. 2년 전 나는 천안으로 이사 왔다. 이사를 오고 가장 좋은 점은 독립기념관, 서울 현충원, 서대문형무소가 가까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염병 때문에 쉽사리 가지 못했고 여러 대회들도 비대면으로 치러졌다. 이번 서울 현충원 대회가 현장에서 한다는 소식에 설레는 마음으로 날짜를 세어갔다.

새벽에 눈이 떠졌다. 현충원에 가는 날이다. 주말이면 밀린 잠을 자곤 했는데 눈이 저절로 떠지는 것이 신기했다. 그리고 설레었다.

조금 일찍 도착하여 호국전시관과 유품전시관을 둘러보았다. 역시 내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입구에 들어선 순간 내 마음은 뜨거워졌고 내 시간은 빨라졌다.

‘내 뜻은 다 이루었으니 죽어도 한이 없다.’

이곳에서 현충원 관람을 이루어서 그런지 그 문구가 마음에 들어왔다.

현충원의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된 것 같았다. 현충일 제정보다 빠른 현충원의 건립이 현충원의 역사를 보여 주는 듯했다.

꼭 가보고 싶던 무후선열제단, 작년부터 관심 있는 곳이었다. 유해를 찾지 못해 마음이 아팠고 내가 그들의 후손이 되리라 마음을 먹었었다.

위패들은 볼 때마다 마음이 시리다. 저렇게 많은 위패가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켰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감사하고 죄송하다.

여러 역사가 있지만 일제 강점기가 제일 힘든 것 같다. 식민지라는 이름 아래 침습만도 못한 삶을 산 우리 민족에게 독립운동가가 한 줄기 빛이 아니었을까.

부끄러움이 생겼다. 일제 강점기보다 한국전쟁에 대해서는 처음 알게 된 사실이 많았다.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한다는 것은 후손에게도 힘든 일인 것 같다. 얼마 전 청해부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다. 그때 공부했던 손원일 제독이 눈에 들어왔다. 해군의 첫 전투함인 백두산함의 사진을 한참을 바라보았다.

대한해협 해전에서 눈부신 승리의 주인공인 백두산함은 굳건한 모습 그대로 역사에 남아 있었다.

밝은 태양 아래 푸른 묘역을 보니 많은 분들이 이 나라를 사랑했구나 생각되었다. 난 아직 부족하구나 이들과 나라를 사랑할 수 있을까?

오늘은 아쉽지만 모든 곳을 둘러보지 못할 것 같다. 내 생각보다 넓고 깊은 곳이었다. 나의 첫 번째 현충원 방문은 나의 부족함을 느끼게 해 주었다. 따가운 햇살이 쏟아지는 7월이 되면 여름 방학이 시작된다. 이번 여름 방학이 되면 조금은 자유로운 분위기로 현충원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서울 현충원은 나의 발길을 잡아당긴다. 오늘은 아쉬워하지 않으려고 한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충원과의 만남은 계속되어야 할 것 같다. 7월에 다시 만나자. 그때는 나에게 더 많은 나라 사랑을 가르쳐줘.



가작

국립서울현충원장상

깊은 마음 속



정준호 한일고등학교 3학년

파란 하늘은 그 무엇보다 순결하다. 그 순결한 하늘에 호국영령이 되신 국가유공자분들께 이 편지를 전해드립니다. 저는 누구보다 호국영령이 되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학생입니다. 백일장에 와서 감사한 분들께 마음을 전할 좋은 기회가 생겨서 영광입니다. 먼저 이번 현충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나선 분들을 다시 한 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거창군 신원면 한 마을에 계시던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바로 저의 친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는 재작년 구순을 맞이하시고 하늘로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는 전쟁 때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던 군인이셨어요. 이 덕분에 명예로운 국가유공자가 되셨습니다. 이런 할아버지가 늘 자랑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무뚝뚝하시고 단단하셨습니다. 명절에 할아버지 댁에 가면 할아버지는 혼자서 우리 가족을 맞아 주셨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 할아버지는 습관처럼 소주병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술병에 많은 것이 들어 있는 것 같았어요.

하늘에는 보름달이 높게 떠 있었어요. 나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앉아 있는 마당으로 따라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왼손을 가슴에 올리고 한 손으로는 소주병을 꼭 잡으셨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자그마한 소주잔을 채우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소주를 마시기 전에 꼭 복분자 액기스를 그 안에 넣어서 섞어 드셨어요. 보통 어른들이 술을 들이키면 탄산음료 먹은 것처럼 목이 따가운지 ‘까.’ 하는 소리를 내며 얼굴을 찌푸립니다. 할아버지는 다르셨어요. 소주 한잔을 단숨에 들이키고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셨어요. 한 잔 한 잔 소주잔이 채워지고 비우고를 반복하면 할아버지의 얼굴은 곧 터져버릴 듯이 달아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술에 취하면 전쟁 때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무뚝뚝한 평소 할아버지에게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였죠. 할아버지는 성인이 되기도 전 지금 저와 같은 나이에 나라를 지키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1952년 작전을 펼치던 도중에 중공군에 잡혀 포로로 끌려가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포로였던 그 시절 이야기를 꺼내시며 많은 게 맺힌 듯한 눈물을 보이셨어요. 그 눈물에 가슴 속에 차 있던 것들이 들끓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뒤로 국가유공자분들께 더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를 위해 싸워주셔서. 지금 사는 세상에 기틀을 마련해 주셔서. 저의 친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국립산청호국원으로 가셨어요. 할아버지를 뵈러 산길을 달려 호국원에 갔을 때, 그곳에 안치된 수많은 영혼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앞에 국화꽃 한 송이를 두고 할아버지를 생각했어요. 그러던 도중 유골함 옆에 빛이 나는 명패를 보았습니다. 국가유공자임을 인정합니다. 성명 정경술. 호국원으로 세차게 불어오는 상긋한 산바람을 맞으며 한참을 생각했어요. 할아버지를 비롯한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해서. 아직 세상이 알지 못하는 유공자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나라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호국영령이 되신 국가유공자분들이 생각납니다. 같은 서울이지만 현충원에 오면 더 순결한 공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새파란 하늘에서 바람이 불어와 현충원에 있는 모든 나뭇가지를 흔듭니다. 현충원 가장 별이 잘 드는 곳에 계신 국가유공자분들도 이 선한 바람을 같이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매일은 아니더라도 모두가 현충일이 되면 더욱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목숨 바쳐 지켜주신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잘살고 있는게 맞나 생각이 듭니다. 할아버지가 계신 호국원에도 자주 가고 싶습니다. 할아버지뿐 아니라 다른 국가유공자 분들께도 자주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집과 가까운 현충원에도 자주 오려구요.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항상 하늘에서 우리를 밝게 비추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살아계신 유공자분들은 오래오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속 깊이 품어두겠습니다.



가작

국립서울현충원장상

둥지



김민지 고양예술고등학교 3학년

그늘이 짙아진다

내가 햇볕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된다

나는 녹아내리는

뺨을 손으로 밀어 올리며

더위를 낮추고 있는데

태양을 향해 달려드는 사람이 있다
온몸으로 힘껏 태양을 끌어안는다.

몸이 녹는 것을 멈춘다

고요한 세상 속

새의 깃털이 어딘가로 날아가는 풍경

지켜본다

순간 하늘을 뒤덮는 깃털들

희미한 얼굴 같다.

굴 속으로

하얗게 떨어지는 몸

서로의 손을 맞잡고

마지막처럼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눈동자

태양을 품고 있었다

녹아내리는 사람들

“누가 이 더위를 멈추게 한 거야?”

나는 녹고 굳어서

더 단단해진 손가락으로

오르는 목소리를 불러내고 싶다

끊임없이 그들을 호명하며

당도한 낯선 길

둥지를 발견할 것이다.



가작

국립서울현충원장상

기억한다는 것



홍성철 대일고등학교 1학년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학생인 홍성철입니다.

오늘 현충원 묘역을 참배하면서 호국영령분들의 묘를 보게 되었습니다. 젊고 꽃다운 나이에 전쟁이 발발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그 한 몸 기꺼이 바치신 호국영령분들의 헌신은 숭고한 정신이 되어,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을 지키는 근간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국영령분들이 지키신 나라는 수많은 생명을 탄생시키고 민족문화를 창달 하였으며,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들 덕에 오늘도 우리 국민들의 삶은 바쁘고 건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역사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전쟁사와 대한 민국 근현대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6·25전쟁 공부에 열중을 다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6·25전쟁이 얼마나 수세에 몰렸었던 전투의 향연이 었는지, 그곳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나날들을 보내셨던 그 착잡한 마음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지금보다 더욱 어렸을 땐, 사건 중심으로 사실만을 습득하며 공부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부터는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 하면서 감회가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라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시고

광복을 맞이하여 만세를 외치시다가 알지도 못하는 연유로 가족과 생이별 하시게 된 그 사연을 들으면 절로 숙연해집니다. 이제는 유족분들이 놓아주는 꽃 한 다발, 해가 지나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현충원의 따사로운 봄별 만이 유일한 낙으로 남아 있겠지만 항상 여러분들을 존경하며 살아가는 한 학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저의 몸은 또다시 일상을 보내겠지만, 가슴 속에는 항상 호국영령분들이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호국영령분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장래희망입니다. 정치인이 되어서 국가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저는 제 조국을 사랑하지만 사랑해서인지, 조국의 갖은 문제점 또한 보였습니다. 반드시 제 인생의 목표를 달성해서 호국영령 분들께서 목숨 걸고 지키신 나라를 수호하고, 더욱 자랑스럽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미 너무 대단하고 어려운 일들을 도맡으셨기 때문에 더 부탁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다만 그저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 국민들의 삶과 국가의 성장을 지켜봐 주십시오.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현충원의 개나리와 소나무, 벚꽃과 햇빛, 연못과 녹음, 흰 눈송이는 모두 여러분들과 함께였기에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영원토록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작

국립서울현충원장상

현충원의 꽃



이한결 선일여자고등학교 3학년

선선한 바람 부는
현충원의 묘역
꽃병에 고이 담긴 꽃들이
나란히 놓였다

얼굴도 모르는 후손들 위해
그들이 흘린 피처럼
붉게 터져 나올 때마다
더욱 뜨겁게 솟구쳤을 가슴속 열기

분홍 꽃잎의 중심에서 뻗어 나오던
무궁화의 붉은 핏줄을 떠올리며
자신이 가진 마지막 꽃을
피우려 했을까

태워지지 않으려 품속 깊이 심어둔 우리나라의 꽃을
안에 깃든 호국의 정신을
보여주려 했겠지



작은 들꽃을 짓밟듯
우리의 자유와 미래를
짓밟으려 하는 그들에게

나 아직 숨 쉬고 있노라고
죽어도 피어날 꽃들이 남아 있으니
조국은 죽지 않았노라고

마지막 순간까지 당당했던
그들의 묘 앞에서
꽃은 지지 않는다

꽃병에 고인 꽃들이
나란히 잠들어 있는
현충원의 묘역

지는 순간마저 붉었던
그들의 넋을 위로하듯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다



가작

국립서울현충원장상

부서지는 햇살 아래, 이회영 선생님께



강지민 고양예술고등학교 3학년

이회영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학생이에요.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아요. 오늘 현충원은 공원처럼 푸르고 평온해요. 선생님이 꿈꾸셨을 평온과 평안이 이곳에 잔뜩이에요. 이런 날에 선생님께 편지를 쓰게 되어 기뻐요.

제가 신흥무관학교에 대해 처음 알게 된 건 몇 년 전 뮤지컬을 통해서였어요. 그 뮤지컬을 여러 번 보았는데 선생님 역할을 맡은 배우가 형제를 끌고 나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때마다 마음이 벅찼어요. 그런 느낌은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마음이 건잡을 수 없이 커지는 기분. 너무 벌렁거리고 뜨거워서 아픈 것 같은 기분. 그건 애국심이었을까요? 아님 선생님에 대한 저의 동경이었을까요.

요즘 독립운동에 대해 배우고 있는데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자신을 던질 수 있을까. 다른 것도 아니고 나의 전부인 나를, 어떻게 던지고 희생할 수 있는 걸까. 어떻게 세계가 나의 위에 있고 세계가 나보다 우선일 수 있는 걸까. 저는 제가 저의 세계보다 우선인 것 같거든요. 마음이 힘들면 저를 둘러싼 세계로부터 도망치곤 해요.

그런데 선생님은, 선생님의 서간도에서 자란 독립군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게 신기해요. 만약 저도 신흥무관학교에서 자랐다면 더 큰 세상을, 미래를 내다

보고 몸을 던지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학교에서 자라난 마음들이 정말 신기해요. 굳건하고 끝은, 의지로 똥똥 둘러싸인 마음들. 그들이 자라는 것을 보던 선생님은 어떤 기분이셨을지도 궁금해요. 저는 요즘 ‘선생님’이란 존재에 대해 생각해요. 존재만으로 위안이 되고 안정을 주는 존재. 나를 살게도, 버티게도 하는 존재. 선생님도 그들에게 그런 존재였을 것 같아요. 저도 선생님이 내다보신 세상의 크기를 가늠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더 중요한 것, 더 우선인 것을 알아볼 줄 아는 사람. 선생님을 동경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할게요.

우리 손에 쥐어주신 평안과 안정을 소중히 지킬게요. 누군가 뺏으려 하면 뺏기지 않으려 두 손을 움켜쥐고 싸울게요. 약해질 때마다 선생님을 생각해요. 선생님은 여전히 누군가를 버티게 해요. 그걸 기억해주세요. 선생님이 저에게, 어떤 이들에게 주시는 힘을. 날씨가 좋아요. 어디에 계시든, 늘 기쁘시길 바라요. 또 편지할게요.

부서지는 햇살 아래,
선생님의 용기를 닮고 싶은 학생 올림



가작

국립서울현충원장상

사랑의 증거



류지윤 서울방송고등학교 3학년

따가운 햇살이 뜨겁게 타오르는 날이었다. 마치 이곳에 잠든 수많은 순국 선열과 호국영령의 불타는 마음 같았다. 오랜만에 온 현충원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드넓게 펼쳐져 있는 묘비들과 여기저기 걸려있는 휘날리는 태극기들을 보면 그저 아름답게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곳에 올 때면 항상 여러 가지 감정이 든다. 슬프기도 하고 화나기도, 뿌듯한 감정이 들기도 한다. 당연하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보면 슬프고 나라를 위해 싸울 수밖에 없던 상황을 생각하면 화나고 그럼에도 묵묵하게 싸워주신 분들을 생각하면 뿌듯하고 존경스럽기 그지없기 때문이다. 또 조금은 참담하기도 하다. 묘비 수가 많은 만큼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많다는 증거이니까. 증거가 이리도 많이 남아 있어서 우리는 이분들을 더욱더 잊을 수 없다.

현충원을 왔을때 꼭 와보고 싶던 곳이 있었다. 바로 호국전시관인데 아무래도 현충원 하면 꼭 가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많은 곳을 둘러보는 것보다는 한 곳을 중심으로 자세하게 관람하고 싶었다. 호국전시관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웅을 주제로 전시하고 있었다.

1층에 있는 추모실에서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과 헌신을 추모하는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다. 보는 내내 감사한 마음뿐이었다. 과연 나는 조국을 위해 미련 없이 목숨을 희생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을 당연하게 해준 분들에게 너무 감사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신을 희생했는지 이렇게나마 어렵듯이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길지 않은 영상을 보면서도 한 분 한 분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며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태극기를 상징한 바닥의 구조물과 영상 또한 우리가 밟고 있는 평화로운 이 땅이 많은 호국영웅들의 희생으로 이뤄진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했다.

그러므로 나도 희생정신을 가지고 살고 싶다는 열정이 불타오르는 듯 가슴이 뜨거워졌다. 전시관을 나와 현충원에 드넓게 펼쳐져 있는 묘비들을 다시 봤을 때는 묘비들에 새겨진 이름 한 자 한 자가 눈에 들어왔다. 한 자 한 자 조용히 이름을 읊조렸다. 그리고 다짐했다. 묘비에 새겨진 그 이름, 이제는 내 가슴에 새기겠다고.



가작

국립서울현충원장상

그 꽃은 시들지 않았다



한다운 한강미디어고등학교 2학년

깔끔히 정리된 잔디. 풀들이 바람에 서로 부딪혀 소리를 내는 이곳. 나는 지금 국립서울현충원에 있다.

내 앞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묘역이 있다. 다닥다닥 서로 모여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긴 싸움을 끝내 마지막이 되어서라도 동료들과 함께 모여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 같았다. 먼저 죽어 보지 못했던, 자기 가족과도 같았던 동료들 이제라도 만나 함께 있는 듯한 느낌.

그 묘들의 주변을 둘러보니 묘 앞에 꽃혀 있는 꽃들이 보였다. 꽃은 시들지 않는 조화도 있었고 이미 시들어져 버린 생화도 있었다. 조화를 본 나는 이 의미가 시들지 않는 조화처럼 이 사람들에게 영원히 시들지 말아 달라는 의미인 것 같았다. 이미 시들어진 꽃은 아름다워 영원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 시들어 눈을 감았다는 의미인 것 같았다. 한때 화사하게 피었던 인생이 시들어 마무리되었다는 그런 느낌.

묘들의 주변은 정말이지 평온했다. 근처 꽃과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기분 좋은 소리를 냈고 바람은 뜨겁던 내 피부에 닿아 시원했다. 옆에 달려 있던 태극기도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이들에게 이제 다 끝났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이들은 알고 있을까? 이들의 청춘을 인생의 전반을 쏟아주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걸.

나는 이들이 살아가게끔 만들어 준 우리의 세상을 더욱 열심히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이후 전시회에서 한 부자의 이야기를 봤다. 호국 부자의 묘. 그들은 공군 전투기 조종사로 비행 훈련 중 순직한 아버지 박명렬 소령님과 아들 박인철 소령님이 이 국립서울현충원에 나란히 눈감아 있다고 적혀 있었다. 그들은 매우 어린 나이, 박명렬 소령님은 31세, 박인철 소령님은 27세에 세상을 밀어주는 바람이 되셨다. 아들 박인철 소령님은 2007년 7월 20일, 야간 요격 임무를 수행하던 중 서부 쪽 해상으로 추락하여 순직하셨다. 7월 20일은 내가 태어난 날이기도 하다. 새로운 한 생명이 눈을 뜰 때, 다른 한 생명은 눈을 감았다. 다른 한 꽃이 피어날 때, 또 다른 한 꽃이 시들어 저물었다.

전시회에 남겨진 사람들의 사진을 보니 정말이지 젊었다. 물론 나이가 든 사람들의 사진 또한 있었지만, 대부분 사진은 젊은 사람들의 사진이었다. 사진 속 사람들은 하나 같이 다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사진들 옆엔 그들이 태어난 연도부터 두 눈을 굳게 감은 연도까지의 시간이 나타나 있었다. 그 시간은 매우 짧았다. 그들은 날개를 펼칠 시간에 날개를 접기 바빴다. 혹여나 그 짧은 시간이 억울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했지만, 사진 속 그들의 웃는 모습을 보니 그런 생각은 사라졌다. 그 모든 것들로 그들이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었다. 누구보다 사랑했던 이 나라를 지키는 마음은 모두가 똑같았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이 움직여 지금의 내가, 지금의 우리가 있다. 지워지지 않을 것 같던 아크릴물감에 더 이상 앞으로 색칠해 나아가기 어렵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지워지지 않을 줄만 알았던 아크릴물감을 지워나갔다. 이제 완벽히 지워져 깨끗해진 새하얀 도화지에 새로운 색들을 더해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게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우리의 작은 메시지이자 대답이다.



가작

국립서울현충원장상

현충원의 사람들



최하은 혜화여자고등학교 3학년

이번 호국문에 백일장을 기회로 현충원에 두 번째로 방문하게 되었다. 처음으로 현충원에 왔을 때도 백일장에 참가하러 온 터라 이곳에 대해 큰 생각을 하지 않았다. 게다가 첫 백일장이었기에 더욱 그랬다. 하지만 이번 백일장은 기회가 되어서 현충원의 곳곳을 둘러보게 되었다.

처음 간 곳은 묘역이었다. 전시관에서나 학교에서는 큰 지위, 큰 업적을 가지고 자신을 희생하신 분만 배울 수 있었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함께 분투하였고 비교할 수 없는 희생을 하였는지는 단순히 수치로만 배웠다. 그래서인지 투쟁이나 전쟁에 대해 큰 슬픔이나 한분 한분께 감사함을 대단히 느끼지는 못했었다. 하지만 묘역에 와서 수없이 많은 묘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우선 묘가 정말 많았다. 이 묘들의 수만큼, 혹은 더 많은 분들이 희생하셨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다. 대부분의 묘 앞에 꽃이 꽂혀 있었는데 꽃들을 보면서 그분들을 기리는 마음까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묘에 새겨져 있는 이름을 보면서 한분 한분의 인생과 분투, 우리나라를 강하게 향했던 마음이 느껴졌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었다. 또 옆면에 가족관계가 새겨져 있는 묘가 몇 개 있었는데 그것을 보니 절로 그분들의 슬픔이 느껴졌다. 물론 그분들께 감사하고 기리는

마음도 있었지만 슬픈 마음이 더 컸다. 왜냐면 단순히 수치로만 알 수 있었던 분들이 꼭 있었는데 이름, 군번, 가족관계를 보면서 모두 한 명의 사람으로 느껴졌다. 마치 하나의 묘가 하나의 큰 업적 같았다.

그 다음에는 유품전시관에 갔다.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고민 없이 전시관에 들어갔다. 전시관 벽면에는 신흥무관학교의 역사나 3·1운동,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을 향한 저항과 6·25전쟁에 참여하셨던 역사들이 적혀 있었다. 벽면에 적혀 있던 것을 모두 읽으면서 수업시간에 배웠던 내용과 비교하게 되었는데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또 주입식으로 공부하면서 외우는 것보다 직접 전시관에 와서 한 분씩의 이야기를 읽고 조국을 위해 하셨던 행동들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무조건적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느끼면서 보니 훨씬 좋은 공부가 되었다.

또 벽면에 보자마자 감탄이 나온 부분이 있었다. 벽면에 ‘한국군은 백 명의 베트남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양민을 보호한다.’라고 적혀져 있고 옆에 다소 지쳐 보이는 군인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이 문장을 보자마자 감탄이 나온 이유는 당시 군인들의 열의와 각오를 한 문장에 담아낸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 문장은 ‘적군을 죽이고 이기는 것보다는 한 명의 소중한 우리 백성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며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굳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또 옆에 전쟁에 지친 군인이 그려져 있어, 지쳤음에도 단단한 각오를 외치는 것 같아, 인상에 깊게 박혔다. 그리고 유품 전시관이니, 고인분들의 유품을 볼 수 있었다. 군번줄이나 신분증, 태권도 도복까지 진열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인상 깊었던 것은 전쟁 지역의 흙을 담아놓은 유리병이었다. 흥미롭기도 했고 유품전시관에는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또 신분증이 여러 개 있었는데, 모두 한 사람의 것이었다. 군대 내에서 지위가 오를 때마다 신분증을 새로이 만든 듯했다. 그런데 그 신분증들이 내용만 다르고 모두 사진이 똑같다는 점에서 그분의 성격이나 혹은 그때의 상황이 어땠는지까지 알 수 있었던 것 같다. 물론 그것을 증거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라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유품 하나하나에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아쉽기는 했다. 물론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역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나는 그 유품으로 인해서 투쟁과 전쟁에 희생된 고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조국을 위해 분투하신 한 사람의 인생을 보고 싶었다. 그런 점이 다소 아쉽기도 했지만, 일부러 찾아서 가지 않으면 이런 전시관을 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좋은 시간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많은 분들의 분투를 보면서 그때의 슬픔을 몸소 느낄 수 있던 기회였고 또 그분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내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었다. 더 공부하고 찾아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작

국립서울현충원장상

전시관을 돌아보며



노강희 충북여자고등학교 3학년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국립서울현충원의 유품전시관을 돌아보며 나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길, 영웅의 장의 독립영웅들 어록을 보며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신념을 알 수 있었다. 모두가 독립을 외쳤으며, 외세에게서 조국을 되찾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이었다. 고고한 투쟁 정신이 빛나는 말들이었다.

나는 참배의 길을 지나 독립의 장으로 들어갔다. 입구에서 왼쪽으로 들어가면 무후선열제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벽에 붙은 설명을 보자면 유해를 찾지 못한 분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공간이었다. 나는 벽 한쪽에 나열되어있는 위패를 보자마자 두 손을 모으게 되었다. 절로 겸손해지는 마음으로 제단을 둘러봤다. 제단엔 내가 교과서를 통해 알게 된 분들과 전혀 알지 못했던 분들의 위패가 세 줄로 모셔져 있었다. 많은 감정이 휘몰아쳤다.

그중에서 가장 컸던 마음은 나라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셨던 분들의 육신이 아무도 모른 채 이 나라에 잠기셨고, 이곳에 위패만이 남았다는 안타까움이었다. 그러나 나와는 다르게 우리의 영웅들께선 신경 쓰지 않으실지도 모른다. 중간 중간 사라진 위패들은 어떻게 된 일일까. 누군가가 위대하신 분들의 위패를 흠쳐 가진 않았을 것이다. 나의 희망이지만 위패가 놓여있다가 뒤늦게 유해를

찾게 되지 않았을까 추측해본다. 그곳을 한참이나 들여다보다 한 아이가 터치 스크린에 글을 남기는 것을 보았다. 존경합니다. 예쁜 꽃과 써진 그 글은 위패 위 스크린에 담기게 되었다. 그 아이와 함께 나 또한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애도했다.

길을 따라 돌아보면 묘역이 있다. 독립유공자의 묘역, 임시정부요인 묘역, 호국의 장에 있는 장군 묘역, 장병 묘역, 특별 전시실에 있는 묘역들이 가득했다.

독립유공자의 묘역에는 역사 시간에 배워 익히 알고 있던 이회영 애국지사께서 계셔서 반가운 마음과 함께 감사함이 들었다. 이회영 애국지사께서 항일 운동을 하시기 위해 여섯 형제와 일가족 전체가 만주로 망명을 했다는 것을 나는 이미 교과서를 통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전시관에서 보니 그분께서 하신 업적이 몸으로 직접 와닿았다. 온몸에 소름이 일었다.

다음으로 간 호국의 장에서는 아는 분들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여러 설명판을 보며 나의 마음에 그분들이 새겨졌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최초의 전투기 편대장이셨던 이근석 공군 준장님과 전투기 조종사이신 김영환 공군 준장님께서 제일 눈에 띄었다. 두 분 모두 공군 준장으로 전투기 조종사였다. 그들은 전투기를 조종하며 조국과 조국의 유산들을 지켜내셨다.

나는 그분들을 보고 가슴에 소용돌이가 이는 것 같았다. 이분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평화로운 이곳에서 글과 그림을 쓰고 그릴 수 있었겠지. 절로 애국심이 차오르고 나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것 같다. 조국을 지켜주신 수많은 영웅들께 감사함과 존경을 표한다.





가작

국립서울현충원장상

피눈물을 열의로 보답하는 마음을 담아



이승현 경기도 의정부시

몇 주 전에 외할아버지를 뵈고 함께 식사한 적이 있었다. 외할아버지는 이전보다 나의 목소리를 더 못 들으시고 식사를 할 때 젓가락도 집기 힘들어하셨다. 최근 들어, 증상이 심해진 듯했다. 엄마께서 내가 어릴 적, 외할아버지가 베트남 파병에 참여하신 국가유공자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다. 직업군인이셨던 외할아버지께서 그때 청력과 손의 신경을 다치셨다고 했다. 엄마는 그런 외할아버지를 뵈 때마다 눈물을 흘리시며 가슴 아파하신다. 그래도 외할아버지를 가장 잘 이해하고 공감 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아빠가 유일하다. 아빠도 현재 23년 재직 중이신 육군 대령이시기 때문에 외외할아버지의 입장을 늘 생각해주고 위로해 주신다. 요즘 아빠도 부대 일로 비상도 걸리고 바쁘신데 그러한 두 분을 보니까 나라를 위해 과거에도, 지금도 힘쓰고 계신 많은 분들이 생각났다. 때마침 호국 추모행사를 한다는 소식에 추모도 하고 그동안 고생하신 분들을 간파해서 죄송한 마음이 들어 현충원을 찾아가게 되었다.

가장 먼저, 호국전시관을 둘러 보았다. 백남규, 우재룡, 민중식 등 각자 다른 시기이지만 똑같이 나라를 위해 노력하신 분들이 계셨다. 그분들 중 내 이목을

끈 익숙한 분도 있었다. 바로 태백산 호랑이로 불린 '신돌석' 의병장이다. 평민 출신인 신돌석은 을미사변과 단발령 때문에 항일운동을 하신 분이였다. 이 분을 포획하기 위해 일본군은 현상금을 걸기까지 했다. 신돌석 이외에도 다양한 분들이 존재했는데 일제 강점기 때 독립투사들이 비교적 많았다는 것이 느껴졌다. 중고등학생 때 2·8 독립선언서와 민족 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사건도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내용을 사진과 영상으로 함께 접하니 뭔지 모를 큰 울림을 받았다. 역사 시험 단골 문제라고 무조건 암기만 했던 이 부분이 실은 독립운동가 분들이 목숨을 걸고 하신 것이라 생각하니, 죄송한 마음이 커져만 갔다.

가장 존경하는 위인인 유관순 열사님도 볼 수 있었다. 위인전으로도 100번을 넘게 접했고 '항거'라는 영화로도 느꼈던 그분은 3·1운동, 만세에 참여했던 분이다. 고향인 아우내 장터에서도 태극기를 나누어주며 시위행진을 이끌었는데 결국 가족들과 헤어지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끝까지 만세를 외치다가 모진 고문으로 돌아가셨다. 유관순 열사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만 한편으론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분이라 한다. 현재 나보다 어린 나이에 받았을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독립을 위한 의지가 얼마나 대단했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공부하기 힘들어 몽그적됐던 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 보이기만 한다.

역사 시간에도, 매체에서도 한 번도 뵈지 못한 분이 없던 분도 꽤 있었다. 그들 중 '노백린'이라는 군인이 인상 깊었다. 노백린은 한국군 양성에 주력한 육군 참위였다. 하와이로 건너가 국민군단을 창설하고 3·1운동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 총장으로 활약하셨다. 사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하면 이승만, 김구가 먼저 생각이 난다. 이 밖에도 여러 인물이 있지만 노백린은 이번에 처음 보게 된 분이였다. 잘 알려지지 못한 독립투사들이 많다는 사실이 안타깝고 한 분 한 분 꼭 기억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순국한 장군·장병들이 잠드신 묘역에도 가 보았다. 호국전시관에는 대개 일제 강점기 때의 독립투사들이 있었다면 이곳엔 6·25 때의 군인들이 대다수였다. 13묘역에 한국전쟁 중 가장 치열했던 백마고지 전투에서 전사하신 국군들이 안장되어 있었고 2,3묘역에 베트남 안케페스 전투의 전사자들이 있었다. 외할아버지도 베트남 파병에 참여해서인지 이곳에 누워계신 분들을

보니 마음 한 구석이 아려왔다. 이 외에 1·21 사태, 짜빈동 전투에서 전사하신 분들,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등 많은 분들이 잠들어 계셨다. 전시관과는 또 다르게 숭고한 마음이 들었다. 아무래도 전역하신 외할아버지와 현역 군인이신 아빠가 함께 생각나니 더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최근 5·18과 관련된 뉴스를 본 적이 있다. 5·18 민주화운동 때 시위대 버스를 운전하다가 경찰을 치어 숨지게 한 당사자가 유가족에 사죄하였다고 했다. 당사자는 민주화운동의 책임자들에게 사과를 촉구하기도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민주화운동 역시 진상규명을 밝히기로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현충원에 와 보니, 생각보다 많은 유공자들이 계시고 그만큼 나라를 사랑하고 지키고 싶었던 분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금까지 그저 학교에서, 책에서 배운 익숙한 분들만을 머릿속에 담아두었는데 더 많은 선열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배웠다. 그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편하고 안전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표현을 잘 못하는 나이지만 오늘날만큼 외할아버지와 아빠께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나라도 지키고 내 곁에 지금까지 있어주니까 말이다.

과거에 선열들이 흘린 붉은 피눈물이 나의 가슴을 뜨겁고 붉게 물들이는 열의가 되도록 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야겠다.



가작

국립서울현충원장상

(나에게 있어) 현충원의 의미



최종희 서울시 서초구

날씨가 따스해지며 자켓을 입지 않아도 되는 봄이 왔다. 그동안은 추운 날씨와 코로나로 인해 집에서만 있었다가 꽃을 보고 나무를 보러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이곳 현충원 역시 나에게 꽃과 나무를 보고 운동을 하러오기 위함이다.

처음 현충원에 들어설 때 문 앞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을 보면서 살짝 긴장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현충원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개방적인 곳이었다. 그 뒤로도 운동 겸 산책 겸 종종 현충원에 왔다.

탁 트인 넓은 잔디밭, 하늘을 통해 들려오는 새소리, 예쁜 꽃과 잘 가꾸어진 나무, 특히나 봄에는 꽃들이 너무 예뻐 사진을 찍으러 오기까지 한다.

동근 연못과 물 아래에 지나다니는 봉어들은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됐다. 이럴 때는 바다 앞 물멍, 불 앞의 불멍이 부럽지 않을 정도다.

더구나 사랑살랑 부는 바람과 드넓은 잔디밭, 서울 시내 이렇게 넓고 탁 트인 장소가 또 있을까? 그 덕에 하늘이 드넓게 보이고 내 마음도 뚫리는 듯 시원함을 더 해주니 나에게서는 보물 같은 곳이다.

올해는 유난히 종종 아니 자주 현충원에 와서 산책하고 거닌다. 혹은 언덕에

올라 한눈에 현충원 일부를 담고 오고 그러다 현충원의 다른 곳과 통하는 길과 산으로 연결되는 길을 발견하며 기뻐하기도 했다.

쉬는 날이면 가족을 불러 돛자리를 가지고 피크닉을 즐기고 어떤 날은 친구와 함께 김밥과 커피를 가져와 수다 삼매경에 빠졌다. 딸과 함께 책을 가져와 읽기도 하고 남편을 데리고 와 내가 발견한 길을 알려주며 운동을 하면서 현충원은 요즘 나의 최애 특별한 장소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똑같이 나열된 묘비와 똑같은 색과 모양의 묘비 앞 꽃을 보며 이곳이 국립묘지임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 좌우로 펼쳐진 드넓은 잔디밭 위에 규칙적으로 배열된 묘비가 더 눈에 띄었고 죽은 뒤 묻혀진 곳이라는 생각에 혼자 산책하며 느끼는 여유로움보다 서늘함이 밀려 오기 시작했다. 그 뒤로는 혼자서 묘비가 세워진 길목을 지나가기보다 잔디밭 끝에서 길을 꺾어 산으로 올라가거나 다시 되돌아서 산책을 끝냈다.

올해 코로나가 아직은 한참일 때, 부모님과 함께 사시던, 그러기에 친정집 방문할 때면 늘 뵈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장을 지키고 발인과 화장터와 장지를 가고 삼우제를 지내기도 했다. 과일과 포, 술, 제사음식을 가지고 올라가는 산은 형클어진 나무와 아직은 다듬어지지 않은 길목이지만 옆으로 보이는 금강과 햇살에 할머니를 하늘로 보내드리는 마음을 달랠 수 있었다. 가족과 친척들 모두 함께 장례를 지내고 함께 울며 손잡고 산을 오르며 표현은 안 하지만 서로 의지가 되는 것 같았다.

가족과 친척들 모두 함께 하는 것이 큰 위로가 될 수 있음을 나이 들어 더 크게 느끼게 된다. 딸아이가 꼭 안아주는 따스함이 큰 위로가 되고 아무 말 없이 잡아주는 남편의 손에서 든든했음이 느껴졌다.

며칠 뒤 운동 삼아 혼자 찾아 온 현충원, 이날도 잔디밭과 연못을 끼고 한 바퀴를 돌았다. 좌우로 펼쳐진 묘비 앞에서 산으로 가는 길로 꺾으면서 유난히 햇살에 반짝이는 묘비가 눈에 띄었다. 분홍색의 똑같은 색의 조화가 꽃힌 묘비를 지나며 돌아가신 할머니의 묘비가 생각났다. 여기 묻힌 그들은 나보다 어린 시절 군인으로 전쟁에 참여하고 나라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나는 전쟁을 직접 느껴보진 않았으니 돌아가신 할머니께 들었기도 했고 영상이나 뉴스, 드라마나 영화, 소설에서 보고 글로 읽은 것이 전부이다.

그들의 죽음에 가족들 역시 슬퍼했음도... 그들이 젊은 나이에 희생되어 시간이 흘러 묘비를 찾는 가족이 없을 수 있다는 생각에 애잔함이 밀려왔다.

그리고 나는 묘비 앞에서 가벼운 묵념을 하였고 그 이후부터 현충원을 찾을 때면 경건한 마음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산책이나 운동을 해도 넓게 펼쳐진 묘비 앞에서 잠시 묵상을 하였고 그들의 희생으로 나와 내 아이가 내 나라의 땅을 밟고 서 있을 수 있음에 깊은 감사함을 전하게 되었다. 이제 나에게 현충원은 단지 운동과 산책만의 장소가 아니다. 이곳은 그들의 희생 덕분에 내가 산책을 할 수 있는 장소임에 돌아가신 할머니께 그러했듯 오늘도 나는 묵념을 하고 감사함을 전해본다.





가작

국립서울현충원장상

현충원 비둘기



김수철 경기도 고양시

나는 현충원에서 사는 비둘기다. 처음부터 이곳에 살았던 것은 아니다. 탑골 공원, 대학로 등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살았다. 먹을 것은 부족하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나는 천덕꾸러기였다. 하지만 이곳에서 나는 평화의 상징이라 불리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지도, 쫓김을 당하지도 않으며 나른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여기에는 많은 묘비가 있다. 그중 내가 머무는 묘비에는 26613이라 새겨져 있다. 앞에는 누군가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나 뒷면에는 숫자 외 아무것도 새겨져 있지 않다. 그래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웬지 다른 묘비보다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는 26613에서 나는 살고 있다.

나의 하루는 주로 26613에서 햇살을 즐기다 가끔 하늘을 날아올라 현충원을 한 눈에 담고 여유로운 비행을 만끽한다. 내가 살았던 다른 곳에 비해 소음도 견딜만한 수준이고, 위험한 전선들도, 부딪히면 정말 아픈 투명한 방벽도 없다. 날갯짓 몇 번으로 하늘을 박차오르고 자유로운 활공유영... 난 이런 여유로움이 너무 좋다. 오늘도 역시 26613에서 아침 햇살에 날개를 말린 나는 현충원이 한눈에 조망 가능한 푸른하늘로 날아올랐다. 역시 이 고요함, 따스함, 바람의 여유... 여느 일상과 다를 바 없이 만족스럽다. 평소보다 더 따스한 햇살 때문일까? 아니면 공기 중 포함된 수분들 때문이었을까? 나는 평소보다 더 높이

날아 올랐다. 조금 더... 조금 더 높이 날아올라 눈을 감고 즐기는 자유로운 나만의 활공...

짧은 섬광과 함께 눈을 뜬 나는 평소와는 다른 풍광에 작은 눈이 커졌다. 평소 유유히 흐르는 한강 위 많은 다리들이 보이지 않는다. 대신 처참하게 끊어진 철교와 그 철교를 건너지 못해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아는 한강이 맞는 걸까? 그리고 보니 항상 미세먼지로 가득 찼던 회색 하늘과는 다른 붉은 화염과 곳곳에서 피어난 검은 연기 속을 날고 있는 내가 너무 낯설다. 세상을 삼켜 버릴 것 같은 붉은색 화염을 피해 보려 하지만 내 두 날개까지 태워버릴 기세로 화염은 거세어져만 갔다. 불안한 비행을 이어가는 내 귀에는 평소 차들의 경적 소리 대신 작은 내 귀를 찢을 듯한 하늘과 땅을 울리는 굉음만이 대기를 가득 채우고 있다. 길을 따라 줄지어 늘어선 차 대신 처음 보는 불을 뿜는 굉음과 어우러진 덩치 큰 차들만이 늘어서 있다. 눈에 들어온 사람들 역시 이러한 화염, 굉음, 공포감에 젖어든 것일까? 평소의 웃음 대신 고향과 비명, 절규만이 그들의 입을 채우고 있다. 여기가 내가 알고 있는 현충원, 서울이 맞을까?

그렇게 따스한 여유로운 비행이 아닌 공포와 기시감 가득한, 앓을 곳 없는, 멈출 수 없는 비행을 하던 나는 똑같은 옷을 입고 모여있는 군중 속 누군가가 눈에 들어왔다. 26613 나의 집에서 느꼈던 따스함이 눈에 들어온 그 사람에게서 느껴졌다. 비행에 치진 나는 낮게 낮게 그에게로 다가갔다. 그러다가 듣게 된 그의 목소리... “우리 1분대는 반드시 중대장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믿음은 단순히 나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 않나?” 강하지만 사람의 가슴을 울리는 그 한 마디에 주위 사람들은 하나같이 대답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어지는 그 사람의 마법 같은 한마디, “지금까지 죽음의 전선을 넘어온 우리에게 죽음의 순간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짓말은 하지 않겠다.

언젠가는 우리를 스쳐 지나간, 다시는 볼 수 없는 전우들과 같이 죽음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다. 하지만 이 분대장이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사실은 그 날이 오늘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집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오늘은 그날이 아니다. 물려서지 않는 의지, 함께

하는 전우들과 함께하고 있는 오늘은 우리의 그날이 아니다. 가자! 부딪히자! 척살 1분대!” 우레와 같은 함성이 이어지며 그 사람과 눈이 마주친 나는 알 수 있었다. 내가 왜 지금 이 사람에게 끌려왔는지, 내가 왜 이곳 현충원, 26613에서 살고 있는지, 이것은 나의 기억이자, 과거이자,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우리가 겪었던 전쟁과 분단의 아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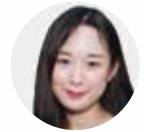
나는 천덕꾸러기 비둘기가 아니다. 나는 누군가의 아들이자 아버지였으며, 나는 군인이었다. 26613 묘비 앞에 새겨진 육군하사 정원호... 나는 육군하사 정원호이다. 나는 현충원에서 잠들어 있지만 살고 있는 비둘기다.



가작

국립서울현충원장상

꿈꾸던 6월의 현충원



정혜령 서울시 동대문구

지금으로부터 9년 전 이맘 때, 그러니까 2013년 여름, 우리 학교에서 이곳 현충원으로 봉사활동을 온 적이 있다. 무더운 여름이 찾아오려 눈치를 보고 있을 6월 말의 하루였는데, 우리는 대형 버스를 타고形形色색의 도시락과 얼음 물을 싸 들고 현충원을 찾았다.

당시 뻑뻑하고 질서정연하게 들어선 묘비의 근엄함과 그 규모에 압도당했었다.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쪽쪽 빨아들일 수 있을 만큼 말랑말랑한 작은 나무들이 이겨내기엔 너무도 버거운 더위였다. 어린 나무들은 묘비가 즐비한 틈 사이 사이를 거닐며 그들의 그늘과 쉼터와 빗이 되어주었다. 세로로 파인 이름 한 글자 한 글자를 젖은 수건으로 닦아 흙을 털어내었고,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떨궂으며 힘들다고 짜증 섞인 혼잣말을 내뱉기도 했다. 맞은편 친구에게 도시락으로 유부초밥을 싸 왔는지 김밥을 싸 왔는지 물어보기도 했다. 기록했던 잔디밭이 한바탕 시끌벅적해졌다. 온몸으로 받아낸 태양 빛에 달궈진 그들의 몸도 잠시 더위를 잊은 듯했다. 그리고 스물다섯이 된 내가 나의 땀방울이, 우리의 수고가 잠시나마 순국선열들에게 닿았던 이 자리에 다시 서 있다.

우리는 더위를 피해 배를 채운 뒤, 대한독립군 무명용사 위령탑과 충훈승천상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모양과 크기가 다른 브이들이 가득했던 사진이었다. 과연 대체 우리는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 사진을 찍었을까. 우리가 봉사활동을 왔다는 것? 아니면 순국선열들을 기리기 위해 이렇게나 고생을 했다는 것? 내겐 우리가 이들을 기리기 위해 묵념했던 시간보다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소비된 시간이 더 많았던 것처럼 느껴졌다. 기념 촬영의 의미가 일종의 생색 처럼 느껴져 부끄러워졌다. 지금 나에겐 얼음물도, 묘비를 구석구석 닦아 줄 젖은 수건도, 그리고 그들의 뱃이 되어줄 만한 여유도 없다. 그 사이 여유가 없었던 것은 이곳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중학교 3학년 당시 투덜거리며 봉사 활동을 왔을 때보다 더 많은 이름이 잔디 위에 새겨져 있었다. 해가 아홉 번 바뀔 사이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해서, 나 또한 격동하는 시대에 밀려나지 않기 위해 애써왔다. 빈손으로, 펜과 종이만을 들고 이곳을 찾은 스물다섯의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다.

나는 이곳에 꿈을 꾸러 왔다. 꿈을 꾸고, 도전을 통해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주제가 나오고 죄책감에 옆의 유품전시관을 찾았을 땐, 이미 나와 같은 이유로 전시관을 둘러보는 경쟁자들이 태반이었다. 모두 영혼 없이 찾은 발걸음들이 겹치. 터벅터벅 걷는 그들의 발끝에서 귀찮음과 탄식이 터져 나왔다. 전보다 나이가 든 탓인지, 아니면 제법 철이 좀 든것인지 열여섯 당시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중 기억에 남았던 건, ‘호국 형제’, ‘호국 부자’의 묘였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눈을 감은 열사들의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유품들을 바라보며 나도 모르게 유리창으로 손을 뚫고 말았다. 통유리에 찍힌 손자국보다 더 많은 희생자의 피 묻은, 손자국을 보았을 그들의 모습에 좀처럼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전시관을 나와 2층 발코니에서 밖을 내려다보니, 묘역들과 현충관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27, 28, 29. 열여섯 나와 우리가 쏘아대던 햇빛을 맞아가며 닦았던 묘역들이었다. 다시 찾은 이곳은 변함이 없었고, 열심히 이름 모를 묘비를 닦던 열여섯 소녀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찾는 데만 꼬박 9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고 변한 건 나뿐, 이곳은 여전했다. 여전히 나라를 위해 몸바친 이들의

얼이 편히 쉬고 있는 것 같아 안심되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그제야 그들의 공을 인정받는다게 실로 한탄스러웠다. 우리의 아픈 과거들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숨을 거둔 그들의 후손들에게 남긴 유산이 아닐까 한다. 드넓은 별판 위 굳건하게 새겨진 이름들 사이를 가로질러 갈 때면, 그런 잔디를 밟아 앞으로 나아갈 때면 그들의 울부짖음이 느껴지는 것만 같았다. 한 발 한 발 내딛을수록 이름 모를 그들의 절규와 뼈를 깎는 고통이 내 발목을 붙잡는 것만 같았다.

나는 비록 나의 목표와 꿈을 위해 이곳을 찾았지만 꿈을 피워보지 못한 채 처절하게 숨이 멎어야만 했던 수천만 명의 희망을 안고, 그들의 유산에 감사하며 나 또한 후손들에게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애써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가슴으로 그들의 이름 한 자 한 자를 기억하는 일부터 시작해야겠다. 누군가가 닦아놓은 길 위를 걸을 수 있는 것은 참으로 크나큰 영광이 아닐 수 없다. 지금 나는 꿈을 현실로 실현하기 위해 떠난다. 수천만 명의 꿈이 잠들어 있는, 이곳은 현충원이다.





가작

국립서울현충원장상

서간도의 할머니, 그리움을 딛고



이현정 서울시 양천구

할머니가 애족장을 받으셨다. 임청각 독립유공자 중 10번째가 되셨다. 서간도의 삶을 기록한 독립운동회고록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 소리가'가 책으로 나오고 여성독립운동가로서 재조명되는 계기가 되었다.

할머니는 여든이 넘는 연세에도 그 시절을 생생하게 기억해 내셨다. 만주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땐 단추를 달고 옷을 지어 품삯으로 식량을 구하기도 했다. 지난 일을 구술하기도 하고 원고지에 빼곡이 글을 쓰기도 하셨다. 할머니가 서울에 가 계실 땐 아랫방 서고에 있던 할머니의 글을 읽어보곤 했다. 빗바랜 할머니의 글에는 서간도의 고단했지만 자긍심을 갖고 살아온 삶이 고스란히 녹여있었다.

할머니는 열 명이 넘는 손주들 가운데 나를 유난히 이뻐하셨다. 까만 피부에 말라깽이, 키만 큰 나를 '유한당'이라고 하셨다. 어릴 적 책 읽기를 좋아하고 시 한 편 쓴 게 안동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서울에 사는 사촌들한테도 그렇게 자랑을 하셨다. 서울을 다녀오실 때면 본인 드시라고 준 사탕을 내게 꼭 주곤 하셨다. 대부분의 독립유공자 후손처럼 나의 삶도 곤궁했기에 할머니가 전해 주신 사탕은 귀한 선물이기도 했다.

열두세 살 무렵엔 할머니가 동네 일가 어른들을 만나고 오시면 부엌에 들어가

좋아하시던 펍펍한 된장찌개에 호박잎을 꺼내고 국을 데워 아랫방에 가져다 드리곤 했는데, 할머니는 두고두고 이야기를 하셨다. '내가 점심 먹었다 말을 안하면 자가 어느새 점심을 준비하고 있다고, 내 오늘은 점심 먹고 왔다.'며 웃으시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중학생이 되고 할머니 곁에 앉아 책을 읽고 있으면 독립운동가의 글을 읽고 있는 내 모습을 그렇게 대견해 하셨다. 하루는 학교에서 배운 청포도가 익는 고장이 안동이라며 시를 읽어 드렸더니 고종사촌인 이육사와의 추억을 어제 일처럼 전해주시기도 하셨다.

지난해 모처럼 할머니가 계신 현충원에 다녀왔다. 꽃을 사 들고 임청각 여러 어른들과 할아버지 할머니 묘역 앞에 섰다. 가만히 눈을 감고 할머니를 떠올려 본다. 임청각 여러 어른들과 이육사를 만나 바라던 손님이 청포를 입고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소상하게 전하고 계실까? 그분들이 그렇게 염원하던 독립이 되었고 그분들 덕에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가진 국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학교에 간 아들이 도서관에 신청했던 할머니의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의 바람 소리가'가 도착했다고 사진을 보내왔다. 친구들도 함께 읽어보면 좋겠다는 말을 덧붙여서.

자긍심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랐던 할머니. 그리움이 북받쳐온다. 그리움을 딛고 더 나은 나라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다짐해본다.



국립서울현충원 소개

현충원 행사

현충원 묘역

현충원 시설과 조형물

나라사랑 정신

현충원의 사계

대회 포스터

현충원 카카오톡 친구 추가

현충원 주요행사

현충원 방문안내

현충원 소개



봄 호국행사(4월)



호국문예백일장 / 현충원 그림그리기 대회(5월)

현충원 행사



정기음악회(연중 4회)



국방부 특별군악·의장 행사(4~6월, 10~11월)



이승만 대통령 묘소



박정희 대통령 묘소



김영삼 대통령 묘소



김대중 대통령 묘소



독립유공자묘역



국가유공자묘역



장군묘역



장병묘역



경찰관묘역



현충탑



현충문



위패봉안관



충혼당



재일학도의용군 전몰용사위령비



대한독립군 무명용사 위령탑



육탄10용사현충비



학도의용군무명용사탑



경찰충혼탑



유격부대전적위령비



충성분수대



호국영웅상



애국투사상



충훈승천상



영현승천상



대통령 취임 참배 (2022.3.10.)



미국 대통령 참배 (2022.5.21.)

현충원 소개



어린이 참배



유아체험학습

나라사랑 정신



나라사랑체험학습



현충원호국강연회



현충원의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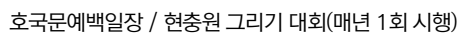
현충원의 '여름'



현충원의 '가을'



현충원의 '겨울'





국립서울현충원 주요행사

나라사랑 행사

봄 호국추모행사 | 4월

호국정신이 깃들어 있는 수양벚꽃나무 군락지인 현충원에서 다양한 체험행사 운영

호국문예백일장 및 그림그리기 대회 | 5월

내용 | 초·중·고·일반인 대상, 나라사랑을 주제로 백일장과 그림그리기 대회 개최
시상 | 국방부장관상, 국립서울현충원장상, 서울·경기·인천교육감상 등 다수
신청 | 현충원 홈페이지 신청 www.snmb.mil.kr

정기음악회 | 3월~11월

내용 | 국방부 국군교향악단(80인조 오케스트라) 등 초청 연주회
일시/장소 |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현충관
신청 | 현충원 홈페이지 신청 www.snmb.mil.kr

국방부 특별 군악·의장행사 | 4~6월, 10~11월

내용 | 국방부 3군 의장시범, 전통무술시범, 여군 의장시범 등
일시/장소 | 위 기간 중 토요일 오후 2시(홈페이지에 별도 공지)/겨레얼마당

가을 호국추모행사 | 10월 말

가을이 무르익는 때, 현충원의 아름다운 단풍나무 아래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행사 운영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인·단체 봉사활동 | 4월~11월

내용 | 현충원 묘역 정화활동을 통해 나라의 소중함을 느끼는 나라사랑 실천활동
대상 | 개인, 단체(학교, 기업, 각종 사회단체)
활동 | 묘비닦기, 잡초제거 등

교육·체험 프로그램

일반 단체견학 | 1월~12월

연중 실시하는 현충원의 대표 견학 프로그램으로 학생 및 일반단체 대상
내용 | 현충탑 참배, 묘역(해설)순례, 전시관 관람, 호국영화 관람

교육·체험 프로그램

휴가장병 견학 프로그램 | 1월~12월

장병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견학 프로그램으로 1시간 30분 이상 견학시
확인증 발급하며, 부대에 따라 1일 휴가 지급(부대 확인 요망)

내용 | 현충탑 참배, 위패봉안관, 독립유공자묘역(무후선열제단),
대한독립군 무용용사위령탑, 유품전시관, 호국전시관

유아 체험학습 | 3월~11월

유아 단체 대상, 색칠체험 교재 및 만들기 체험 교구 무료 제공

내용 | 현충원 색칠체험과 현충탑 퍼즐 연필꽃이 만들기 체험 중 택일,
호국영화 관람, 참배

국가상징 체험학습 | 3~11월

초등학생 대상 “현충원과 함께하는 국가상징물 체험학습” 교육 프로그램

내용 | 유품전시관 해설, 교육(애국지사 및 국가유공자), 나라사랑 카드게임,
현충탑 참배, 독립유공자묘역 순례, 역사 퀴즈 등
퀴즈 등(우수자 현충원장상 수여, 참가자 전원 교재 및 기념품 증정)

나라사랑 체험학습 | 3~11월

초·중학생 대상, 현충원 안장자와 연계된 “체험, 선열들의 발자취” 교육 프로그램

내용 | 유품전시관 해설, 교육(애국지사 및 국가유공자), 나라사랑 보드게임,
현충탑 참배, 독립유공자묘역 순례, 역사 퀴즈 등
(우수자 현충원장상 수여, 참가자 전원 교재 및 기념품 증정)

나라사랑 호국강연회 | 3월~12월

중·고등학생 대상 외부 유명강사 초청 특별강연 프로그램

내용 | 현충탑 참배, 묘역순례, 특별강연, 호국영화 관람(참가자 전원 기념품 증정)

나라사랑 체험활동 | 3~11월

초·중·고등학교 대상, 견학과 봉사를 결합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내용 | 현충탑 참배, 묘역(해설)순례, 봉사활동, 전시관 관람, 호국영화 관람
(봉사활동확인서 발급)



국립서울현충원 방문안내



참배·개방시간

11월의 공휴일, 동절기(12~2월)의 토요일 및 휴일은
전시관 휴관입니다.

참배 시간 | 오전 9시~오후 6시

개방 시간 | 오전 6시~오후 6시

전시관 관람 시간 | 오전 9시 30분~오후 5시 30분

단체견학·전시관 관람 등 무료

대상별 다양한 교육/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현충원 누리집 - 신청마당 - 견학프로그램 안내 참고
문의 | 02-811-6341~3, (군) 905-6341~3

오시는 길

지하철 **4호선** 동작/현충원역 하차 4번 출구(동문150m)

9호선 동작/현충원역 하차 8번 출구(정문10m)



국립서울현충원
Seoul National Cemetery



여기는 민족의 열이 서린 곳
조국과 함께 영원히 가는 이들
해와 달이 이 언덕을 보호하리라



호국문예 제22집 [현충원에서 띄우는 편지]

인쇄·발행 | 2022년 10월

기획·발행 | 국립서울현충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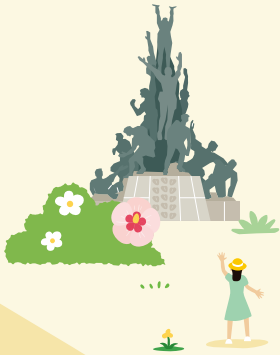
편집·인쇄 | 디자인그룹여름(www.designsummer.co.kr)

주 소 | 서울 동작구 현충로 210

전 화 | 02. 811. 6343

홈페이지 | www.snmb.mil.kr

ISSN 2586-260X 비매품



국립서울현충원
Seoul National Cemetery

